

081P-0338

1000906719960430

서울특별시서초구 우면동 92-6한국교육개발원 / 격월간 교육개발 / 발행일 1996년 4월 30일 / 등록번호 마-574 / 발행인 이돈희 / 인쇄처 국정교과서 (주) / 서매품

교육개발

1996

5

통권 101호

구입	납입	기증·교환
P 310,5		
7384		
등 © 국회도서관 © 록		

정재걸/류시황/김명신/김영혁/염호상/박영숙

권두칼럼

교육개혁의 비전과 우리의 선택/박세일

시론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시형

정보화사회의 교육의 허점/이중한

테마대담 봉사활동

나드리/김규식/황의옥/김영애/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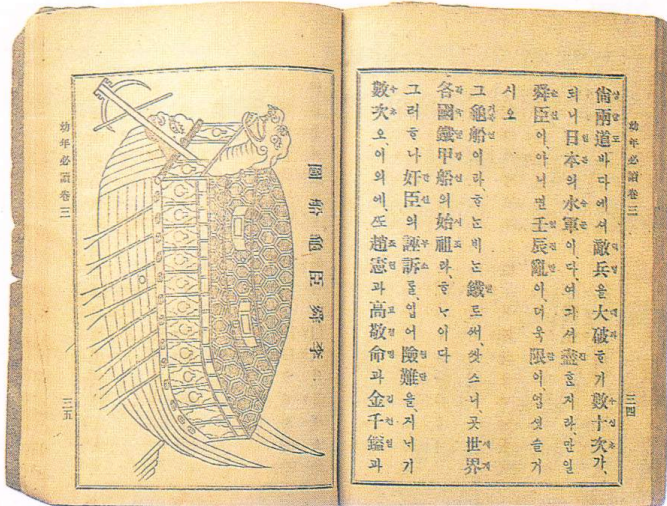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의 창조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개발

기획조정실 홍보편집팀 TEL(02)3460-0233, 0234, FAX(02)579-0746

幼年必讀



사진은 광무 11년(1907년)에 발행된 책으로 아동들에게 애국심과 자주 독립 정신을 심어주고자 만들어졌다. 내용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지리, 세계 사정 등을 수록하여 아동들에게 다양한 지식을 심어주고자 노력하였으며,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금강산, 거북선 등 많은 삽화를 그려넣어 아동들이 책을 익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 자료제공 : 삼성출판박물관
- 자료해설 : 손 영 주

교육개발

1996. 5

교육개발 1996. 5/통권 101호/1975년 8월 25일 등록
등록번호 마-574/1996년 4월 30일 발행/격월간
발행인·이돈희/발행처·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우편번호 137-791
전화 3460-0233, 0234/인쇄처·국정교과서주식회사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발행인/이돈희
- 출판심의위원장/공은배
- 출판심의위원/김왕근, 김홍원, 김혜숙,
나정, 백성준, 유균상, 이용순,
정성무, 천세영, 최상근
- 홍보편집팀장/남미영
- 기자/손영주, 정태호



■ 화제의 사진

유년필독(幼年必讀) 1

■ 권두칼럼

교육개혁의 비전과 우리의 선택/박세일 4

■ 한국교육의 뿌리를 찾아서 19

한국 교육학의 뿌리를 찾아서/이홍우 7

■ 시론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시형 10

정보화 사회의 교육의 허점/이중환 14

■ 스승의 한마디

학자의 師表를 보여주신 스승/이경숙 18

■ 특별기획

교사와 자존심

교권의 본질/정재결 22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교사/류시황 26

교사의 자존심과 촌지/김병신 30

교사의 자존심을 위한 행정가의 역할/김영혁 34

교사에게 자존심을/염호상 38

인기있는 교사, 실력있는 교사/박영숙 42

■ 알아봅시다.

한국의 교육지표 1995-교육의 배경 편/천세영

..... 46

■ 테마대담

봉사활동

나드리/김규식/황의옥/김영애/백순근 48

■ 보고서 중계

- 초등학교 학생의 사회와 연구/김영화 65
- '95교육용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새빛'
연구 개발/서영석 70

■ 세계교육의 현주소

- 말레이시아의 교육발전 전략/장석민 76
- 개방 중국의 교육 비전 및
교사 교육의 전망/김혜숙 81

■ 연구동향

- 포스트모더니즘과 교육/최종덕 86
- OECD, 그 현황과 교육연구 활동/홍영란 91
- 교육통계의 국제표준화 연구동향/고장완 97

■ 시·도 교육연구원 활동 109

■ KEDI 연구 뉴스 102

■ 이달의 명상/방진이

● 전화번호가 달라졌습니다. ●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표전화가 96년 5월 1일자로
TEL:34600-114로 바뀝니다.



■ 학교탐방58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찾아서/김홍원



■ 문화광장63
까유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손영주



■ KEDI의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 □
.....101

교육개혁의 비전과 우리의 선택

박 세 일(대통령 사회복지 수석비서관)

세상이 달라지면 우리의 생각도 달라져야 한다.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개인이나 사회는 발전하고 그렇지 못한 개인이나 사회는 퇴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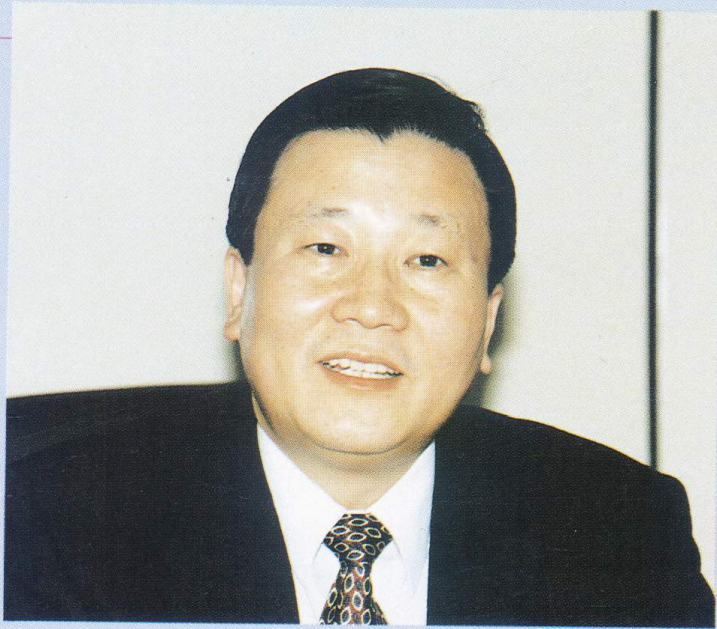
우리는 현재 큰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살고 있다. 단순히 시간적 개념으로 20세기에서 21세기로 진입하는 문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 질적으로 다른 시대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다. 20세기의 산업화의 시대, 근대화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소위 정보화의 시대, 세계화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시대가 달라지면 국가의 발전원리도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원리도 달라지게 된다.

근대화 시대에는 우리는 후발주자로서 선진국을 열심히 따라가고 배우고 흉내내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선진국에서 수입한 지식을 가능한 빨리 대량으로 암기하면 되었다. 소위 암기위주의 획일화 교육은 당시에는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이제 근대화의 시대는 끝나고 우리 스스로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고 있다. 이제는 외국 것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창의와 우리만의 독창성을 보여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계에서 경쟁하여야 한다. 이제는 다양성과 창의가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소품종 대량생산으로 특정지워지는 산업화의 시대는 끝나고 있다. 이제 다품종 소량생산의 정보화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이제는 다양화와 특성화 그리고 정보화가 필요한 시대이다.

정보화 시대에 국부(國富)의 수준이나 개인의 삶의 질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기술, 문화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국민들에게 체화(體化)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의 양과 질, 기술과 문화의 양과 질이 그 나라의 국부의 크기를 결정한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에 국가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지식, 기술, 문화 수준을 어떻게 하여 극

대화할 것인가, 환언하면 어떻게 하여 전 국민을 학습인화(學習人化)하고 전 국토를 학습장(學習場化)화할 수 있는가가 된다. 어떻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고 어떻게 하여 가정, 학교, 직장을 모두 학습장으로 만들 수 있게 하겠는가 된다.

요컨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을 해내겠다는 것이 바로 교육개혁의 기본철학이고 비전이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첫째, 교육을 열린 체제로 가지고 가야 한다. 특히 학교와 직장 사이의 이동이 극히 자유스러워야 한다. 직장 다니다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학교에 다니며 직장을 다닐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간 학과간 전공간의 학생이동도 극히 자유스러워야 한다.

둘째, 교육의 정보화가 급진전되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예컨대 학교가 아니더라도 직장 혹은 가정에서도 원하는 교육을 얼마든지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으려면 교육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공급자간의 경쟁이 격화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교육이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간의 경쟁만을 높였던 것이라면 이제는 정반대가 되어야 한다. 학교간의 경쟁이 증대되어야 비로서 양질의 교육,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수요자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진다.

넷째, 교육의 내용이 자기 철학능력을 높이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보와 지식의 변화가 급격한 시대에 평생교육이 가능하려면 항상 스승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스스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찾아내고 소화해 내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우리 나라가 6·25후 적빈(赤貧)의 상태에서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이룬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바로 우리 국민의 교육열이다. 이 교육열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자산(資産)이다.

이 교육열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아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분출된다면 우리 나라는 분명히 21세기 세계 중심국가가 되고,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동방의 찬란한 빛이

될 것이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민족의 교육열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분출시키는 노력이 바로 교육개혁이다.

학교와 직장 사이의 이동이 극히 자유스러워야 한다. 직장 다니다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학교에 다니며 직장을 다닐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간 학과간 전공간의 학생이동도 극히 자유스러워야 한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명운(命運)이 바로 교육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교육개혁을 하고 있는가? 아니다.

세계의 주요나라들이 모두 교육개혁을 하고 있다.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까지의 교육의 틀을 크게 뜯어 고치고 있다. 모든 나라들이 21세기 국가 발전 전략과 생존 전략의 중심에 교육개혁을 놓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화 시대는 교육개혁이 경쟁하는 시대이다. 어느 나라가 교육개혁을 더 잘하는가를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이다. 여기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나라들만이 다가오는 21세기 국가의 번영과 자존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변화의 시대에 변화하는 민족은 발전하고 변화의 시대에 변화를 거부하는 국가는 낙오한다.㉠

한국 교육학의 뿌리를 찾아서

글 • 이 흥 우

가령 한 가정의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고 하자. (그 가장은 우리들 중의 어느 누구일 수도 있다.) 바로 그날부터 부인과 자식들은 가장이 없어진 상태에서 가사를 처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는가? 그 미망의 가족은 잠시나마 또는 의식의 저 밑바닥에서나마, 죽은 가장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나의 남편이라면 또는 우리 아버지라면 이 경우에 어떤 판단을 했겠는가, 만약 그가 살아 있다면 우리가 내리고자 하는 이 판단을 승인하겠는가 하는 것에 마음을 쓸 것인가? 아니면, 그들은 마치 가장의 죽음이 가져다 준 정신적 자유를 구가하기라도 하듯이 완전히 그들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할 것인가? '죽은 남편은,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남의 의견을 저지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다. 그가 살았을 때의 가정이 그의 정신을 따랐다면, 이제 그 가정은 당연히 우리의 정신을 따라야 한다.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어차피 어떤 정신이 가치있는 것인가는 어느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이다' 등등.

이제, 어느 영화에서처럼, 죽은 가장의 영혼이 유명(幽明)의 경계를 사이하여 후자의 사태를 목격한다고 하자. (공자가 '아버지 사후 3년 동안 그 아버지가 따르던 관례를 바꾸지 않으면 가히 효라고 할 수 있다'—三年無改於父之道可謂孝矣, 論語 學而 11, 里仁 20—고 말한 것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

다.) 이때 그 영혼은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그 영혼의 심경을 그야말로 우리 자신의 것으로 여실하게 상상할 때, 그 영화를 본 수많은 관객처럼 울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자신의 목소리를 들리게 할 수 없는 처지에서 그 영혼은 가장으로서의 자신의 삶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있으나마나한 삶을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저 사람들이 나를 가장으로 받들고 살아온 나의 가족이란 말인가? 나는 그들의 정신에 아무 것도 심어준 것이 없단 말인가? 그 영혼의 이 비탄과 자책은 한 마디로 말하여 가장 정확하고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교육의 실패를 예시한다.

시공간적인 확대에 따르는 몇 가지 필요한 변경을 가한다면 한 국가에 대해서도 위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조상과 자손 사이의 단절은 한 가정에서처럼 일시에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거의 식별되지 않게 일어나지만,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양자 사이의 '교육적 관계'는 여전히 의미있게 성립한다. (그 단절은 조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현재에도 일부 살아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결코 완전한 것일 순 없다. 그러나 또한 현재 스스로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머잖아 조상의 대열에 깬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하여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의 '집단적 영혼'이 있어서 자손이 그 조상의 삶에 관심과 애착을 가지기는 커녕, 심지어는 그 삶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청산하는 것을 자신의 ‘역사적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영혼 또한 자신의 삶이, 적어도 교육적인 면에서는 무효화되었다는 비탄과 자책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물론, 교육적인 면에서 무효화된 삶이 다른 면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참으로 의문이다.

‘한국 교육학의 뿌리를 찾는다’는 비유가 무엇인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그 비유로 표현되는 작업(‘뿌리를 찾는 일’)은 무엇보다도 조상의 삶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한 가정의 경우에서 죽은 가장이 할 법한 판단, 이미 목소리로 들릴 수 없는 그 판단을 애써 알아내고자 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그 판단을 알아내고자 할 때, 살아남은 가족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표면상 목하의 판단과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의 언행들, 심지어 가장이 쓰다 남긴 일상의 물건들 뿐이다. 이제 가족은 그 하찮은 사건과 사물에서 가장의 ‘정신’을 판독해 내지 않으면 안된다. 아니, 그 사건과 사물은 가족에게 그 정신을 판독할 관심과 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때에만 ‘하찮은’ 것, 있으나마나한 것이 된다. 그러나 가장의 삶이 그 나름으로 총체를 이루고 있는 만큼, 그러한 사건과 사물에는 틀림없이 그의 정신이 구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교육학의 뿌리를 찾는 일’은 교육학의 어느 한 분야(예컨대 교육사)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다. ‘교육학의 뿌리’는, 나무의 뿌리와는 달리, 사방으로 뻗은 가지의 마지막 끝을 붙잡고 한치 한치 다가감으로써만 도달될 수 있는 그런 뿌리이다. 우리 조상들의 삶을 이끌어 온 정신은 교육학이 다루는 모든 분야에 그 단서를 남기고 있으며, 오직 그 단서에 의해서만 우리는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교육학의 여러 분야들은 ‘한국 교육학의 뿌리를 찾는 것’ 이외에도 할 일이 있고 이 일은 그 자체로서도 충분히 중요성을 가질 수 있

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 교육학의 뿌리를 찾는다고 하여 외국 특히, 서양의 교육이론을 도외시하거나 배척할 필요는 없다. 서양의 교육이론은, 만약 그것이 올바르게 정립된 것이라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이어 내려온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그 이론에 사용되는 개념은, 만약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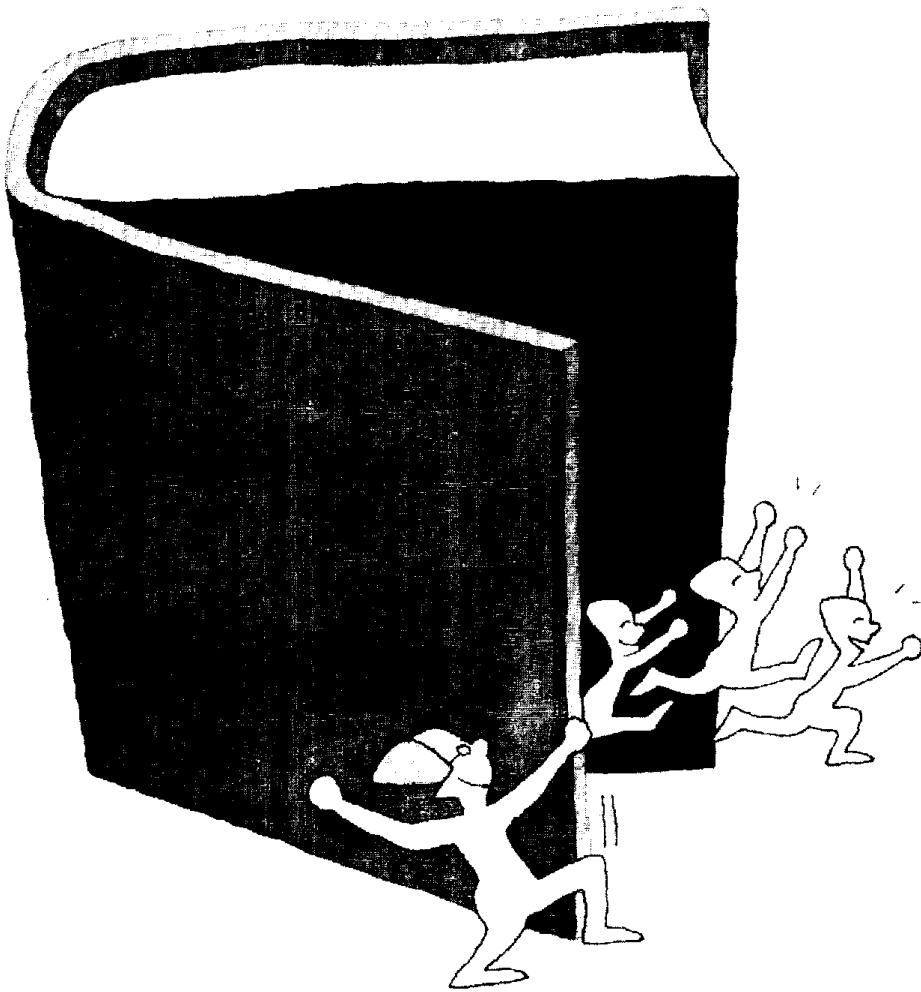
문제는 서양의 교육이론을 공부하는 우리의 자세에 있다. 만약 우리가 서양의 이론이나 개념을, 그것이 드러내고자 하는 삶과의 관련을 떠나서, 오로지 교육의 실제적 처방을 제시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면서 그 처방을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이 서양의 교육이론을 공부하는 유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공부는 한국 교육학의 뿌리를 찾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것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자세는 조상의 수치스러운 유산을 청산하려는 자기말살의 만행과 긴밀히 제휴하여 결국 우리의 삶과 교육을 밑바닥부터 파괴하고, 우리 것이 아닌 남의 것으로 그것을 대치할 뿐이다. 그러나 또한, 조상의 ‘집단적 영혼’에게 비탄과 자책을 안겨 주는 자손은 그 비탄과 자책이 머잖아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이 홍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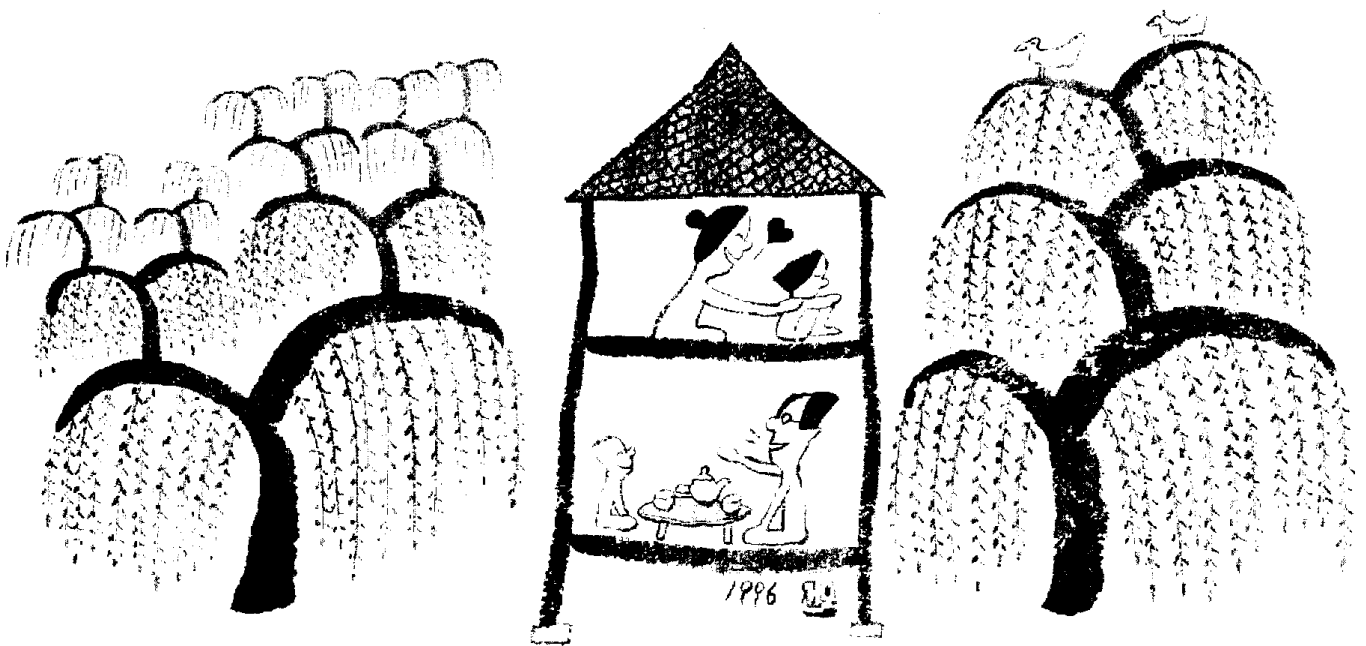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교육의 목적과 난점」, 「교육의 개념」 외 다수

한국교육개발원은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알맞은
교육의 이념·목적·내용·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개발」을 통하여 현장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이 시 형



필자는 오랜 정신과 의사 생활을 해오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불가사의한 한가지 의문이 있어 왔다. 즉 신체 질환들은 나이를 먹어 육신이 쇠잔해지면서 나타나는데 비해 대개의 정신장애는 생물학적으로 가장 왕성한 나이인 청소년기에 발병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일른 설명이 잘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왕성한 나이에 그만 큼 취약점이 많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급작스런 신체 발육에 비해 정신적인 적응이 안될 수도 있다. 일생 중 성적충동, 공격 충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도 청소년기다. 하지만 이들의 미숙한 인격 발달이나 자제력 결핍으로 인해 쉽게 안정성을 잃고 균형이 무너진다. 물론 여기엔 타고난 체질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개인에 따라선 유전자 결합 때문에 정신병 발병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젊은 나이에 정신장애란, 고통받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어서 안타깝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우리가 해온 일은 제한적이다.

병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약물 등으로 치료하는, 사후 약방문 식의 노력 밖에는 없다. 이젠 그것 만으로 안된다. 병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한다. 유전자, 필연성 운운하며 체념하기보다 이 문제를 보다 현실적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 우리가 늘상 해오던 평범한 이야기에서 시작해 보자.

청소년기의 혼란

청소년기는 생물학적으로 가장 왕성한 발육을 보이는 건강한 시기인 반면, 대단히 불안정하고 취약하여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기의 시기라는 사실부터 주목하자. 즉 청소년기는 급격하게 눈에 띄는 정도의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가 일생 중 가장 현저한 시기이다. 청소년을 일컬어 '주변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들이 어른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다.

주변인이란 두가지 상반되는 이질적인 사회집단이나 문화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경계에 위치하여 어느 쪽에도 가담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얻을 수 있고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동기는 벗어났지만 아직도 성인과 같이 자신을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인 시기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어른과 똑같은 혹은 그 이상의 정서적 욕망과 감정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빈약하고 대처도 능숙치 못하다. 이들은 독립을 원하지만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능력도 경험도 없다.

어른들 자신의 젊은 시절을 한번 돌아보자. 완수해야 할 발달과제가 너무 많고 무거워 심한 불안정과 혼란, 고독과 우울, 번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 신체적인 것보다 심리적, 정신적 건강이 더욱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청소년은 사고가 발달하면서 이상적인 인간이

나 세계를 꿈꾸기도 하고 비판능력도 강해진다. 또한 감수성이 예민해서 쉽게 감동하고 또 상처도 잘 받으므로 감정이 극단적으로 되기 쉽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소한 이유로도 자살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작은 스트레스도 견디지 못해 약물남용, 무단결석, 폭력, 비행 등으로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는 항해 도중 자칫 정서장애라는 암초에 걸려 좌초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일차적인 예방 차원에서도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가가 중대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불행히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 시기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 만으로 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청소년 문제의 현주소

청소년 문제는 우선 기성세대와의 대화 단절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얼마 전에 나온 한 여론조사부터 살펴보자. 청소년에게 고민이 생겼을 때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가 라는 질문에 53퍼센트가 친구에게 털어놓는다고 했고, 23퍼센트는 혼자서 해결한다고 했다. 부모와 상의하는 경우는 14퍼센트 밖에 되지 않았으며, 학교 선생님과 2퍼센트, 상담기관의 이용은 0.3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실제로 기성세대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게 잘될 리가 없다. 대화의 단절을 실감케 한다. 이렇게 된 데는 청소년 자신보다는 기성세대가 얼마나 진지하게 대화 노력을 했느냐에 귀결된다.

그 다음 중요한 문제는 어른들의 엘리트주의적 청소년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거의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리고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장을 갖게 됨으로써 출세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이들 부모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자녀가

“

미래사회는 다양성을 그 전제로 한다. 학교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인정해야 그들과의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자신의 문제를 부담없이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

”

출세할 때까지 뒷받침을 해주려는 각오도 되어 있다. 또한 학교의 교육환경도 공부 잘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소수의 우등생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일류대학에 몇사람을 진학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모든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교육방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 단체의 활동도 주로 우등생과 모범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성세대와 사회단체의 엘리트주의적 청소년관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학생들을 실패자나 낙오자의 범주로 끌어내리고 있다. 학급에서 중간 이하의 수준에 있는 중·고등학생은 꼭 대학에 진학을 해야 한다는 부모의 기대가 주는 압박감 속에서 억지로라도 공부하는 흥내를 내야하며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무거운 중압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가정에서는, 지나치게 순종적인 모범생과 반항만을 일삼는 골치덩어리의 양극단만이 가능하게 된다. 반항적인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를 외면하고 비슷한 입장의 친구들과 TV나 영화등의 매체를 통해 자기들끼리의 다른 세계를 만들어 서로 교류하고 공감하기도 한다.

대중문화의 스타를 동경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을 보상하려 하며 밤늦게 뻘을 지어 다니며 거리를 방황하게 되는 이른바 비행 청소년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청소년들의 몸부림은 어른들에게 이해되고 허용되기보다는 오해되고 거부되고 있다. 공부 이외 어떤 것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신인간 시대의 우리 청소년

많은 청소년들은 더 이상 자신이 장래가 촉망되는 선택된 소수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다고 아주 낙오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 대개는 자신을 수많은 청소년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대중적 인간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신세대의 등장은 기성세대에게 놀라움과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신세대의 이러한 가치관이나 인간상을 이해하지 않고선 어떤 대화도 있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익숙치 않은 종적인 인간 관계는 되도록 회피하고 권위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감을 갖고 있다. 때론 그것이 지나쳐서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통제를 거부하여 방종과 무책임에 빠질 위험도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집단주의적 가치관과는 달리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 가족, 회사, 국가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자유를 더 앞세우려 한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이기주의로 흘러 타인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비인간화로 치달을 위험도 안고 있다. 또 오늘의 기성세대는 전쟁과 가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잘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물질적 출세관을 지닌 반면 청소년들은 그것에서 상당히 탈피하고 있다.

즉 인생의 목표가 물질적 부의 추구를 통한 안정보다는 생활을 즐겁고 보람있게 하려는 것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기성세대가 미덕이라고 강조했던 극기, 인내, 근검, 절약, 독립심 같은 덕목들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는 대신 명랑, 쾌활, 유머, 재치, 융통성 있는 적응력을 강조하고 친구들과 사이에서 인기있는 스타가 되려는 가치지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신세대의 여러 특징을 필자는 '신인간'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 바 있다.

이러한 세대간의 차이로 인해 기성세대의 눈에는 청소년들이 나약하고 뚜렷한 주관 없이 휩쓸려 다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반대로 청소년에게는 기성세대가 속물적이고 위선적이며 권위만 부리는 세대로 인식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의 세대간 문제는 단순한 가치관의 차이만이 아닌 뿌리깊은 불신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는 인생에 있어 그 시기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되고 있지 못한 느낌을 갖게 한다.

해결의 출발점

20세기 이후의 현대 문명은 그 발전속도가 나날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경쟁이 과열하게 되었고, 자신의 능력에 비해 할당된 목표는 항상 부담이 되어 왔으며 이것이 불안의 일상화를 고착시키고 있다. 급작스런 사회 변화는 가치관의 혼란과 함께 도시생활의 아노미, 무질서 등 많은 사회병리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대표적 희생자가 우리의 청소년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듯이 이러한 문명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많은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그러나 시급한 것은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세계, 그들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

리고 무엇보다 기성세대의 '학교신화'부터 파기해야 한다. 미래사회는 다양성을 그 전제로 한다. 학교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 인정해야 그들과의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자신의 문제를 부담없이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에게서 비판과 거부감이 아닌 관심과 허용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은 말문을 열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

아직은 사회의 주역인 어른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 피로에 지친 기성세대에게 유능한 카운셀러가 되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어려운 과업이다. 하지만 비록 그 일이 실패할지라도 누구도 그들을 단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오늘의 어려운 현실이 문명의 발전 과정 중 필연적으로 거쳐갈 수밖에 없는 단계일 뿐 아니라, 어쩌면 문명 그 자체의 한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소년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은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완벽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보장이야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화의 노력마저 포기할 순 없지 않은가. ☹



이 시 형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미국 MERCY병원 인턴, 미국 Eastern 주립병원 스텝
-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부장, 서울 의대 외래 교수
- 「배짱으로 삼시다」, 「자신있게 사는 여성」 외

정보화사회의 교육의 허점

이 중 한



세상은 변하고 있다. 보통사람들까지도 무엇인가 변하고 있음을 느낄만큼 일상적인 삶속에서 변화가 일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이곳 저곳 길거리에서 사람들은 은행돈을 꺼내쓰고 있다. 입금도 물론 가능하다. 은행에 가서 지급표나 입금표를 또박또박 쓰고 주민등록증을 보이고 그리고도 은행원이 전화 받기를 끝낼 때까지 한참이나 기다리고 서 있는 일이 아직도 태반이지만, 그러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자동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올해 하반기

부터는 주민등록본 같은 서류 제출을 폐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하긴 깨알같은 글씨로 4장씩이나 써서 내야했던 신원진술서는 이미 사라졌다. 관공서 제출서류로만 보면 이상하게도 더 중요해 보이는 서류가 먼저 폐지되고, 별것 아닌 것같은 서류는 여전히 작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은 몹시 당황하고 있다. 아이들은 컴퓨터를 너무 재미있게 가지고 놀기 때문이다. 새 매체를 쓴다는 것에 대견함을 느끼면서도 같이 배워야 할지 아닐지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해도 컴퓨터를 사주는 일을 더이상 미룰 수

는 없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용어처럼 보이던 정보화사회라는 말이 부지부식간 실재하는 삶의 환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면 변화에 따른 인식과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공식화 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에서는 더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한다. 굳이 따질 것은 없이 교육은 언제나 내일을 살기 위한 능력의 준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 우리 사회는 지금, 여전히 변화를 인식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교육은 더 뒷줄에 서서 어떻게 되가는 가를 불구경하듯 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변화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해서 야기되는 상당한 오류들까지도, 어떤 의견도 없이 받아 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학교들에 지급되고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보자. 성능이나 용량이 보잘것 없어 이제는 시장에서 밀려난 컴퓨터들이 학교에 배급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이나마 이를 바르게 가르칠 교사마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교육은 이 상황에 어떤 조치도 강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나간 컴퓨터만 계속 받아 들인다.

그런가하면 아이들이 컴퓨터를 통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닐테지만 여하간 더 어떤 입장도 정리한 것이 없다. 아이들이 컴퓨터에서 외설·폭력 컴퓨터게임에나 몰입하고 세계곳곳의 포르노들을 복사해서 나누어 갖기를 즐긴다는 일은 공개적으로 보도까지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도 교육에서 이에 대한 논평은 나온바 없다. 그저 사회적 단속의 책임이거나, 또는 사회운동체의 화제쯤으로만 보고 있다.

한편 언론들은 최근 학교정보화를 마치 새 상품 팔듯 하고 있다. 학교정보화는 컴퓨터를 갖게 하고 그 사용법을 배우게만하면 된다는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중대한 인식의 오류를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컴퓨터의 세계, 즉 정보화세계란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컴퓨터 네트워크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세계를 뜻하는게 아니다. 이 컴퓨터 네트워크란 단지 보다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할 뿐, 작가에게 필요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어내야 하는가에는 아무런 역할도 해주지 않는 단순한 기능적 구조일 뿐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 세계란 없는 것과 같다. 오히려 쓰레기 정보들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시간과 정력과 의지까지도 파손된 채 늘어져버릴 가능성만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만해도 별로 대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얼마쯤의 시간을 좀 더 낭비하면 깨닫게 될 문제일지도 모른다.

실제의 문제는 정보화사회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삶의 양식과 의식의 형태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의 양식이 바뀌고 있다. 단적으로 지난 15년간 미국에서는 4천 5백만명이 실직을 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그저 경제 조건이나 경기의 침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노동의 내용이 바뀐 것에 의해서 일자리를 잃었다. 이제는 최하위에 있는 일자리에서도 든든한 어깨를 요구하지 않는다. 소위 막노동자리도 가벼운 손가락 끝과 두뇌적 판단력을 요구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신문사만 해도 85년부터 전산화 시스템을 운용해 오는데 이제는 공장이라는 부분이 거의 다 사라졌다. 기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기사도 쓰고 문선도 하고 조판도 하는 상태가 되었다. 옛 구조에서 남아 있는 것은 인쇄기뿐이다. 이것도 조만간 축소될 전망을 갖고 있다. PC보급이 확대되고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사회화 되면 신문지면을 TV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 필요한 기사만 뽑아서 읽게 된다. 그렇다면 인쇄된 신문을 보는 독자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기자들은 꼭 신문사에 출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사건현장에서 또는 취재한 장소에서 송고가 가능하다.

이런 점 때문에 노동의 변화는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두뇌적 노동으로 변하고 있다기 보다는, 육체와 두뇌를 통합적으로 요구하면서 시간과 공간도 통합하여 전면적인 새 근로양식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아야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재화(財貨)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기능적인 물질들이 중요한 재화였던 시대로부터 문화적 상징체들이 이미지적 상품이 더 중요해지고 따라서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아이디어 그 자체가 새로운 재화로 인정되는 시대에 이르고 있다.

스티븐 스피버그는 <쥬라기 공원> 1편 제작에 6천만달러를 들여 2억달러의 순익을 남겼다. 이중 대부분이 아이디어 값이다. 6천만달러 제작비 중 1천5백만달러를 받은 사람은 공룡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만든 사람이다. 그에게 원자재란 늘 쓰던 현 컴퓨터 뿐이었다. 스피버그 자신도 벌어들인 돈 중 1억달러는 공룡캐릭터의 사용료로 번 것이다. 여기에 물질적 원자재란 아예 없다. 그저 신발회사에도 팔고 장난감회사에도 팔겠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다.

점점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적 아이디어들이 잘 팔리게 해주는 구조가 바로 컴퓨터 네트워크 세계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정보화사회는 상품과 생산의 내용과 형식을 바꾸고 있다는 관점이, 유심히 보아야 할 대상인 것이다.

정보화사회는 지금 기존의 모든 학문체제를 흔들고 있다. <경제학의 사망>, <노동의 종말>과 같은 저술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고, 아무도 여기에 반기를 들지 못하고 있다. 완전히 철저하게 흔들림을 당하고 있는 영역은 대체와 연관된 학문들이다. 신문·TV·출판들은 멀티미디어라는 새 형식 속에서 자신이 설 자리가 어디쯤인지조차 아직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

**정보화사회 교육은
이제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컴퓨터 키를 두드리는
것이 교육이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든
변화하고 있는 생활의 양식과 의식의
형태에 대응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런 와중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 적절한 예일지 모르지만 간단히 두가지만 들자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읽기교육을 배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읽는 능력 속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계발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정보화사회를 살아가기는 막노동마저도 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의 읽기란 그러니까 재래식으로 교양을 위한 읽기도 아니다.

또 하나는 최근 프랑스 문화성이 연구를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프랑스 문화성은 교육성을 향해서 중등 교육까지 텍스트로 하는 교육은 12시에 끝내고, 오후에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에 할애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왜 그런가. 자신의 개성적 상상력과 사고력을 전보다 몇배 가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살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있고 반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다 개성적인 창조력을 계발하자는 원칙은 그간의 가치와 같은 것일뿐 아니라 변한 것도 없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정보화사회교육은 이제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컴퓨터 키를 두드리는

것이 교육이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든 변화하고 있는 생활의 양식과 의식의 형태에 대응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무엇인가. 그것이 O×문제인가. 보다 많은 학생의 통일된 모범답안인가. 또는 물질의 가치인가. 아니면 드러내 놓고 대중적으로 성공한 일반적인 재미의 상품들이나.

영상시대가 되었으니, 영상이 중요하지 인쇄물은 중요하지 않다는 성급한 편견도 위험하지만, 반년단위로 바뀌는 각종 기술들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그것들을 인정하겠느냐는 신중성 역시 그늘에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요즈음 참으로 힘들게 역사적인 교육개혁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 개혁의 하나에 사회봉사를 통해 내신성적을 만들자는 것이 있다. 나는 이 제도에 물론 찬성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봉사를 하는지에 대한 여건의 확인도 없이 접수를 곧 실시한다는 행동에는 놀라기 보다는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 사회봉사가말로 한 사회가 오랫동안 봉사로 이루어지는 체제를 가졌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것도 한 예를 들어보자. 장애자가 있는 곳에 학생들이 봉사를 하러 갔다. 그곳에서는 한 사람이 나와 학생들에게 이런저런 상황과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만 해도 하루로 부족하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것에 며칠씩 계속 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그곳에 가서 공연히 설명하는 사람의 시간만 빼앗고, 점심만 축내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돌아오게 마련이다. 이것은 또하나의 민폐를 만드는 것 이외엔 아무 것도 아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대형의료기관이나 미술관 같은 문화기관들은 상당수의 봉사자들로 운영된다. 봉사자교육부터 장시간 받아야 하는데, 이 봉사자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또 봉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미술관 같은 곳은 봉사자 프로그램이 6개월짜리도 있고, 이 교육을 받고도 봉사자자격 합격률은 10%정도이다.

이런 봉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봉사라 해서 그저 이곳저곳 기웃거리게 해서 교육적 의미조차 없다는 것을 알기는 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화사회 속에서의 교육을 위한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봉사는 또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어디엔가 있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화되지 않고 더더욱 조금이나마 진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이 이유가 교육 자신이 변하지 않고 있고 현실을 바로 읽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정보화사회라는 변화에 대해 우리 교육은 지금 너무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걱정이다. ●



이 중 한

-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서울신문 논설위원,
서울 YMCA 영상문화위원장
「문화촉매운동론」,
「도서목록개발연구」 외

“바쁘데 어떻게 왔어? 나도 최후인가 봐. 학교가 걱정이야. 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 하도록 해.” 중환자실에서 입원실로 옮기신 후 산소마스크를 벗기도록 하고 남기신 윤택림 이사장님의 유언이었다.

60년대 학교가 분규에 휩싸여 혼란상태에 있을 때 총장으로 추대되어 4년 동안 당시 서슬이 퍼렇던 문교부를 상대로 재판까지 하시면서 학교를 지키셨던 인연으로, 80년대 말에 이사장직을 맡으신 후 3년 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고심을 하시다가 91년 2월 돌아가실 때 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었다.

윤택림님은 총장시절 ‘목석 같은 사나이’란 별명을 얻으셨을 정도로 걸으론 좀처럼 감정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무뎠듯해 보였지만, 알고 보면 자상하고 ‘부드러운 남자’이었다.

비서실에 근무하던 사환학생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꽃다발을 들고 참석하시는가 하면 음악회에 자주 참석하셔서 음악을 감상하시고, 바이올린을 30년간 키셨기 때문에 연주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까지 하실 수 있는 멋쟁이였다.

청렴결백하시고 공사 구분을 뚜렷이 하시는 처신으로 소박하시면서도 자신있고 당당하게 사셨고, 물욕을 초월하신 담담한 삶의 자세를 지니셔서 늘 편안해 보이셨다. 교직에서 은퇴하신 후 받으신 퇴직금으로 과천에 사 농으셨던 농장이 정부 종합청사 부지로 수용되어 헐값으로 보상을 받으셨지만 불평 한 마디 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근검절약이 습관이 되셔서

양복도, 와이이셔츠도 낡아 떨어질 때까지 입고 다니셨다.

학자의 보양주 심승

이 경 숙

바쁘신 중에도 학문연구에 몰두, 총장 재직중에 <청년 심리학>이란 책을 출판 하셔서 교정을 본 일이 생각난다.

박사학위는 공부한 내용을 총정리해서 준비하고 취득해야 한다는 학문에 대한 진지하고 겸손한 철학을 갖고 계시 환갑이 지난 후에야 받으셨다. 80세가 넘으신 고령에도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계시 교육학회에서 학술논문을 발표하시고, 세미나나 심포지엄에서 기초 강연을 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학자의 사표(師表)가 어떤 모습인가를 일깨워 주셨다.

공적으로 일을 처리하실 때는 사심없이 남의 눈치 안보고 결단력을 내리는 용기를 가지고 계신 반면, 제자들의 경조사를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사소한 안부 편지까지 일일이 답장해 주시던 배려의 마음을 함께 갖추고 계셨던 윤태림 총장님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인생에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경 속

-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미국 싸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대학원 졸업 (국제정치학 박사)
-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 <북한의 여성생활> <중국 여성 연구> 외 다수

한국교육 원고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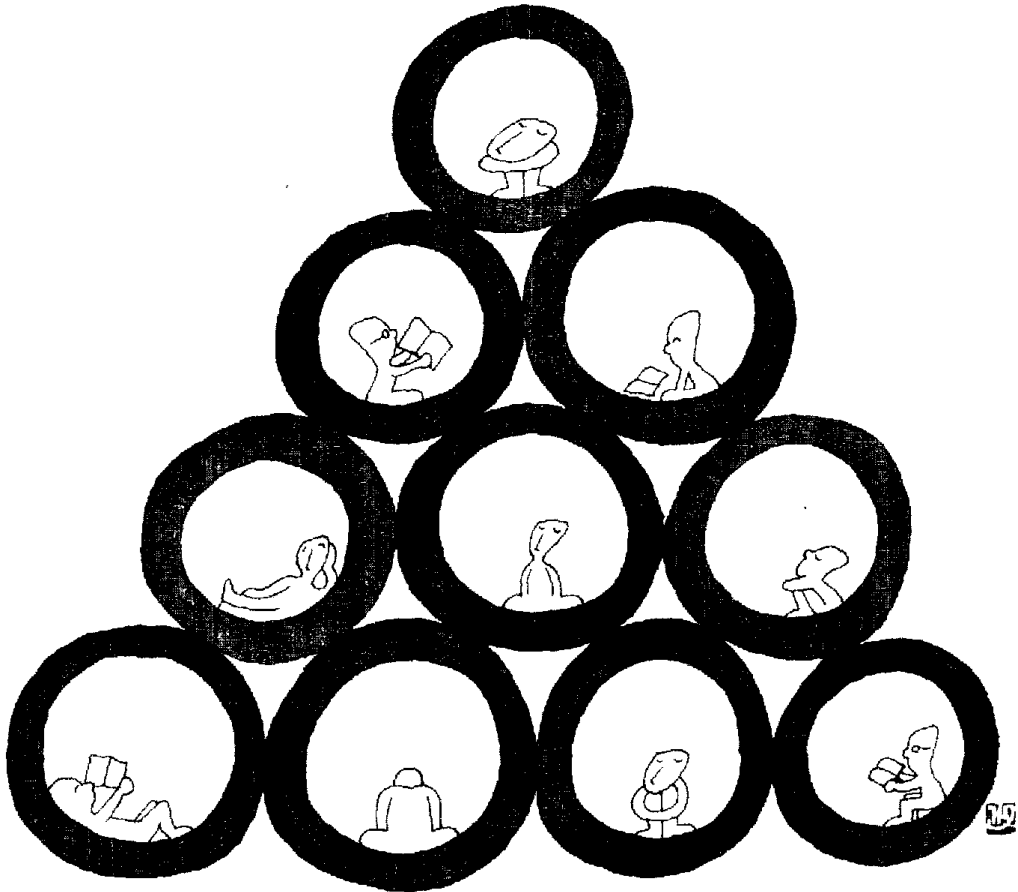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전문학술지인
<한국교육>제 23 권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 내용 : 한국 교육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서 타 학술지에 게재
사실이 없는 논문에 한함.
- ◆ 마감 : 1996년 6월 30일
- ◆ 매수 : 원고는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분량으로서 한 편당 2부
(디스켓 포함) 제출 및 영문요약
A₄용지 5매 이내 첨부
(더블스페이스 타자)
- ◆ 제출처 : (우)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조정팀
(Tel : 3460-0210, 0211)
- ◆ 기타 : 제출된 원고는 본원 연구기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특별기획

교사와 자존심



정재걸/류시황/김명신/김영혁/염호상/박영숙

교권의 본질

정재걸



· 서울대 사범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 「교육이란 무엇인가」(공저) 외

1. 교사는 존경받아야 하는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이 교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단순히 교사 상호간의 경쟁을 통해 승진과 봉급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 때문은 아니다. 교육개혁의 근본 취지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즉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육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교사들의 처지는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하기 때문이다.

몇몇 눈치 빠른 교사들은 자신들이 앞으로는 백화점 점원으로 전략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교사들의 불만은 이렇다. "언제 우리가 교육공급자로 군림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단지 나라에서 정해진 대로 배급쌀을 나눠준 죄밖에 없다", "그동안 뼈빠지게 고생했는데 이제와서 학생들과 학부모형들의 눈치나 보면서 가르쳐야 하겠는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되고 해부되고 있다. 미래의 산업구조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하고, 정치적 민주화가 마침내 가장 변화를 싫어하는 교육분야까지 확대된 결과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 무엇이라도 좋다. 문제는 장차 교사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이라면 당연히 교사보다는 학생들과 학부모형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제공되는 상품이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지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고, 물건을 파는 점원이 불친절하면 주인에게 해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권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

교권이란 무엇인가? 교권은 교사의 권리라고 한다. 교사의 권리는 무엇인가? 누구의 간섭없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인가? 교육내용을 교사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가?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교권이란 '지켜져야 할 그 무엇'이다. 그리고 지켜져야 할 그 무언은 다른 무엇보다도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 교사는 왜 존경받아야 하는가?

교사는 왜 존경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상식적인 답변은 교사가 보통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생 똥은 개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교직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하는 직업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듯이 보인다. 사실 가르치는 일이란 속이 많이 상하는 일이다. 온갖 노력을 기울여 가르쳤는데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이 남들이 싫어하는 직업인가?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교직의 인기가 급상승한다는 소식이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교직이 안정적이고 여가가 많은 직업이기 때문이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다. 그런데도 교직이 힘들고 싫어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한가지 답변은 교사가 '전문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직이란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한,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말한다. 전문직의 대표적인 사례로 의사나 변호사를 든다. 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장시간 심장 수술을 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며, 또 수많은 판례를 통해 피고인이 무죄임을 입증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과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인가? "교직은 전문직이다"라는 말은 교직이 전문직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닐까? 구태여 전문직에 기대면 서까지 존경을 구걸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교직이 실사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직은 사람들이 마땅히 존경해야 하는 직업인가? 심장 수술을 잘하는 의사를 환자는 반드시 존경해야 하는가? 재판에서 반드시 이기는 변호사는 반드시 존경받아야 하는가?

교사가 존경받아야 하는 이유는 교사가 남들이 싫어하는 좋은 일을 하기 때문도 아니고, 또 교직이 전문직이기 때문도 아니다. '교사=존경의 대상'이라는 등식은 교육이라는 현상의 속성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이다. 교육이란 주지하다시피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하고서야 가능한 현상이다. 선생한테 아무 것도 배울 것이 없다면 사제관계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 청출어람(淸出於藍)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교육이라는 현상이 일어난 결과로서의 일이다. 어쨌거나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로서의 사제관계가 교사가 존경받아야 하는 일차적인 근거가 된다.

그러나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강자를 항상 존경해야만 하는가? 더구나 문민정부의 교육 개혁이 수요자 중심이라고 하고 또 서양교육에서는 '학습자 중심', 혹은 '아동중심'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교사는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서양교육에서는 분명 교사가 우리만큼 존경받지도 못하였으며, 또 교사에 대한 존경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페다고지(Pedagogy)라는 말의 어원이 그리스의 노예교사인 파이다고고스(Paidagogos)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하듯이 서양의 교사들은 그리 높지 않은 사회적 위세를 누려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교사는 옛날부터 백성의 어버이요 지도자였다. 그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학습자관에 기인한다.

학습자란 배우는 자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에서는 학습자의 마음 속에 이미 배워야 할 교육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 속에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유교에서는 인간의 마음 속에 우주 삼라만상에 관한 모든 이치(理)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인간의 마음이 백지(Tabula Rasa)와 같다면 교사는 그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림을 그려넣는 화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 학습자의 마음이 도토리

인간의 마음이
 백지(Tabula Rasa)와 같다면
 교사는 그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림을 그려넣는
 화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 학습자의 마음이 도토리꼴과 같다면
 교사는 그 도토리가
 커다란 참나무로 잘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정원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

같다면 교사는 그 도토리가 커다란 참나무로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정원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학습자의 마음에 온갖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도토리가 아니라 커다란 참나무가 들어 있다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었을 때 “속을 까뒤집어 보여 주고 싶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 내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잘못된 시도인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교사는 학습자의 마음 속에 자신이 가르치려고 하는 모든 진리가 다 들어 있다고 말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을 밝혀내야 하는 것은 학습자 자신인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즐겨 사용했던 거경궁리(居敬窮理), 잠심자득(潛心自得), 주일무적(主一無適) 등의 방법은 사실은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라 학습하는 방법이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 속으로 침잠해 들어가면 어느 한 순간 심봉사가 눈을 뜨듯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진리가 한꺼번에 밝혀진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를 활연관통(豁然貫通), 쇠연융석(灑然融釋)이라고 한다. 마치 불교에서 돈오(頓悟), 해탈(解脫)로 불리우는 경지와 같은 것이다.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 학습자의 마음 속에 가르치려고 하는 교육내용이 다 들어있다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사는 필요없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 그럴수록 교사의 존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학습자의 마음 속에 진리가 다 들어있고, 교육이란 결국 그것을 학습자 스스로 밝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은 학습자 앞에서 교사가 시범을 보이는 방법밖에 없다. 소위 상행하효(上行下效), 위에서 행하면 아래에서 본받는 것이 유일한 교육방법이었던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수학을 배운다거나, 영어를 배운다고 하지 않고 “스승을 배운다”고 했다. 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담고

수련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학생들이 따라하게 하는 것이 교육활동의 핵심이지, 어떤 교육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은 부차적인 교육활동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스승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가야할 길을 안내해 주는 등불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요컨대 교사가 존경받아야 하는 까닭은 이와같은 학습자관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전통이 아직도 우리 교육 속에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학부형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교사의 행실이 모범적이기를 원하며, 교사들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 아무리 못된 교사라도 교사인 한 그를 어려워할 수밖에 없으며 수요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주저하게 되는 것이다.

3. 교사가 존경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학습자 중심 교육을 일명 '도토리 모형'이라고 부른다. 즉 도토리가 자라 커다란 참나무가 되듯이 학습자의 내부에 있는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켜 주는 것-이것을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이라고 부른다-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도토리 모형에서 교사의 역할은 정원사에 비유된다. 도토리가 무럭무럭 자라도록 물도 주고 가지도 쳐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관은 일견 우리의 전통적 학습자관과 일견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 학습자의 마음 속에 있는 진리는 도토리처럼 저절로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수련을 요구한다. 또한 그 성장의 과정도 도토리 나무가 자라듯이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폭발적인 것이다. 이러한 폭발적인 교육의 목적을 자아실현에 대비하여 '자기극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자아란 실현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은 정원사로서의 교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이 보인다. 정원사로서의 교사에게 존경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뀌게 된다. 즉 교사는 존경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은 교사라는 역할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 매력과 노력의 결과로서 그것을 향유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랫동안 안내자로서의 교사라는 전통적 교육관에 의해 학습자의 존경을 전유하였던 교사들이 새로운 역할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크게 염려가 된다. 교권이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을 권리가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배타적 권리나 혹은 노동자로서의 노동 3권을 의미하게 된다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될까? 지금의 교육보다 나아지면 나아졌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인가? 그걸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교사

류시황



·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졸업
· 영호중학교 교사수임

작년 4월 어느 날이었다. 수업을 하려고 1학년 교실에 들어갔는데 교사용 책상 위에 빵이 두개 놓여 있었다. “이거 누구 짓이야? 누가 수업 시간에 빵을 갖다 놓았나?” 하며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며 야단치듯 소리를 질렀다. 해가 갈수록 아이들이 점점 예절을 모르고 버릇이 없는 것 같다. 더욱이 1학년은 장난도 무척 심하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야단을 치는 편이었다.

야단을 치고 교실 안을 둘러보니 두 학생이 좀 어색한 표정으로 (내가 화를 내서 좀 두려웠던 것 같다) 손을 들고 자기들이 갖다 놓았다고 했다. 웬 빵이냐고 했더니 선생님에게 내기때 저서 사가지고 온 것이라 하며 나에게 주는 것이라 하는 게 아닌가. 그제야 3월초 첫 수업 시간이 생각났다.

나는 몇년 전부터 학년 초 수업 시간이 되면 학생들에게 1년간 공부할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어서 수학 수업에 흥미를 갖게 하려고 학생들과 내기를 해 왔다.

작년 그 학급에서도 다른 학급에서와 같이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손바닥을,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은 손등을 보이라고 했다. 역시 그 학급에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손등을 보였다.

그래서 나는 “얘들아, 우리 내기할래. 학년 말이 되어 내가 다시 물어 봤을 때 그때도 계속해서 손등을 보이는 학생이 있다면 그건 내가 진 것으로 내가 빵을 사고, 만일 수학이 재미있어져서 손바닥을 보이는 학생이 있으면 그건 그 학생이 진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 학생들이 나에게 빵을 사는 거야. 어때 내기 해보지 않을래?” 하였더니 학생들 모두가 좋다고 내기를 하자고 야단이었다. 사실 이 내기는 반쯤은 농담 끼가 있는 내기였으나 나는 학생들이 수학 시간에 흥미를 갖게 하려고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고 하며 내기를 하였다.

그런데 그 두 학생이 학년 말에 하기로 한 내기를 잘못 알았는지 수학이 재미있어져 내기에 졌다고 빵을 사가지고 온 것이었다. 그 천진한 모습이 참 예쁘게 보였으며 잠시나마 오해를 하고 화난 표정을 지었던 내 모습이 조금 부끄럽기까지 하였다.

금년에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모 야간 공고에 진학한 영호가 학교로 찾아와 반갑게 맞았다. 학교 생활이 어떠하냐고 물었더니 재미있다고 했다. 정말 다행이다. 영호는 학습이 대단히 부진한 학생이었다. 영호를 처음 알게 된 것은 3년 전 영호가 1학년때 이었다. 그때가 4월쯤인 것으로 생각된다. 교과서 진도에 따라 '정수의 연산'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무척 어려워하여서 확인 해 보았더니 기초 지식이 무척 모자란 학생이었다.

영호는 구구단도 완전히 못 외우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날의 진도와는 상관없이 영호는 구구단을 외우게 하였다. 3시간에 걸친 노력 끝에 결국 구구단을 다 외우게 되었고, 그 다음에도 해당 수업 시간의 진도 내용과는 관계없이 별도의 학습 내용을 주어 공부하게 하였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내용을 하게 되어 그러는지 수학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는 것 같았다. 하루는 수업을 하려고 교실로 갔더니 영호가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선생님, 군만두 좋아하세요?"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래, 좋아해" 했더니 가슴 속에서 비닐 봉지 속에 다시 은박지로 싸인 군만두를 꺼내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닌가,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없어 난처했으나 결국 한 개를 받아먹고 교실로 들어간 적이 있었다.

그 후 2학기때 하루는 수업에 들어갔더니 영호는 그날 공부할 내용을 노트에 다해 가지고 와서 자기 노트를 보라고 자랑을 하였다. 물론 영호가 그 내용을 다 알아 해 온 것이 아니란 것은 뻔하나 칭찬을 해주고 어떻게 해 왔느냐고 했더니 카세트 테이프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하나 샀는데 참 좋다고 하며 카세트 테이프의 도움으로 하였다고 했다. 그 후에도 성적이 크게 향상되지는 않았으나 수업 시간에 늘 즐거운 표정이었다. 2학년과 3학년때는 함께 공부할 기회가 없었으나 복도에서 만나면 무척 반가워했다. 공부는 잘하지 못하나 학교를 즐거운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

몇 년 전에 모 주간 신문사에서 스승의날 특집을 계획하면서 나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온 적이 있었다. 그때 나에게 물어 온 것 중 하나가 바람직한 교사상이었다. 무어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마땅한 생각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 그냥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물어 온다면 역시 같은 답을 할 것 같다. 교사는 모름지기 교육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나는 해마다 교생 실습생이 오면 첫날 교생들에게 교육을 사랑하느냐고 묻고는 4주간의 실습 기간 중 교육을 사랑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부탁을 한다.

그럼 무엇이 교육을 사랑하는 것일까? 사랑의 정의는 그것을 말한 사람의 수만큼 많다고들 한다. 나는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먼저 대상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만나면 그냥 좋고, 헤어지면 곧 그리워지는 관계로 생각을 해 보았다. 이 논리를 교육에 적용해 보면, 먼저 수업을 하려고 교실에 들어갈 때 오늘은 또 어떤 장면이 교실 안에서 전개될까 하며 전개될 교육 장면을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가고, 교실에 들어가 아이들을 만나면 나와 함께 교육 장면을 만들어 갈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에 마냥 좋기만 하며,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아쉬운 마음으로 교실 문을 나서는 그런 교사가 교육을 사랑하는 교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몇 년 전부터 나는 실제로 교육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고 있다. 자꾸만 연습을 하니 이제는 교육을 사랑하는 일에 꽤 익숙해진 것 같다. 이제 교육이 점점 재미있어진다.

내가 교육에 재미를 느끼게 된 것은 3년 전부터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열린교육' 때문인 것 같다. '열린교육'에서는 교사는 '지식의 전

교실에 들어가
 아디들을 만나면
 나와 함께 교육 장면을 만들어 갈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에
 마냥 좋기만 하며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아쉬운 마음으로 교실 문을 나서는
 그런 교사가
 교육을 사랑하는 교사가 아니까 하는
 생각을 한다.

달자가 아니고 '학습의 원조자'라고 한다. 교육의 주체를 '학생'으로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가 실시해 온 획일적인 일제 학습에서는 개인의 능력차를 고려치 않고 수업을 하게 되므로 그 과목에 대하여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은 수업 시간에 소외되며,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때로는 공부를 못 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인격적인 모독까지도 받곤 한다.

또한 일제식 수업에서는 능력차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수준을 상, 중, 하로 생각했을 때 '중'을 기준으로 설명하게 된다. 그러면 '상'에 속하는 학생들은 다 아는 것을 듣게 되기 때문에 지루해 하면서 불필요한 것을 듣고 있게 되며, '하'에 속하는 학생들은 들어도 모르는 것을 억지로 그냥 들어주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때 '상'과 '하'에 속하는 학생들은 실제 학습 시간에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또 일제식 주입식 암기 위주의 교육으로는 지시대기형의 인간만을 만들 뿐이지 창의력과 탐구력 그리고 자율성 있는 인간을 기를 수가 없다. '열린교육'은 바로 이런 획일적 일제식 교육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차를 고려한 지도의 개별화, 학생들의 개성을 마음껏 살릴 수 있는 학습의 개성화, 그리고 자율성을 길러 주기 위한 활동의 자율화를 지향한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학생들과 만나고 또 헤어 지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나와 함께 공부 하면서 수학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기능인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았다. 물론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나와 함께 공부하면서 수학을 싫어하던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되고, 적어도 수학 시간이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에게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했다. 그래서 영호처럼 비록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수준이 낮지만 늘 수학 시간이 즐겁도록 해주려고 노력했으며 자신 있게 학생들과 빵내기를 하곤 했다.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열린교육'의 수

학 시간 한 장면을 간단히 소개해 보면, 교실은 6명이 1개조가 되어 앉아, 서로 자유롭게 의논하고 또 모르는 것을 서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수업이 시작되면 교사는 교과서의 진도 범위, 학습 목표와 학습의 흐름을 칠판에 써 놓고 그 시간의 학습할 내용과 방법을 안내한다. 다음 보통 10분 정도의 일제 학습으로 그 시간의 학습 요점을 설명하고는 바로 개별 학습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갑자기 교실 안이 시끄러워진다. 교사는 한번의 설명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에 속하는 아이들만 데리고 칠판 앞에 별도로 준비한 자리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한다. 그때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그 시간에 꼭 해야 할 기본 학습을 스스로 푼다. 다 푼 학생은 교실 뒤쪽에 부착한 정답 표를 보고 스스로 채점을 한다. 채점이 끝난 학생은 교사에게 와서 심화 학습 문제를 받아다가 풀어 교사에게 점점을 받는다.

이렇게 한시간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심화 학습까지 다한 학생은 다른 학생을 도와주는 꼬마 교사역할을 하게 한다. 수업 종료 5분 전이 되면 다시 일제 학습으로 그 시간을 정리한다. 이런 수업을 하니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할 것을 자기가 선택하여 하게 되어 수학 시간을 지루해 하지 않고 항상 시간이 끝날 때가 되면 벌써 끝나느냐고 한다.

이런 수업을 하자면 물론 교사가 힘이 든다. 한시간의 수업을 설계하여 지도안을 만드는 시간이 30분, 어떤 때는 한시간이 걸린 때도 있다. 그래서 '열린교육'에서는 교사는 혼자 있을 때는 참 바쁘고 학생과 함께 있을 때는 한가하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미래를 짚어질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인데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그것이 우리 교사의 몫일진대 어떻게 소홀히할 수 있겠나.

그런데 교사가 자존심을 지키며 교사로서의 긍지

를 갖고 열심히 교육을 하려는데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가끔 있다. 학교 현장의 교사로서 생각해 볼 때, 교육 개혁을 계획하는 분이나 교육부, 교육청에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분들이 학교 현장의 실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6차 교육과정이 시행되어 겨우 1년이 지나 이제 그 기본 내용을 숙지하기도 전에 교육 개혁이 나왔다. 이에 한참 교사 연수를 통하여 전 교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교육 개혁 2차안이 나온다. 그에 따라 성적 산출 방식이나 생활기록부 작성 요령이 바뀌고 봉사 활동에 대한 업무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교사들이 갈팡질팡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시를 하달하면 즉각적으로 하면 되지 않나 하겠지만 교사들은 평소 그런 여유가 없다. 충실한 수업 준비에도 바쁘고 힘이 든다.

그러나 어찌나! 이 일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할 역할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긍지를 갖고 해야지. 오늘도 나는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로 간다. ●

교사의 자존심과 촌지

김 명 신



·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상임위원

촌지를 안하면 불이익이라는 오해

지난 2월말 한해 동안 반 아이들을 진심으로 돌보시고 생각이 성숙해지게 이끌어 주신 작은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전근을 가시게 되었을 때 나는 작은 선물을 미리 준비했었다. 그런데 다른 임원 엄마들이 공동으로 돈을 모아 드리자고 하길래 따로 준비했다고 말하기도 번거롭고 또, 튀기 싫어 남들처럼 돈을 냈었다. 그러나 선생님은 전근가시는 날 내 아이편에 그 액수 만큼의 도서상품권을 보내셨다. 그 선생님께 무척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나의 소신없는 행동을 후회했다.

해마다 학기초가 되면 학부모들 사이에 자주 듣는 한가지 인사가 있다. '학교에 다녀왔냐'는 인사가 그것이다. 그 말은 '아이 담임 선생님을 뵈었냐'는 것과 '봉투인사를 하였는가'를 묻는 것이다. 그 질문을 한 학부모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실토를 한다. '고름이 살이 되냐? 어차피 할 거 일찌감치 하는 것이 낫다'거나 '그 선생님 안 받게 생기셨는데 받더라' 혹은 '그 선생님의 인상이 학기초 이외에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서 학기초에 인사하고 그 이후에는 한번도 안갔는데 학년말에 험한 소리 들었다'라고 하기도 한다. 또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다. '선생님께 봉투를 드리려다가 망신만 당했다.'

사실 촌지는 학교 사회뿐 아니라 배우고 가르치는 거의 대부분의 관계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 한 시간에 몇만원을 내며 배우는 계약관계인 개인 레슨 교사에게도 스승의 날 선물은 따로 해야 서로 분위기가 서먹서먹하지 않으며, 주부의 수영 코치에게도 스승의 날 여럿이 돈을 모아 봉투와 점심 접대 정도는 해야 눈치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면 그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자기 소신대로 용기를 내면 촌지가 만연될 우리 사회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소모적인지 새

삼 느끼게 된다.

학부모들은 촌지를 안하면 자기 아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일 뿐이다. 가끔은 교사가 안되었으면 좋았을 분이 교사가 되어서 본인 자신과 학부모, 아이 모두가 곤란을 당하는 일이 소문으로, 신문지상에 떠돌지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상성격의 교사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누구든지 돈은 노동으로 벌어야지 촌지로 불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가지 학부모가 알아둘 것은 교사도 십인십색인데다가 한 사람의 내면에도 다양한 얼굴이 공존해 있다는 것이다. 몇년 전에 내 아이와 다른 아이가 같은 반에 배정되었는데, 나는 촌지도 안했고 아이가 불이익을 별로 당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다른 학부모는 촌지 때문에 거의 다달이 시달렸다고 불평했다. 또 한학년 별일 없이 끝나고 보니 그 학교에서 촌지를 좋아하는 교사로 소문난 분이라는 이야기도 들은 일이 있다. 결국 촌지문제는 거의 부모의 교육적 소신과 결단에 달린 일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개인적으로 촌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기억도 있다.

1989년쯤인가 큰 아이가 학교 갈 무렵 동네 엄마들과 아이키우는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교육에 도움이 되는 책도 함께 읽으며 학부모되는 훈련을 자학자습했다.

그 시간에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것은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자율성을 키워 주는 것과 내 아이만 돋보이는 촌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결혼 전에 내가 교사를 할 때 느낀 것은 '공부나 선생님의 사랑은 다 제가 할 탓'이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나의 부모 노릇에 용기를 갖게 했다. 그 때 촌지가 필요악이라는 의견도 분분했는데 그 이유는 교사의 월급이 적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 가족 역시 아무 부수입도 없이 월급

만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촌지를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었다. 엄마들끼리 그렇게 굳게 약속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를 돋보이게 하겠다'는 마음보다 '점점 아이가 못미더워 잘 봐달라'는 의무방어격의 촌지를 하는 엄마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내 아이만 잘 봐달라는 것은 그 때문에 피해 보는 아이가 당연히 있게 마련이고, 처음부터 선생님의 사랑을 촌지로 산다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되었다. 자식 농사를 당장 좋자고 처음부터 아이에게 화학비료를 듬뿍 줄 수는 없지 않는가? 어차피 아이 키우는 것은 장거리 경주인데 처음에 돋보이지 않았다고 무엇을 걱정하는가 등등의 생각으로 마음을 다져 나갔다. 그랬음에도 큰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나도 가끔은 촌지를 들고 학교로 뛰어 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2월생이라 일찍 취학해서 키가 별로 크지도 않은 내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밤낮 교실 뒷자리로만 자리를 배정받아 맨들 때, 나보기엔 제법 괜찮은 내 아이가 남이 다 타오는 손바닥만한 상장 하나 못 타올 때 봉투를 들고 학교로 당장 달려가고 싶었다. 그럴 때마다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선생님을 무조건 믿기로 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관심과 고마움의 표시를 당당히 할 수 있는 학기말과 학년말을 기다렸다. 학기말과 학년말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마음놓고 선물을 하였는데, 지나놓고 보니 그 선물이 조금 과했던 것 같아 지금은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감사의 마음도 소박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지금의 나의 생각이다.

학기초 촌지와 울타리

나는 내 아이에게 돈으로 선생님의 사랑을 사주지는 않겠으나 부모로서 자식의 울타리 역할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촌지를 안하는 것이지 아이에게 무관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어렸을 때 모범생인데다가 나의

어머니가 기성회비도 제일 첫번째로 내 주셔서 옥수수빵도 먹은 적이 있고, 나의 어머니는 소풍 때나 반 청소때 그 때 당시로서는 정성껏 하셔서 선생님의 사랑을 제법 많이 받아 보았다. 그래서 더욱 즐거운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후에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때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기피하는 것으로 소문난 선생님 반에 배정되어 힘든 학교생활을 할 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존지도, 무관심도 아닌 부모님의 선생님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다. 그때 나와 나의 반 친구들은 1년 내내 매 주말마다 영어단어시험을 강요당했고, 매주 틀린 갯수만큼 체벌당했고, 1년 무결석반을 만들겠다는 담임교사의 대단한 목표 때문에 급우중에 누구라도 지각하거나 결석할까봐 마음졸여야 했고, 수업도중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 가방을 수색당하여 우산이 없으면 준비성이 부족하다고 무작정 때맞아야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부모님은 그런 사실을 모르신다. 설령 알았더라도 별로 도움이 안되었을 것이다.

내가 그 지긋지긋하던 학생시절 교사의 무책임한 야집과 지나친 체벌에서 느낀 것은 부모는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일 아이가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심한 체벌을 당해 오면 그 일의 진위를 가려 교사가 과잉처벌을 했을 경우, 부모는 반드시 교사에게 그 이유를 질문하고 항의할 일이면 항의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로 하여금 부모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아이에게 그런 일이 아직 없었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존지로 손쉽게 해결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아이를 외롭게 하지도 않고 아이의 보호자로서 아이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나는 반드시 나설 것이다. 부모는 아이의 든든한 울타리여야 하는데 그것을 아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은 체쳐두고, 학년초 단 한번의 존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부모의 역할을 그리 한정짓는다면

그것 역시 학부모들의 큰 오해이다.

한 아이의 엄마가 아닌 학급아이들의 엄마노릇

나는 존지를 안하는 대신 학기초 선생님을 뵈러 갈 때 그 반 학급문고에 비치해 둘 책을 여러 권 사가기도 하고, 아이들이 개구리에 대해 배우면 자연보호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으면서도 올챙이알을 여럿이 나누어 가질 수 있을 만큼 채집하여 아이편에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심과 성의를 표하였으나, 그때 마다의 느낌은 나의 그런 노력들이 존지보다는 대우를 못 받는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이 여러 차례 학급 임원이 되면서 원하던 원하지 않던 임원 엄마 노릇을 해야하고 스승의 날, 추석 등 조금씩 선생님의 수고로움을 챙겨야 할 입장이 되면서 우리 농산물 등 과하지 않은 선물을 보내는 여유도 생기게 되었고, 지금은 개인적인 존지의 갈등에서는 졸업한 것 같다. 그래도 아직 다른 학부모와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소풍날, 운동회날, 임원수련회날 등에 꼭 등장하는 선생님들의 목욕비 문제인데 나는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챙기지 않는다. 이런 나의 노력이 선생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아직은 잘 모른다.

이웃집에 사는 학부모가 학교앞 횡단보도 지키는 녹색 활동도 한번 안하고 학교 출입을 거의 안하고 살길래 그 비결을 물었더니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아이가 임원이면 학년초에 존지를 한번 하고, 육성회 이사회비 내면 담임선생님이 다른 일은 알아서 다 빼준다는 것이다. 거기에 덧붙인 말은 더욱 나를 질리게 했다. 자기는 녹색활동이나 어머니회에 가입하여 학교에 와서 설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다. 학교에 엄마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이를 차별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똑똑한 엄마들의 일반적인 정서이다. 학교일은 조금 모자란 아이를 가진 혹은 현명하지 못하게 처신하는 엄마들이나 할 일이라

는 것이다. 심지어 새 학기초 총회도 갈 필요가 없다는 엄마들도 있다.

그런데 콩교롭게도 우리 두 아이는 자기 학급 살림을 다 자기네들이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녹색어머니를 뽑는다는든가, 어머니회 강좌에 출석할 엄마가 부족하거나 학교 청소를 도와야 한다거나, 급식 당번을 누군가 먼저 해야 한다는 등으로 학부모의 출석과 도움이 필요해서 반 전체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내 아이들은 내 동의도 받지 않고 손을 번쩍번쩍 드는 모양이다. 그때마다 촌지를 안하는 학부모인 나는 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원하건 원하지 않건 자석에 끌린 것처럼 학교로 간다. 요즘은 직업을 가진 학부모가 워낙 많아 무슨 일을 하려 해도 학부모의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다. 누가 해도 해야 하는 일이므로 그 일을 하러 가며 불만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내 역할이 다른 한편에 어떻게 비추어질지 사실 신경도 쓰인다. 왜냐하면 학년초에 학교에 드나들 일이 경우에 따라 여러 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급일을 도우러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사정이 되는 여러 명의 엄마들과 함께 한다. 직업이 있는 엄마들은 토요일 오후에 학급일을 함께 하자고 전화하여 서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신경을 쓸 때도 있다. 아이 담임 선생님께도 '시키는 일은 할테니 아이에게 칭찬은 아끼되 꾸짖을 일은 반드시 꾸짖어 달라'고 일부러 부탁을 한다. 어떨 때는 멀쩡한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아이 때문에 너무 끌려다닌다고 생각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정해 놓은 기준에서 기부하고 봉사하려고 노력한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인 만큼 학부모가 학교에 드나들 일이 가급적이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개인적인 갈등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자각

해마다 학년초에 교실에 가보면 지난해 쓰던

것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먼지만 가득한 사각형의 공간이 덩그러니 남아 있을 뿐이다. 그 폐허 같은 교실을 쓰레기통 하나 지급하지 않고 환경미화 심사를 그것도 학부모 총회 바로 전날 한다. 나는 학급환경미화를 다른 엄마들과 함께 해 나가며 '촌지도 하는데, 이런 일을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반 아이를 위해서 라는데'라는 각오로 하기는 한다. 나는 여기서 육성회비를 어디다 쓰나 등등을 들먹이지는 않겠다. 지금이 과도기라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도움도 필요하고 전전한 의미의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가 간절하겠으나 '의무교육이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잘하는 일일까?' 등등의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촌지라는 개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니 우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앞으로 학교와 교사가 촌지에 대한 학부모의 개인적인 갈등이라도 해결해 줄 생각이라면 촌지를 절대 안받겠다는 뜻을 학부모에게 분명히 밝히고, 실제 행동에 옮겨야 하며 정부도 가급적이면 교육수요자들에게 기대지 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학부모 역시 촌지도 아니고 학급환경미화도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학교교육의 전전한 참여를 스스로 행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2)

교사의 자존심을 위한 행정가의 역할

김 영 혁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 서라벌 고등학교 명예교장

1

벌써 오래 전 일이라, 기억에 분명치는 않지만 고등학교 시절, 대강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어른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승에게 독자가 있었는데, 그가 여섯 살쯤 되자, 이 아들의 교육을 산중에 칩거하는 유명한 선비에게 맡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 반년쯤 뒤에 그곳으로 찾아가 공부하는 형편을 살폈더니, 천자문(千字文)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다시 또 반년이 지나서 아들을 찾아간 정승은 실망에 빠졌습니다. 지금쯤은 천자문(千字文) 공부를 마치고, 동몽선습(童蒙先習)이나 계몽편(啓蒙篇)같은 책을 배우고 있으려니 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아직도 천자문의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승은 아이를 더 이상 맡겨 둘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고, 선비에게 이제는 아들을 데리고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서 아이의 신들매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손등에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가르쳐 온 선비가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섭섭해서 흘린 눈물이 정승의 손등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정승이 집에 돌아와서 천자문의 남은 부분을 가르쳐 보았습니다. 뜻밖에도 아이는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동몽선습(童蒙先習)을 펴서 가르쳐 보았더니 그것도 모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승은 그때에 자신의 경박한 행위를 깨닫고, 아이를 다시 산중으로 데려가 선비에게 계속 교육을 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비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아이를 가르칠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스승의 체면이나 교권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껴 볼 수 있습니다.

참된 교육, 효율적인 교육은 스승의 권위와 사랑이 뒷받침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승이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가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필자의 좁은 안목 탓인지는 몰라도,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장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스승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인 줄 압니다. 교사들은 성직의 봉사자로서보다 한갓 노동자로 자처하고, 사회와 학부모는 그들을 불신과 경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조차 있습니다.

2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 체육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다가 그의 불손한 태도에 참을 수 없어 체벌을 가했습니다. 이튿날 매맞은 학생의 형과 부친이 교장실로 찾아와 잔뜩 흥분한 모습으로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어떻게 교사를 관리하기에 선생님이 그런 불량스런 행동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면서, 당장 그 선생에 대해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사과를 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으나 막무가내였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교장실을 나간 그들은 그 길로 체벌한 체육 교사를 찾아가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거칠게 따진 후, 사나이답게 일대일로 대결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억지로 울분을 참아야 했던 젊은 교사는 자신의 한계와 교직에 대한 실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의 집단 수련을 마친 후, 학생들에게 간단한 소감문을 적어 내게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생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 물음에 많은 학생이 부정적인 반응의 글을 써 냈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모래알쯤으로 봅니다.”

“쓸모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문제야로 봅니다.”

“돈으로 봅니다.” 등등

이것은 물론 우리 교육적 현실의 한 특수한 단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이 그리 바람직스럽지만은 않은 것도 또한 사실이 아

닌가 생각됩니다.

이렇듯 병든 현상이 우리 교육계를 더럽히고 괴롭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직자들에 대한, 사회와 학부모들의 잘못된 인식과 교사들의 바르지 못한 교권의식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성직자나 전문직 종사자로 보지 않고, 한낱 직업적인 생활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그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인 것도 잊어버리고 아무렇게나 상대해 버리는 데서, 올바른 교육의 싹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손상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교직에 대한 사명감이나 교사로서의 긍지를 갖지 못하고 무사안일에 빠져, 학생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창의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스승의 자리도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받아야 할 신뢰와 존경도 상실해 버렸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사들이, 교권을 그들이 지녀야 할 권위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찾아서 행사해야 할 권리로 오해하는 데서 그런 사태가 초래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교육적 위상을 제자리로 돌려 놓기 위해서는 교직자들이나 학부모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필자는 교사들의 문제에 국한시켜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몇 가지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국가 중흥의 대업을 이루는 공헌자가 될 수도 있으며, 학생 한사람 한사람을 온전한 인격자로 성장시켜 그의 생애를 값지게 꽃피워 줄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사의 품위나 전문성,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확보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닌 그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마당에 있어서의 행정가는 교

모든 교육 관계자들은, 타고르가 지적한 대로,
 '학생에게 문법을 가르치려 하다가 언어를 빼앗아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들을 보살피고, 교사의 사명감을 북돋고,
 교사들로 하여금 사람 만드는 데 권위를 지닌 스승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
 야 할 것입니다.

사로 하여금 착실하게 스승의 길을 걸어가도록
 옆에서 조언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사의 권위와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행정담당자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겠습니
 까?

첫째로, 교사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
 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이 피교육자로의 인격을 기르는 일
 을 궁극의 목표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의 전수 없이 교육은 행
 해질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날마다 달라지고 시간을 다투어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
 에 대한 새롭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서는 학생들 앞에서 자신있는 지도를 행할 수가
 없을 뿐더러, 그들로 하여금 내일への 비전을 갖
 게 할 수도 없어, 결국 나태하고 고식적인 교사
 의 낙인을 면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실력 있는 교사 앞에서 학생들은 머리를 숙이
 며,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가 없이 교단에서 시간만 보내는 교
 사는 스스로 멸시와 조소를 사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교육행정 담당자는 교사들이 종래의
 자학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울타리를 뛰어넘어,
 그 누구보다도 실력 있고 지혜 있는 스승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글 가르치는 교사가 못된 채, 사람
 기르는 스승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교사들이 생활을 통해서 교권을 확립하
 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이 하는 일은 매우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것이며, 그 전문가로서의 교사들의 활동은 학생
 의 인격 형성에 직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사들은 각종 테스트에
 의한 학생들의 성적순위 작성과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기계적 관리자로서 거의 모든 시간
 을 보내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자발성이나 창의
 성 같은 것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 실
 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학교가 살아있는 교사
 들에 의존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국가권력
 에 의한 교육 지배를 계속 받고 있는 데서 연유
 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조건하에서라도, 교사
 들은 교육을 포기하고 체념할 수가 없는 것입니
 다. 그들은 학생 한사람 한사람의 가능성을 찾아
 내서, 그것을 싹틔우고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교사들은 생활을 통해서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신뢰와 존경을 얻어야 하는 것
 입니다.

자신은 성실치 못하면서 학생들에게 정직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며, 뜨거운 사랑의 발로 없이 어떤 기발한 시도를 피한다 해도, 그것으로써 학생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생활모습에서 교사의 삶과 얼굴 표정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표란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런 교사가 있었습니다.

학생과(學生課)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흡연하는 학생을 적발했습니다. 상벌 규정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수차 처벌을 받은 티여서, 가중점을 부과받아, 이번 일로 그가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을 적발한 교사는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버젓이 담배를 피우면서 어쩌다 숨어서 흡연한 학생은 붙잡아 처벌을 주었다는 데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그 교사는 그 후부터 금연을 결행한 것입니다. 적어도 교사에게는 이만한 도덕성과 양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에게 학생을 사랑하고 아끼며 그를 키워 주어야 할 소임이 지워져 있다는 사명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행정 책임자는 이런 교사들이 속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그런 교사들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교사는 단순히 학생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기계적으로 교훈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열린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정성스런 손길로 학생들을 돕고 일깨워서 각자의 뜻을 마음껏 펼쳐 나가도록 해 줄 때, 교사로서의 권위를 확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스승이 배출되려면, 이런 교사가 가슴을 펼 수 있는 여건과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

다.

마지막으로 교권의 확립은 교사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만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각별히 배려해야 하겠습니까.

지각없는 학부형들의 짧은 안목과 무리한 요구에 눌려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안일에 빠진 행정 책임자의 무성의 내지는 편견의 굴레가 교권의 확립에 장애가 된다는 것은 재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겠습니까.

좋은 스승은 스스로의 노력과 주변의 협력으로 서만 만들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 관계자들은, 타고르가 지적한 대로, '학생에게 문법을 가르치려 하다가 언어를 빼앗아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들을 보살피고, 교사의 사명감을 북돋고, 교사들로 하여금 사람 만드는 데 권위를 지닌 스승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상태는 그 나라의 학교에서 어떤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가를 보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한 학교의 교육 상태는 그 학교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의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교사가 권위 있고 바람직한 스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사 스스로가 사회 변혁의 이상을 지니고, 인간미가 풍기는 교육적 사명을 통해서 스스로 그 이상을 실현시켜 나가려는 교사.

위에서 학생들에게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변혁을 이루면서 학생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교사.

학생들의 가능성을 믿고, 그들 속에 숨겨진 갖가지 능력을 발전하고 계발해 주는 역량을 지닌 교사.

이런 교사가 하는 일은 거룩하며, 이런 교사는 누구나 범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

교사에게 자존심을

염 호 상



· 강원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세계일보 사회부 기자

서울 S초등학교 김모 교사(33세)는 최근 곤혹스런 일을 겪었다. 3학년 담임을 맡은 지 며칠되지 않아 인사를 하겠다며 교실로 찾아온 학부모로부터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던 것. 이 학부모는 자녀의 생활지도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학생들의 눈을 피해 촌지가 든 흰 봉투를 내밀었다.

당황한 김교사가 이를 정중히 거절했지만 학부모는 “액수가 작아서 그런거냐”, “2학년때 담임은 그렇지 않았는데…”라며 오히려 핀잔을 줬다.

평소 쓸데없는 오해를 사기 싫어 학부모 만나는 일을 자제해온 김교사는 실랑이 끝에 봉투를 돌려줄 수는 있었지만 놀란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았을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교직에 환멸을 느끼게 된다고 토로했다.

“정 할일 없으면 선생님이나 시키죠…”

서울 K고교 최모 교사(35세)는 지난해 자녀의 진로상담을 위해 학교를 찾은 한 학부모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온 몸의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다.

교직의 인기가 갈수록 떨어지고 교사의 사회적 지위도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날 이후 그는 ‘교사란 무엇인가’라는 자문을 해보며 자멸감에 빠지는 때가 많다고 했다.

올해로 교직 생활이 10년째인 서울 Y초등학교 김모 교사(35세)는 “학생 가르치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생활해왔으나 봉급날만 되면 스스로가 초라하게 여겨지는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고백한다.

그가 수령하는 액수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월 1백20만원 정도. 본봉 74만원에 교식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모두 합친 것이다.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근무 연수가 비슷한 기업체 과장이나 차장급 봉급에는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인 두 아들의 교육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 노후생활보험과 주택마련저축 등을 제하면 가계를 꾸리기 벅찰 정도다.

“명절에 친지들을 찾아뵙거나 가끔 경조사에 참석하는 일도 여

기억

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김교사는 동창회라도 참석했다 돌아오는 날이면 자신의 처지를 친구들과 비교하게 돼 즐겁기보다 허탈한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례는 일선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자주 겪는 갈등의 단편적인 예에 불과하다.

학부모의 과도된 교육관과 교직경시의 사회풍조, 낮은 처우 등으로 실추된 교사의 권위는 그 배경에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문제 해결도 쉽지 않다. 우리 교육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이들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이어져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활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94년 홍익대 교육연구소가 초·중·고 교사 1천3백2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존경도에 대해 7%만이 「높은 편」(6.8%) 또는 「매우 높은 편」(0.2%)이라고 응답, 대부분이 교직에 자긍심을 갖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은 사회적 존경도가 낮은 이유로 ▶타 직종에 비해 낮은 경제적 보수(37.7%), ▶교육계의 부정비리(27.7%), ▶사명감 부족(17.5%), ▶사생활 등 교원 품위 손상(6.9%) 등을 들었다.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학생지도에 임해야 할 교사의 절대 다수가 자기 비하와 열등의식에 빠져 있다면 국가의 장래를 위해 여간 불행한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교육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교사를 교사답게'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서울 영남초등학교 송규석 교장(59세, 여)은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2세 교육에 전념할 수 있으려면 교사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며 “교사가 오만할 정도의 자긍심을 지니고 학생을 지도할 때 교육이 바로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선생님'에게는 타인을 가르칠만한 지도역량과 함께 교육자로서의 책무

가 강조했다. 사회의 전반적인 풍조가 배금주의에 물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게만은 청렴과 도덕적 모범이 요구됐은 것은 그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산업사회에서는 물질적 급부가 사회적 위상을 가늠하는 잣대로 활용되게 마련이어서 물질적·정신적 대우가 뒤따르지 않는 '무한책임' 요구는, 교사들에게 도덕적 굴레만 될 뿐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서울 K고교 민모 교장(55세)은 “산업화와 국민소득 증가로 물질중심 가치관이 팽배해지면서 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군사부일체 의식'이 실종됐다”며 “선택된 사람만 대학교육을 받았던 과거에 비해 고등교육을 받은 학부모가 늘어난 것도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경이 희박하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교직이 전문직으로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교직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며 “교육 당국이나 학교가 폐쇄적 행정에서 탈피, 교육 문제에 대해 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은 국가의 장래를 위한 당위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육은 학부모는 물론 교육의 일차적 수혜자인 학생에게서조차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엿볼 수 없다.

맹목적 이기적인 교육열로 촌지 봉투를 건네는 학부모에게 교사는 단순히 입시에서 점수를 올리는 과외 선생 정도에 불과하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교육 현장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최근엔 입시에 예속된 학교교육 풍조와 자녀에 대한 과보호 등으로 학부모에 의한 각종 교권침해까지 속출하고 있다는 게 교사들의 하소연이다.

한국교총의 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교사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권을 침해

교사들은
 “정부가 지금까지 일관성 있는
 교원 우대책을 마련치 못한 것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평범한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탓”이라며
 “교사의 실추된 자존심을 회복시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은
 교육개혁의 성패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한다.

하는 가해자로 학부모를 지목한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행정기관 29.8%, 학
 교장 12.2%, 학교설립자 10.2%, 기타 0.8%로
 나타났다.

서울 K여고 박모 교사(47세)는 “학교운영위
 구성 등으로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가 늘어나게
 되면 학부모 교육권과 교사의 자율성·전문성과

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나 폭행 등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여서 교육자로서의 긍지는 위축될
 대로 위축돼 있다.

교총이 지난 90년부터 5년간 ‘교권침해사건
 및 상담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90년 20
 건에 불과했던 교권침해사건이 94년 59건으로
 늘어났다. 94년 발생한 59건을 유형별로 살펴
 보면 교사의 신분피해가 35건으로 가장 많고 다
 음이 학교안전·사고피해(13건), 폭행피해(6
 건), 명예훼손(5건) 순으로 조사됐다.

일선교사와 관계자들은 교총에 접수된 이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학교 안팎에서
 당하는 교권침해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 조흥순 교육정책과장은
 “교사처우 쇄신, 교원 근무·인사제도 개선, 교
 원연수 내실화 방안 등을 규정한 ‘우수교원확보
 법’을 조속히 제정해 교사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소해질대로 왜소해진 교사의 권위와 존엄은
 결국 우수학생들의 교직 회피로 이어져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우려
 다.

그러나 현실은 교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혼
 들리는 데다 적극적인 우수교원 유인책마저 빈약
 하다. 교직우대의 사회적 징후라면 시중은행 등
 에서 보증인이나 담보 없이 소액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정도다.

70년대 초 교직 기피현상이 극에 달했던 일본
 의 경우 74년 정부가 ‘학교 교직원의 인재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위기를 극복했다. 여
 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교원의 급여는 대폭 인상돼 다른 직종을 능가하
 는 수준으로 향상됐다. 이로 인해 수업거부, 휴
 가투쟁 등 극단으로 치닫던 교직사회는 안정을
 되찾고 우수 인력이 다시 몰려드는 현상이 나타
 났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논의됐다. 그러나 관련부처나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거나 교사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치 않은 채 졸속 시행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4년부터 교원 급여를 타 공무원 급여 수준에 비해 우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재정원 총무처 등 관련 부처가 예산확보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제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해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에서도 능력 중심 승진·보수체계 마련 등 교원제도 관련 개혁 방안이 제시된 바 있으나 일선교사들은 개혁안이 '경쟁'만 강조할 뿐 40만 교원이 고대해온 처우 개선 등에 관해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정부가 지금까지 일관성 있는 교원 우대책을 마련치 못한 것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평범한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탓"이라며 "교사의 실추된 자존심을 회복시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은 교육개혁의 성패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한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교사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은 돈 몇푼 올려주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지위가 대개 공직사회의 지위나 직급체계에 맞춰 설정되는 만큼 신입교사의 대우를 최소한 5급 공무원에 준하도록 하고, 교사 임용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처럼 엄격한 국가고시를 거치도록 한다면 교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란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동료교사 및 교장·교감과 교직원 차이로 인한 갈등이나 관료적 교육행정, 비민주적 인사제도 등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직에 회의를 갖게

하는 원인이다.

89년 전교조 파동 이후 교육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50~60대 교장·교감과 30대 전후의 교사들간에는 교직에 대한 가치관의 골이 깊이 패어 스스럼 없는 대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아물긴 했지만 여전히 교직사회의 인화와 개혁의지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학교교육과 학생지도를 의논하는 교직원회의가 단순한 의사전달기구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은 교직사회 대화부재의 한 단면을 말해 준다.

서울 Y초등학교 심모 교사(38세)는 "많은 교사들이 교장 또는 교감의 측근이 되지 않으면 주임자리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믿고 있다."며 "정기전보 시기만 되면 거주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청탁하러 다니는 교사를 흔히 볼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일선 교사들은 이와 관련,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확립과 행정우위를 부추기는 승진제도의 개선 등이 이뤄져야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근무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제도개선을 위주로 한 이같은 대안이 교사의 사기 진작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인격적 또는 전문직업인으로 승양받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못지 않게 스스로 실력을 쌓고 정진하는 교사들의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관계자들은 '큰스승 운동'으로 즐거운 학교만들기에 나선 서울 장평중학교나 '교사 안식년제'를 실시키로 한 중동고, 교사들의 촌지 안받기 운동 등의 사례는 학교나 교사가 자발적으로 펼치는 참교사像 정립 노력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표(師表)로서 존경받는 교육자상을 확립하는 일은 결국 교사들의 끊임없는 연찬과 사회 구성원의 교육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 의식전환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

인기있는 교사, 실력있는 교사

박 영 숙



- 이화여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 이화여대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 (문학 박사)
- 본원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교육원 근무실적평가세계 개인연수회

1. 들어가는 말

훌륭한 교육자에게는 그를 칭송하는 많은 제자들이 따르기 마련이다. 평생 잊지 못할 스승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직업에서는 볼 수 없는 교직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이지 싶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배출되면서도 그중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진정한 스승으로 대우를 받고 있을까. 유치원에서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만나게 되는, 어찌 보면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교사들과의 연속에서 학생들의 가슴속에 자리잡게 되는 교사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왜일까? 교직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로부터 진정한 스승으로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있었으면 한다. 혹여 학생들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유형의 교사이면서도 아무런 노력없이 학생들을 쉽게 다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글에서는 인기있는 교사와 실력있는 교사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직사회에서 인기있는 교사와 실력있는 교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인기있는 교사와 실력있는 교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학생은 인기있는 교사와 실력있는 교사 중 어느 유형의 교사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육계에서 진실로 바라는 교사는 어떤 유형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싶다.

2. 교직에서 인기있음과 실력있음이 갖는 의미

인기(人氣)의 의미를 사전에서 살펴보면 '사람의 좋은 평판' 혹은 '사람의 기개(氣概)'로 기술되어 있고, 실력(實力)의 의미는 '실제의 역량'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풀이에 기초해서 인기있음과 실력있음의 의미를 꼼꼼히 따져 보면, 인기있음과 실력있음은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나 힘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반면, 인기는 사람의 평판에 의한 인정이고 실력은 객관적인 인정에 의한 것이므로 인기보다는 실력에 합리적인 권위(rational authority)가 부여된다. 또한, 인기있음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것인

**인기있는 교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공식적인
특성을 지닌 교사이고 실력있는 교사는 가르치는 업무를
자신있게 수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특성을 지닌 교사라고 볼 수 있다.**

만큼 타인의 평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인 반면, 실력있음은 타인의 평가를 받긴 하되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고, 인기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므로 좋게 평판해 주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인기도가 더욱 상승하겠지만 실력있는 자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입증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자격증이나 인정 기준에 의하여 판별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력은 인기보다는 업무지향적이면서 공식적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교직사회에서 인기있는 교사는 사람(학생, 행정가,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비공식적인 특성을 지닌 교사이고, 실력있는 교사는 가르치는 업무를 자신있게 수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특성을 지닌 교사라고 볼 수 있다. 인기있는 교사와 실력있는 교사 모두가 평판 좋고 인정을 받는 교사이므로 모든 교사가 인기와 실력을 고루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지만 언제나 인기있는 교사 주변에는 인기를 얻지 못하는 교사가 공존하고 있고, 실력있는 교사 주변에는 실력이 없음을 느끼게 하는 교사들이 존재하고 있어 인기와 실력이 더욱 빛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교직사회에서 인기있는 교사와 실력있는 교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인기있는 교사는 사람지향적이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특성이 강한 교사이다. 교직사회는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체이며, 학생과 교사, 학교행정가, 학부모간의 상호작용이 기본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유난히 강한 조직의 특징을 갖고 있다. 사람을 사람답게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람지향적이고 인간관계지향적인 특성이 강한 교사는 교사로서 성

공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인기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타인지향적인 속성이 강한 것으로 기대되므로 인기있다는 평판은 개인에게는 더욱 값지게 여겨질 수 있다고 본다. 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즐겁게 가르치는 교사야말로 학교에서 바라는 이상적인 유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직사회에서의 인기는 연예계에서 추구하는 인기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의 인기는 대부분이 일시적인 것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감이 상례이지만, 교직에서 인기있는 교사는 평생 잊혀지지 않고 학생의 가슴속에 자리잡는,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이 지향하고자 하는 인간 모델이 되기도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본인의 견해로는 인기있는 교사는 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학생들과의 좋은 관계속에서 교육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개인으로도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력있는 교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직에서 실력있다 함은 실제로 가르치는 일에 역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르치는 업무를 위하여 조직된 학교조직은 가르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있는 자를 채용함이 기본이다. 즉, 실력있는 교사는 막스 웨버가 관료제를 구상하면서 이상적인 권위로 제시한 합리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교사를 의미한다. 이들 교사는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격증을 갖고 교직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공식 조직으로서의 학교에 소속하고 있는 교사는 모두 실력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추론이 성립된다. 학교라는 조직에

서 수행해야 할 공식적인 업무가 교과지도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직사회에서 실력있는 교사라 하면 교과지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자를 지칭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교과지도 외에 학생의 생활지도 및 특활지도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와 학급경영 업무 그리고 학부형과의 교류 활동까지 포함하는 다원적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지도에만 유능한 교사는 인기있는 교사보다는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3. 실력은 교사의 기본, 인기는 교사의 노력

인기있는 교사는 실력을 갖춘 교사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상례인 듯하다. 개인이 갖는 매력으로 인하여 인기를 얻는다 해도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교사는 잘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지도하고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의 활동이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지도 이외의 생활지도도 포함한 다른 지도 분야에서도 탁월함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믿고 따르게 하는 교사가 인기있는 교사이지 싶다(간혹 학생에게는 인기가 없어도 교장, 교감에게는 인기가 좋은 교사들이 있다. 이들은 승진지향적인 특성이 강하여 승진에 필요한 보다 많은 점수를 따는데 주력한 나머지 학생들의 평판보다는 교감, 교장의 좋은 평판을 듣게 된다. 이들 교사에게 붙여질 수 있는 인기와 실력의 의미는 논외로 한다).

학생에게 인기있는 교사란 어떠한 모습과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칭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인기있는 교사는 대부분 젊고, 활달하고, 추진력이 있고, 유우머 감각과 언변이 좋아 사람을 끄는 개인적인 매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준수한 외모가 크게 작용하기도 한다. 여학교에서의 미남 총각선생님이나 남학교에서의 미녀 처

녀선생님의 경우가 그러하다.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교사는 대개 통명스럽지 않고 부드럽고 개방적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애정이 깊은 자임이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때와 장소를 가려 학생의 고민과 불편함을 읽어 낼 줄 아는 기술도 있다.

교직사회에서 교사의 인기와 실력에 대하여 진정으로 실력있게(?) 평가할 수 있는 자는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실제로 어떠한 교사를 좋아하고 어떠한 교사를 싫어하는지에 관하여 조사한 선행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1) 친절하고 생각해 주는 교사, 2) 열성적이고 자발성있는 교사, 3) 불임성있는 교사, 4) 청결한 교사, 5) 판단력이 있는 좋은 교사, 6) 조용하고 위엄이 있으며 순응하는 교사를 좋아하고, 고학년 학생들은 1) 친절하고 생각해 주는 교사, 2) 소박하고 세련된 교사, 3) 조용하고 위엄있는 교사, 4) 통찰력이 있고 깊이 생각하여 정확한 판단력을 가진 교사, 5) 열심인 교사, 6)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교사를 좋아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1) 선견적이고 통찰력이 있는 교사, 2) 위엄있고 자기 극복을 하며 차분한 교사, 3) 친절하고 예의바르며 생각해 주는 교사, 4) 열심인 교사, 5)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진 교사, 6) 유우머가 있고 사교성이 있는 교사를 좋아한다. 고등학교에서는 1) 지역사회나 교직, 학생에 대한 흥미를 광범위하게 가진 교사, 2) 통찰력과 선견지명이 있어 판단을 잘하는 교사, 3) 엄숙하고 조용하며 자기 일을 열심히 해내는 교사, 4) 자신감을 가진 지도력이 있는 교사, 5)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결단력이 있는 교사, 6) 지적 호기심이 있는 교사를 좋아한다.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가장 인상이 남은 교사 두 사람(가장 좋았던 교사, 가장 싫었던 교사)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가장 좋아 인상이 깊었던 교사로서 1) 모든 일에 열성적인 교사, 2)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어 박식한 교사, 3) 무슨 일이나 협조적인 교사, 4) 자기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 교사로 나타났으며, 좋지 못했던 교사는 1) 신경질적인 교사, 2) 대중 앞에서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교사, 3) 비꼬는 교사, 4) 교사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만한 특정 학생을 편애하는 교사로 나타났다. 결국 학생들이 좋아하고 따를 만한 교사의 특성은 담당한 교과를 자신있게 가르치는 데 있기보다는 애정있고 열성적인 자신감 등으로 나타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르치는 것은 다소 서툴러도 애정깊게 지도해 주는 교사를 더 선호하는 결과도 나타나곤 한다. 교사로서 자신있게 가르치는 것이 기본 역량이라는 교사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은 교사와의 인간적인 만남을 통하여 인생을 배우고 싶어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교직에서 인기는 그리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력있는 교사는 흔해도 인기있는 교사가 흔치 않는 것은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장과 교감에게 인기가 좋아 승진에 유리한 점수를 따는 것이 쉬울 수 있다. 그만큼 저마다 다양한 개성과 요구를 지닌 학생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도함으로써 인기를 얻기까지는 교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욱이 학생들의 특성과 문화가 나날이 변하는 오늘날, 학생들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교육자가 되기 위하여는 몇 배의 수고가 요구되고 있다.

4. 맺음말

이 글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작성된 것이다. 스승의 날이 되면 스승과 제자간의 많은 만남이 이루어진다. 한번쯤 만나보고픈 제자가 불쑥 찾아와 반갑게 만나게 되는 날이기도 하다. 스승에 대한 학생의 감사한 마음을 확인받는 순간이 되면 교사라는 직분보다는 개인으로서의 보람된 인

생을 즐기게 되지 않나 싶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일반조직에서 볼 수 있는 공식적인 만남의 관계만은 아닌 듯하다. 분명히 공식적인 관계로 만났으면서도 끝내는 공식적일 수만은 없는 진한 인간애로 이어지게 되는 필연의 관계인 듯하다. 대부분의 교사가 학생이 졸업한 후에도 자신이 지도했던 학생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은 이미 공식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한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것이 어찌 일반기업체에서 추구하는 고객관리와 같을 수 있겠는가? 그저 잘되기를 바라는, 멋지고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배려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겠는가.

교직사회에서 인기는 일시적인 인기가 아닌 한 인간(학생)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무엇이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인기 있는 교사로부터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전수받게 된다고 본다. 학생이 사회인이 되었을 때 교사가 보여 준 대로 매력적으로 배려적으로 애정깊게 사람을 대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그런 인간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직에서의 인기라는 의미는 그저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좋은 평판이 아니라 '사람중의 사람'임을 인정해 주는 값진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교사에게 있어 실력은 기본이요 인기는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부연하고자 한다. ●

한국의 교육지표 1995

—「교육의 배경」 편—

천 세 영

(본원 교육지표연구팀장)

교육의 배경을 구성하고 있는 지표는 크게 인구구조적 배경, 사회경제적 배경,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전체 10개이다. 인구구조적 배경에는 국민의 학력 구성비, 국민의 평균 교육년수, 학령인구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경제적 배경으로서는 1인당 국민총생산액, 산업구조, 직종별 인력부족률, 실업률이 포함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으로서 자녀교육의 목적, 학교교육의 당면문제, 가구주의 자녀교육 기대수준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지표들은 우리 나라 교육의 여러 가지 모습을 결정짓는 배경과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 및 경향들을 살펴봄으로써 교육의 투입, 과정, 결과 등의 제반 지표들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게 하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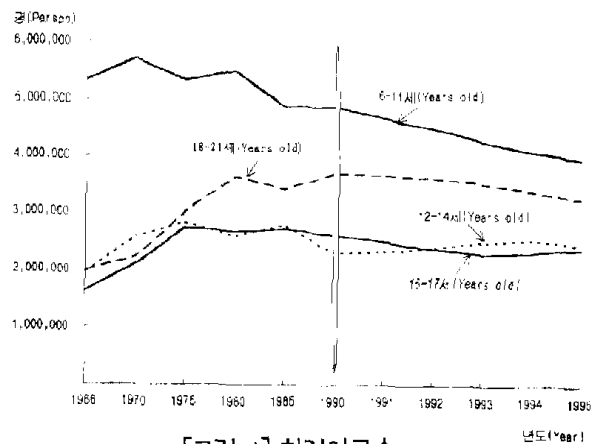
여기서는 세 분야의 배경 지표 중에서 학령인구수, 직종별 인력부족률, 학교교육의 당면 문제에 대해서만 대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학령인구수의 변화

학령인구는 교육인구수를 가늠할 수 있는 일차적 요인이다. 이러한 학령인구는 한 국가의 교육제도와 밀접히 관련된다. 한국에서의 학령인구는 교육법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만6세 이상부터 만21세 인구를 말한다. 즉 6세~11세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인구이고, 12세~17세는 중등학교, 18~21세는 고등교육인구에 해당된다.

한국의 학령인구는 [그림 1]에서 보듯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보였으나,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6~11세의 초등학교 대상 학령인구수가 1995년에는 드디어 3백만 명대로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등교육 대상인구는 1993~4년을 전후로 소폭의 증감을 하다가 1995년부터 대체로 정체되고 있으며, 고등교육 대상인구도 계속 감소 추세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그동안 한국교육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학급당 학생수의 과밀현상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소인수 학급 환경에 맞게 개별화 학습, 선진화된 탐구 학습, 열린 학습 체제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향후 한국의 교육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학령인구수

2. 직종별 인력부족률

직종별 인력부족률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전체 사업체를 직종별로 구분하여 임금, 근로조건 등을 불문하고 증원 또는 보충이 필요한 인력 백분율을 말한다. 직종별 인력부족률은 중등·고등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의 인력수급 기능 및 그 정원 조정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표 1]을 통해서 볼 때 우리 나라는 1985년 이후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 산업에 걸쳐 인력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1년은 인력부족률이 가장 높았던 해였다. 직종별로 보면 생산 및 관련직의 인력부족 현상이 가장 심하여 전체 산업의 인력부족을 주도하고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표 1] 직종별 인력부족률

단위 : 비율 %									
연도	평균	전문 기술 및 관련직	행정 및 관련직	사무 및 관련직	판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생산 및 관련직	농림 축산 관련 종사자	
1985	1.75	1.12	0.31	0.99	0.50	0.30	2.35	—	
1990	4.34	1.73	1.10	1.17	2.15	1.10	8.85	—	
1991	5.48	2.51	0.84	0.99	2.41	1.08	9.07	0.15	
1992	4.26	2.30	1.34	1.56	2.26	1.88	6.76	—	
1993	3.62	2.43	0.41	1.59	2.14	2.83	6.04	0.65	
1994	3.57	2.27	0.85	1.57	2.05	1.09	5.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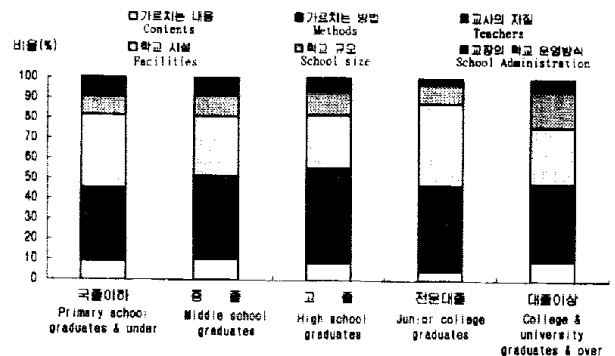
자료 : 노동부, 고용전망조사보고서

즉, 최근들어 인력부족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무 및 관련직과 서비스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전 산업 영역에서 부족률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나, 생산 및 관련직만이 전직종 평균 부족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교육의 당면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이 지표는 일반 국민이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 학부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의 비율로 나타내졌다.

[그림 2]를 통해서 보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학교 시설’이라는 반응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0.4%). 두 번째의 문제는 ‘교사의 자질’로서 23.0%, 다음으로 ‘가르치는 방법’으로서 19.1%이다. 물론 ‘가르치는 방법’도 교사의 자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사 변인 차원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그림 2] 학교교육의 당면문제

「한국의 교육지표」 구입 안내

판매처 : 교보문고 (397-3500)
KEDI 자료실 (34600-407)
가격 : ₩ 8,000 (예정)



◀ 테마대답 ▶

봉사활동



빛과 소금이 되기까지

나 드 리 (개원중학교 2학년)

늦잠자고 싶었지만 친구들과 '작은 동지'로 봉사 활동을 가기로 약속을 했기에 일어나야만 했다. 버스로 2시간 정도 가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건물 안에 들어서니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는 '할머니들과 놀아드리고 시간 수만 채우면 되겠지'라는 편한 생각을 가지고 방에 들어갔다. 하지만 할머니들을 본 순간 우리들의 생각은 정반대가 되고 말았다. 모두들 허리는 굽으셨지만, 몸은 따라 주지 않아도 자신의 할 일들을 하고 계셨다. 집안에서도 방하나 청소하지도 않으면서 봉사하러 왔다는 자체가 부끄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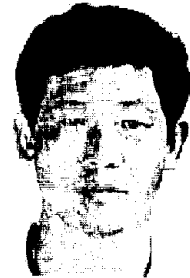
우선은 빗자루를 들고 계단, 마당, 방들을 쓸고 걸레로 열심히 닦았다. 다음엔 설거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수다를 떨며 천천히 닦았다. 그런데 순간 날아오는 고향소리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니, 설거지를 1시간씩 할래. 시간이 남아도니? 하기 싫으면 집에 가!"

정말 우리가 고향까지 들어가며 봉사를 왜 해야만 할까? 점수에 목매여 진정한 봉사는 하지 못하고 시간만 때우다 오는 시간낭비 행동을 억지로 해야 하는지. 하지만 난 고향지르신 아주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자진해서는 오도가도 못하시는 할머니들을 모셔놓고 식사, 빨래 모든 것을 하시려면 짜증도 나실 것이고 아이들이 몰려와 일은 하지 않고 떠들썩 거리다가만 가니 오죽이나 날카로워 지셨을까? 한편으로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린 설거지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방방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들과 말 동무가 되어 드렸는데 혼자 계시면서 외로움을 많이 타셨는지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셨다. 순간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고 싶어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서인지 할머니들께 더욱더 잘 해드리게 되고, 시간을 채우러 온 봉사보다는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봉사로 바뀌었다. '작은 등지'를 나설 때 할머니들의 서운한 얼굴 표정을 보며 다음 번에 올 때에는 더욱더 마음까지도 봉사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며 너무 힘이 들어, 우리가 오길 기다리며 일거리를 만들어 놓은 아주머니가 미웠지만 진정한 봉사를 깨닫게 해주시어 감사한 마음도 들었다. 이제는 점수 보다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종합생활기록부의 봉사활동



김 규 식(개원중학교 교사)

1. 종합생활기록부의 의의

제6차 교육과정의 개편에 이어 5·31교육개혁은 교육현장에 종합생활기록부를 탄생 시킴으로써 교육평가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다.

교육평가의 기준은 교육과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할 것인가를 역으로 추론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종래의 학교교육은 소위 일류대학에 몇 명을 진학시키느냐

에 최우선의 관심을 두어 왔다. 이로 인하여 입시위주의 암기식 교육, 지나친 경쟁심리, 과열과외가 난무하고 이에 따르는 엄청난 사교육비의 지출, 즉 학생, 학부모, 교사가 입시지옥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5·31 교육개혁은 이러한 상급학교의 입시제도를 수능과 본고사 중심에서 종합생활기록부를 통한 내신성적 반영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입시 지옥에서 탈출을 시도하였으며, 나아가 교육의 정상화를 추구할 수 있게 하고 인성 교육을 위주로 하는 교육활동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즉, 교과성적을 총점화하여 서열화시키는 한 줄 세우기 교육이 아니라 교과외의 각 과목마다 여러개의 기준을 갖고 학생들을 평가함으로써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으며 출석, 봉사활동, 기타 학교생활의 모든 행동을 누가 기록하여 점수화함으로써 인성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2. 봉사활동 교육의 가치

현대사회는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만연되어 인간 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남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과 건전한 사회성을 갖춘 인간 중심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봉사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교에서는 봉사활동의 시범 운영 학교로 지정되어 '한사랑봉사단 운영을 통한 봉사활동 실천지도'라는 주제를 시범 운영한 적이 있다. 이에 느낀 점 한 가지만 기술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한사랑봉사단을 통하여 각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들은 봉사점수를 따기 위하여 마지못해 계산적으로 참여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막상 현장(교아원, 양로원 등)의 어려움을 직접 감지하고 난 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수는 아랑곳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봉사의 참의미를 실천하여 봉사의 보람을 온 몸으로 체험하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즉, 자의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으나 활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은 분명 봉사의 보람과 참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봉사활동 교육은 자발적이며 지속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과 비교하여 비록 타율적이며 의무적 활동이지만, 그 교육적 가치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종합생활기록부의 봉사활동

종합생활기록부의 봉사활동이란 봉사활동을 종합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누가 기록하여 평가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 평가는 어려움이 따른다. 인성교육의 서열화(점수화) 자체가 모순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적으로 봉사활동을 유도하기 위

해서는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 방법의 연구를 게을리하여서도 안된다.

현재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수화 방법으로는 단지 양적인 면, 시간의 양만 측정하고 있어서 객관도는 높일 수 있으나 봉사활동 평가의 타당도 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봉사활동을 어디서, 어떻게 몇시간을 했느냐를 기록하고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봉사활동 교육의 교육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생활기록부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교사, 학부모, 학생 및 관계기관 모두가 봉사활동 교육의 참의미를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고개

황 의 옥 (개원중학교 학부모)

최근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청소년의 인성 교육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 우리 학부모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봉사활동에 관한 것이 아닌가 한다.

양식있는 어른치고 이런 교육의 당위성을 누가 감히 평가 절하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어려서부터 더불어 사는 삶의 귀함을 몸소 체험하게 하여 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키우겠다는 원대한 포부에 대하여 굳이 구구절절 토를 달고 싶진 않다.

그러나 꼭 그렇게 정책적인 강제성을 띠고 몰아 붙여야만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종합생활기록부에 봉사 실적을 점수화하여 기록하고 그 결과를 고등학교와 대학 입시에 반영한다니 어쩌면 학생들에게 '봉사' 과목이라는 굴레 하나를 더 덧씌워 준 셈인지도 모른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렇게 점수화하기를 즐기고, 또 입시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꼭 젖어 있을까?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교육활동에 봉사 영역을 포함시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삶에 녹아 들게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많은 연구와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지고 실시해 주었다라면 하는 안타까움을 솔직히 털어 놓고 싶다.

봉사는 그 동기가 자발적이어야 하고 그 사랑 나눔의 뜻뜻함에 한 점 이해 타산이 끼어 들지 않아야 한다. 학교에서 시켜서, 점수는 따고 봐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국·영·수 공부하듯 할 수밖에 없는 짜증나는 과목으로 전락한다면 과연 이 제도가 노리는 바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프로그램의 선정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선 떠오르는 것이 사회 복지 선택인데 그곳에서 한꺼번에 밀려오는 학생들을 다 수용해 줄지도 걱정이고 체계적인 지도와 책임있는 교육이 이루어질지 우려가 앞선다. 정신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몸으로 때우기식의 일이나 청소로 아이들을 이용한다면 봉사 후에 오는 마음의 평화와 흐뭇함을 그들은 알게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미숙한 아이들을 두서없이 이리저리 혼자 찾아다니게 할 수는 없다. 책임있고 전문적인 교사의 인솔이 필요할 텐데 오늘날 우리 교육 여건으로 보아 어려움을 줄 안다. 가뜰이나 잡무에 시달리는 우리의 선생님들께 그 일까지 맡겨야 될까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리고 학교다 학원이다 발 땀도 닦아도 하루 해가 부족한 것이 요즘 아이들인데 어느 시간에 잠을 내어 주어진 봉사 시간을 다 채울 수 있을까?

더군다나 입시 공부로도 힘겨운 고교생들은 방과 후 활동이 무척 힘들 것이다. 어느 날 하루를 '봉사활동의 날'로 지정하는 시간적인 배려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자원봉사 종합정보센터가 설립되어 부모와 학생이 언제든지 손잡고 기꺼이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하루속히 열렸으면 한다. 각종 사회복지센터도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고, 정부도 제도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발상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개선해 주길 당부한다.

그리하여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잘못된 제도와 획일적이고 어정쩡한 교육 행정의 희생물이 더이상 되지 않도록 우리 학부모들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 볼 것이다.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김 영 애 (수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복지관을 울렸다. “거기 가면 봉사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그들은 뭔가 자신없는 목소리다. 청소년 자원봉사가 확산되면서 각 복지관, 시설, 공공기관마다 포화상태인 인원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도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정보없이 아이들을 활동에 내보내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바쁜 업무에 또다른 업무가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성가시게 마련이었다.

여기저기 전화를 걸다가 거의 포기상태로 전화하여 또 다시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란 색다른 벽에 부딪치기전 다른 관문임에 틀림없었다. 전화를 받으면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 나로서도 미안하지만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걸려 오는 전화들과, 마지막 보류로 무작정 찾아와 발을 동동 구르는 아이들을 볼 때는 놀부가 흥부 박대하는 장면이 떠올라 마음이 착잡하기도 했다.

밝고 천진난만한 느낌의 순수한 그들이 노인무료급식, 장애인보육, 아동들과 놀아주기, 복지관 청소 등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과 활동에 적응해 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귀엽고 흐뭇하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도 처음에는 정신없고 혼란한 분위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나무라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견해 하시는 모습이였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빗자루, 대걸레 등을 휘두르며 전쟁놀이를 하거나 티격태격거리면서도 친근함을 맘껏 보여주는 모습, 어리숙하지만 뭔가 해나가려는 의지가 보이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고맙고 귀엽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자원봉사활동이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자발성보다는 강제성을 띠고 오다 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활동에 대해 별다른 느낌이 없다.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시간을 활동하고서도 2~3시간으로 써달라고 우기는 아이들이 많고, 복지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전혀 모르고 시간 때우러 오는 아이들, 활동이 한달 이상 계속되었는데도 활동일지에 활동장소명을 관리사무소나 다른 복지관 이름을 써놓다든지 하는 아이들,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다 보니 ‘언니, 누나, 아저씨’ 등으로 부르는 아이들, 복지관 환경 개선(청소봉사)에 배정된 아이들은 그저 쓸고 닦는 것으로 자신들이 청소하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사전에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자원봉사 장소로 보낼 때는 그저 “이러이러한 곳이 있으니 전화해 봐라, 그리고 자원봉사해라”식으로 알려 주는 곳이 많아

자원봉사가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짐이 아닐 수밖에 없다.

딱찬 활동카드를 기일 내에 끝내야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부담이다. 한 기관에서 그 많은 시간을 채울 수 없어 복지관, 우체국, 동사무소에서 같은 얼굴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비록 자발적으로 찾아온 아이들이 아니었어도 그들의 자원봉사를 도와 주는 나로서는 아이들에게 단순한 단 한가지만이라도 마음 속에 심어주고 싶었는데... 그것은 그리 쉬운일만은 아닌 듯 싶다.

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이 각 학교에서 가지고 온 활동카드를 다 채울 무렵 활동이 끝났다고 시원해하며 복지관을 미련없이 나가는 대부분의 아이들 속에는 진실한 마음을 배우고 나간 소수의 아이들이 있다. 한 10명에 2명 정도!

학교수업 마치고 자신들이 자원봉사하던 대상 아이들을 보고 싶어 교복을 입은 채로 복지관으로 뛰어오는 아이들, 학교가 먼 데 있어 자주 오지 못한다며 전화로 아쉬움을 표하는 아이들, “선생님 저... 다음 주에 가면 맛있는 거 사주실래요?”하고 물어보는 아이들, 학기 중이라 밑물 뒤의 썰물처럼 잔잔하여졌지만 곳곳에 박힌 조개처럼 은은하게 남은 진실함을 가진 아이들 덕분에 자원봉사자가 조금이나마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종합생활기록부의 의의와 문제점



백 순 근 (본원 문제은행 DB 팀장)

1996년도부터 초·중등학교 전학년에 걸쳐 새롭게 도입되는 종합생활기록부의 기본 철학은,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적성과 소질이 있으므로 교육의 여러 행위는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계발시켜 자아를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종합생활기록부의 도입은 정보화·세계화로 지칭되는 21 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로, ① 종래의 상대평가가 아닌

성취기준에 의한 절대평가를 지향하고, ② 전 교과와 총점보다는 교과별 성취수준과 교과별 석차를 중시하고, ③ 학생 개인의 강·약점을 파악하게 하여 교수-학습 가정에서 교육적인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④ 교과학습 발달 상황 이외의 다양한 활동(학습·학교활동, 클럽활동, 단체활동, 봉사활동 등)에 대한 자세한 기록뿐 아니라 수상경력, 자격증 취득상황, 진로지도 상황 등을 누가적으로 기록함으로써 학생 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합생활기록부의 도입 취지는 대체적으로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있으나, 교육현장에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예컨대 학생의 봉사활동 등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 교사의 업무량이 증가한다거나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원래의 도입 취지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학생 상호간의 지나친 경쟁을 유도하게 되는 상대평가를 오히려 조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학생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등급화 방안', 즉 국가수준에서 어떤 교과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수준에 이르렀을 때 등급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반드시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국가수준에서 각 교과별로 객관적이면서도 타당한 성취기준에 의한 등급화 방안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을 때 도시와 농어촌, 고교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교육환경이 우수한 지역과 열악한 지역 등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동일한 등급화 방안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타당한 절대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국가수준의 성취기준에 의한 절대평가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등급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절대평가라는 미명 하에 학생들의 성취수준이 그가 치른 시험의 난이도나 또는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특성이나 능력분포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상당히 왜곡된 형태의 '임의적인' 평가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기록하면서 각 교과별로 종래의 15등급 내신성적보다도 상대적인 서열을 더 강조하여 100등급으로 나눈 석차백분율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상대평가를 더욱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투 고 의 내

본원에서는 교육개발 연구 결과를 교육기관 및 교육 관계자에게 널리 홍보 보급하여 한국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본원 기관지 '교육개발'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내용

- 1) 칼럼 명 : 연구동향
 칼럼 성격 : 한국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글로 새로운 연구동향이나 알리고 싶은 연구동향
 분 량 : 200자 원고지 기준 30매 내외
- 2) 칼럼 명 : 멀지만 가야 할 길(신설)
 칼럼 성격 : 현장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정밀하게 다루어 보아, 그 개선안을 찾는다.

◆ 기한 : 수시 접수

◆ 제출처 : (우) 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홍보편집팀
 (Tel : 3460-0233, 0234)

◆ 기타

- 1) 제출된 원고는 출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합니다.
- 2) 한자는 가급적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원고를 보낼 때는 성명,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

● 전화번호가 달라졌습니다. ●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표전화가 96년 5월 1일자로
 TEL:34600-114로 바뀔니다.

※ 기획조정실 '홍보편집팀'의 직통전화는
 TEL:34600-233, 234로 바뀌었습니다.

민족교육 · 수월성 교육의 요람지

민족사관고등학교 편



지난 3월 2일 일간지에 한 고등학교의 개교식을 소개하는 사진과 글이 실렸다. 그런데 입학생들이 검정색의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검정 교모를 써서 독자들의 흥미를 끈 일이 있었다. 이 학교가 소수 영재 교육을 시켜 민족의 지도자를 기르고자 설립된 민족사관(民族史觀)고등학교다.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에 있다. 영동고속도로의 소사 휴게소를 빠져나오면 바로 덕고산이 있는데, 이 산기슭 38만평의 넓은 대지 위에 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所思’(생각하는 곳)와 ‘德高’(덕을 높인다)라는 지명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 곳이다.

학교는 아직 일부 건물과 시설들이 건축 중에 있다. 학교의 건물들은 모두 전통 한옥의 모양을 하고 있어, 색다른 인상을 준다. ‘일반교육관(일반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본관 건물 앞에 이르니 ‘세심교(洗心橋)’라는 조그만 다리가 있다. ‘소사’, ‘덕고’라는 지명과 어울리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무실에 들어가니 정면으로 보이는 대형 태극기, 한복을 입은 선생님들의 모습, 선생님들 책상마다 있는 전교생 30명의 사진과 이름, 그리고 최신형 컴퓨터가 눈에 들어왔다.

이 학교의 연구주임인 오연중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 준다. 오선생님의 안내로 이 학교의 설립자인 최명재 이사장을 만났다. 최이사장은 평생 동안 품어 왔던 육영 사업에 대한 꿈, 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해야겠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설립했으며, 이 학교와 앞으로 설립 예정인 전자공과대학의 운영을 사회와 국가를 위한 마지막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최이사장은 학교 교육의 곳곳을 잘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꼭 이야기를 해달라는 당부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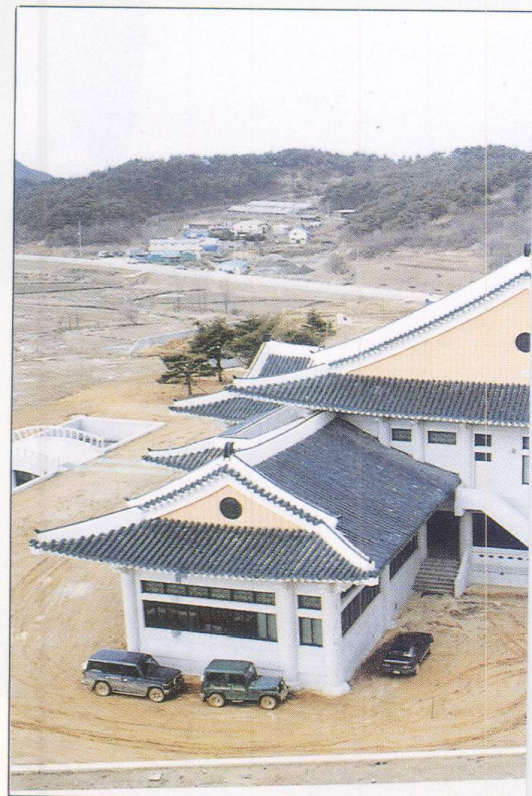
민족사관고등학교는 ‘확고한 민족사관의 확립과 수월성·속진 교육을 통하여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를 육성한다.’는 교육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교육 목표에 따라 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들만을 선발하여

민족 교육·수월성 교육의 요람지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찾아서

글 • 김 홍 원

학•교•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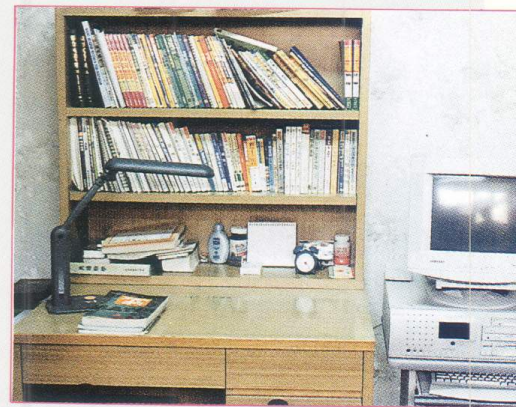
교육을 시킨다. 작년에는 중 2, 3학년에서 학교 성적이 상위 1% 이내에 드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와 창의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쳐서 선발하였는데, 전국에서 학생들이 지원하였으며 경쟁률은 5대 1이었다. 학생들은 모두 '생활교육관'이라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한다. 올해에는 남학생들만을 선발하였으나, 앞으로는 여학생들도 선발할 예정이다.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방법도 일반 학교와는 매우 다르다. 이 학교에서는 일반 고등학교 3년 이수 과정을 1년 반만에 이수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심화 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 유학 대비 학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업 시간표는 학기가 아니라 2주가 1사이클로 되어 있다. 이 학교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없다. 교육과정 운영표에는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용어 대신 지(地)일, 천

(天)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이날에는 평일과 똑같이 수업이 진행된다. 대신 교육과정 운영표에 수요일이 없는데, 이 날에는 정규 수업 대신 주 별로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된다.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은 각각 15일과 10일이다. 학교가 산정한 연간 총 수업 일수는 320일(일반 학교 204일)이다.

학생들은 오전 6시에 일어나서 세면을 한 다음, 한복으로 갈아 입고, 전통 예법대로 생활 교육관에서 주무신 선생님께 문안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민족 교육관에 가서 6시 30분부터 50분 동안 정신 수양 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에는 선, 서도, 기, 차예절 등을 배운다. 정규 수업 시간은 1교시부터(8시 10분부터) 8교시까지(오후 4시 50분까지)이다. 이 시간 동안에는 한복이 아닌 교복을 입는다. 8교시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한복으로 갈아 입고 민족 교육관에서 민족 전통 문화(창, 태권도, 시조, 사물놀이 등)를 배우는 시간(50분)을 갖는다. 저녁 식사가 끝난 오후 6시 50분부터는 생활 교육관에서 50분 단위의 4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심화 학습 시간을 갖는다. 심화 학습은 국, 영, 수 교사가 지도를 하며 능력별로 집단이 편성된다. 심화 학습 시간이 끝나면 목욕을 한 후, 11시 20분에 취침을 한다. 학생들은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50분 단위로 이루어지는 15시간의 수업을 받고 있다. 취침 시간 이후에도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은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으며, 궁금한 것은 함께 기거하고 있는 선생님들(국영수 담당 교사)에게 언제라도 질문할 수 있다.



▲ 기숙사 내부

1학년 30명의 학생들은 3반(각반의 학생 수는 10명이며 이질적인 집단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원반'이라고 한다. 우수한 학생들만을 뽑아 놓았기 때문에 수업은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속진 학습과 심화 학습으로 실시된다. 즉, 학생의 능력 수준과 학습 특성, 관심 분야를 최대한 반영한 개별화 교육을 실시한다.

학습 집단 편성은 교과에 따라 달라진다. 국영수 교과에 대해서는 능력별로 반 편성이 된다. 능력별 반 편성은 분기별로 실시되는 시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3월 현재 국어와 영어는 A, B, C의 3등급으로, 수학은 A, B, C, D의 4등급(한 등급의 인원 수는 10명 내외)으로 나누어져 있다. 등급별로 학급 전담 교사가 있어 지도한다.

학생들의 수준이 높고 학급 인원 수가 적기 때문에 수업은 토론식, 세미나, 개인 연구 발표, 협동 학습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필자가 참관한 국어 시간에는 10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거의 학생들의 발표와 토의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 민족사관고등학교 전경



오선생님은 B반의 수학을 가르치는데, 미리 과제를 내 주어서 풀게 해 온 다음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교사가 준 과제 중 도전감을 불러 일으키는 문제만 푼다. 오선생님은 가르치는 학생이 8명이지만 지도안은 능력별로 3종류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오선생님은 인

터넷이나 외국의 책에서 뽑은 문제,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하기도 한다.

학생들에 대한 지도와 평가는 세밀하게 이루어진다. 학생 개개인마다 학급 담임 교사, 분기별 교과 지도 교사, 생활 전담 교사가 있어 이들이 학생을 지도, 평가한다. 생

상으로 임대받는다. 보수도 일반 학교보다 많은 편이다. 오 선생님의 주당 수업 시간은 정규 수업 6시간, 보충 2시간, 일 주일에 이틀 하는 야간 지도 4시간을 합쳐 12시간이다. 필자가 면담한 생물 선생님은 주당 6시간이다. 선생님들은 1주일 내내 학교에 출근한다. 모든 교사들은 연 1회 해외 연수를 갈 수 있으며, 국내 교원 연수도 참가할 수 있다. 올해에는 여름 방학에 학생, 교사 전원이 영국 영재 학교를 방문, 실제 교육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해마다 국내 영재 교육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사 연수도 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건이 주어지는 대신, 교사들은 학생 지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간주되면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자기 연수를 한 다음, 다시 수업을 할 수 있다. 교사들은 2~3주에 한 번씩 공개 수업을 하여 자신의 수업을 평가받는다. 현재 교사는 27명이다.

학교의 시설과 교수-학습 자료의 질은 어느 학교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고급이다. 우리 나라에서 나지 않는 대리석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우리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오선생님의 말이 생각났다. 교실에는 대형 TV, VTR, 이동식 LCD 프로젝터, 자료제시기가 있으며, 칠판은 화이트보드이다. 학생 4명이 한 조가 되어 생활하는 생활 교육관의 각 방에는 원목 책상 4개, 펜티엄급 컴퓨터 4대, 레이저프린터가 1대씩 비치되어 있으며, 교사가 기거하는 방에도 이러한 시설들이 비치되어 있다. 교사들은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다.



▲ 문학수업 장면—10명이 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활 전담 교사는 학생이 원하는 교사가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학기별로 실시되는 중간, 기말, 학기말 고사와 3~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실시되는(7월은 제외) 외부 모의고사 결과에 더해서 이루어진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국영수 수업에서의 학급이 재편성된다.

교사들에 대한 기대와 평가는 높고 엄격한 편이다. 교사들은 공채를 통하여 선발되며, 인근에 있는 원주시에 32평 이상의 아파트를 무

이 학교에는 모두 5개 교육관이 건립될 예정인데, 일반 교육관, 민족 교육관, 생활 교육관, 체육 교육관, 가정 교육관이 그것이다. 민족 교육관은 99칸의 한옥 양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좌선실(단전호흡실), 서도실, 차예절실, 전통상례실, 전통음악실, 효행실, 민속실, 전통제례실 등의 전통 문화 학습실, 전시실, 이순신 장군의 사당, 연못, 정자 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가정 교육관은 일부 세대가 콘도미니엄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2주에 한번씩 주말에 학부모가 와서 자녀와 함께 가정처럼 생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교사는 학부모와 상담을 한다.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 갈 세 명의 지도자만 나온다면, 나의 목적은 실현되는 것이며 여한이 없다.

학교는 학생들이 올바른 민족적인 얼을 갖고 특권 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수요일마다 실시하는 교육적 행사도 그것이다. 수요일에는 정상 수업이 없는 대신,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 다양한 현장 체험 활동을 한다.

준에서의 등록금을 받는다. 그러나 그 돈은 학생회로 들어가며, 학생들은 협의하여 이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지 돈 쓴 내역을 추후에 보고하면 된다.) 3주 수요일은 '자원 봉사의 날'로서, 학생회에서 봉사 활동 할 곳을 선정하여 방문한다. 마지막 주 수요일은 '미리내의 날'로서 귀가를 원하는 학생들이 집에 가는 날이다. 귀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자유 학습 일로서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한다.

▼ 학교 내부 모습



제 1주 수요일은 '학습 정보 수집의 날'로서 학생들은 학교가 준 10,000원을 가지고 서울 교보문고에 가서 서적을 구입하고, 자필로 산 날짜와 이름을 쓴다. 이 책은 학교 도서관에 기증된다. 2주 수

요일은 '답사 활동의 날'로서, 사적지, 문화 유적지, 첨단 산업 시설 등을 답사한다. 3월에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사당을 방문하여, 동상 추진위원회에 30만원을 기증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 수

학교에서는 또 학생들에게 매월 학생 1인당 소요되는 경비를 알려준다. 이는 민족에 대한 사명감,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이 학교의 정문에는 우리 민족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한 두 분의 동상(이순신 장군, 이윤극 선생이나 이퇴계 선생 중 한 분)을 세울 예정이다. 또 생활 교육관 앞에는 이 학교 출신자 중에서 배출될 노벨상 수상자를 위한 좌대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족혼을 심어 주는 교육과 함께 세계화를 위한 교육도 강조한다. 학생들에게는 매주 1부씩 영문으로 된 뉴스워크지가 제공되며, 학생들은 이것을 읽고 토론을 한다. 또 영어로 회의를 진행하는 교육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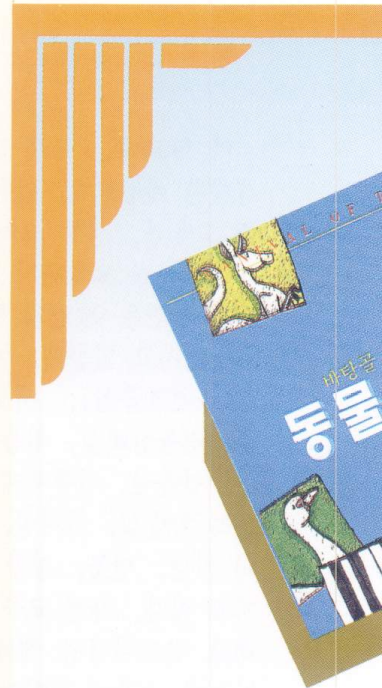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실천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일들 중에는 파격적인 것들이 많다.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하고 있다. 학교도 파격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일들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오선생님은 하루의 일정이 너무 빠빠하여 학생과 교사가 협의를 하여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 일부 학생들이 경쟁을 너무 의식하여 늦도록 공부하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까 봐 그리고 지나친 경쟁 의식이 일부 학생들에게 정서상의 문제를 가져다 줄까 봐 우려가 되며, 학교는 이러한 점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전교생이래야 한 학년이 30명씩 모두 90명이 되는 학교이다. 학생으로부터는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시설, 교수-학습 기자재의 질은 최고의 것이다. 그간 우리는 솔하게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여 왔지만, 학교에, 교육에 최고의 것을 주어본 적이 있는가? 이러한 학교가 개인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필자에게는 경이로운 일로 보였다.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바라보며, 도움을 주고받아야 할 학교이다. 왜냐 하면, 그곳에는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한 염원이 있으며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환원하고자 하는 한 인간의 꿈, 희생, 의지가 서려 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아직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영재 교육의 꿈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저 멀리 설악산이 보이는 학교 길을 내려오면서 이 학교를 설립한 분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 갈 세 명의 지도자만 나온다면, 나의 목적은 실현되는 것이며 여한이 없다. 누군가는 이러한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해 왔다. 나는 지금 나무를 심는다. 하지만, 내 나이를 생각해 볼 때에 그 나무의 열매는 따기 어려울 것이다.’ 



까뮤 생상(Camille Sanit Saens)의 '동물의 사육제'

손 영 주(본원 홍보편집팀)

의자에 울망졸망하게 앉은 아이들의
이야기 소리와 웃음소리가 연극 무대의 조명이 꺼지면 순간
사라져버린다. 사람들의 표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커튼이 쳐진
무대가 나타나면 이야기가 시작된다.

동물들로 구성된 환상적인 서커스단을
배경으로 서커스단의 사회자이기도
한 장난꾸러기 삐에로가 괴상한 모자를
쓰고 접시를 돌리며 나타난다. 접시를
돌리며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구르기도
하면서 열심히 공연 연습을 하는 삐에
로, 착하지만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생
각하는 거북이가 거울을 들고 등장하며
심술맞은 사자가 코를 벌름거리며 등장
한다.

동물들은 무서운 코끼리 아저씨에게
야단을 맞을까 봐 피아노를 꺼내 놓고
열심히 연습한다. 그러다가 서로 많이
치려는 욕심을 부려 밀고 당기는 싸움
도 벌이고 자기 혼자서 피아노를 독차
지하려고 애를 쓰기도 한다. 이런 모습
에서 우리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모습과
동물들의 모습을 동일시하게 된다.

곧이어 늘씬한 말이 등장하는데 말은
자기가 언젠가는 '유니콘'이 될 수 있다
고 믿으며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
한다. 그러다가 심술맞은 사자와 충돌



하게 되고 시끄러운 싸움 소리에 서커
스단의 총 지휘관인 코끼리가 롤러 스
케이트를 타고 동물들을 야단치려고 무
대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삐에로와 거
북이, 말과 사자들은 무서운 코끼리 아
저씨한테 심한 꾸중을 듣고 서커스에서
선보일 묘기 연습에 한창이다.

이어서 닭과 귀여운 아기 병아리가
은은한 첼로 음악에 맞춰 무대 위에서
우아한 모습으로 환상적인 발레를 선보

이다. 이제 모두들 서커스단에 올릴 마지막 연습에 한창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 우리의 건강한 뽀에로는 열심히 연습하다가 누군가의 마술에 걸려 훌륭한 왕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아름다운 바닷속에서 어여쁜 공주님과 우아한 음악에 맞추어 춤까지 추게 된다.

더군다나 말은 그렇게도 꿈꾸던 유니콘이 되어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가 생기고 머리에는 유니콘의 상징인 뿔까지 달리게 된다. 뽀에로는 공주님과 춤을 추다가 유니콘을 발견하게 되고 말이 변한 모습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서로의 모습에서 왕자와 유니콘이 되어버린 자신들을 발견하고 기쁨의 춤을 추게 된다. 서커스 식구들은 뽀에로가 멋진 왕자님이 되고, 말이 유니콘이 된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다가, 그들의 변한 모습에 진정한 축복을 보내 주고 행복한 춤을 춘다.

이 연극은 어린이들이 지루해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을 연극 무대에 자연스럽게 녹여 아이들이 전혀 지루해하지 않았다. 왕자의 꿈속에 나타난 백조의 우아한 모습은 제 13곡 '백조'의 명곡으로 눈으로 익히고 귀로 느끼는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보여 준다. 어른들에게도 지겹고 부담스러운 클래식 음악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다가온다.

靜的인 음악과 動的인 연극이 훌륭하게 조화를 이룬 것이다. 또한 바닷속의 환상적인 모습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바닷속의 궁전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그대로 살려 주었으며, 내용적인 면에서

는 가장 힘이 없고 위축된 뽀에로를 왕자로 만들고, 놀림감이 되는 말을 유니콘으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누구나가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기를 꿈꾼다.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것은 다음의 일이다. 적어도 꿈을 꾸는 동안은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착해질 수 있다. 나쁜 꿈을 꾸려는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꿈을 꾸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다. 뽀에로가 서커스에서 접시돌리기를 하고 말이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어도 그들의 시선은 따뜻하며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언제나 긍정적이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이제 무궁무진한 동심의 세계에 다채로운 색깔을 하나 더 그려넣을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꿈나무에 소중한 영양분을 채우고 무대를 떠났을 것이다.

CARNIVAL OF THE ANIMALS



초등학교 학생의 사회화 연구

* 이 글은 김영화, 이해영, 이인호 등이 연구한 연구보고서 (RR 95-3)를 요약한 것임.

김영화 (본원 책임연구원)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초등학교 아동이 가정과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부모와 친구, 그리고 교사들과 어떠한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어떠한 정의적 특성(도덕성, 기본 생활 습관, 가치관, 자아개념)을 가진 인간으로 사회화되고 있는지를 질적, 양적 연구 방법을 병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한 연구 내용은 1) 초등학교 아동이 습득하고 있는 정의적 특성 분석, 2) 초등학교 아동의 가정, 학교, 또래집단에서의 사회화 과정 분석, 3) 초등학교 아동의 정의적 특성과 사회화 과정의 관계 분석, 4)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화 결과 및 과정의 계층별, 지역별 차이 분석, 5)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화 실태가 가정 교육 및 학교 교육에 주는 시사점 추출 등이다.

1. 초등학생의 정의적 특성

초등학생의 도덕성은 평균적으로 볼 때 보통(그저 그렇다)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도덕성은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보통보다 다소 높다는 것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도덕성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자기절제, 자율성,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은 학생들에게 더욱 중점을 두어 지도해야 할 도덕성의 측면이라고 하겠다.

전반적으로 아들이 딸보다 도덕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이하의 자녀는 첫째나 외동 자녀에 비해 인내·자기절제, 책임감, 공정성 등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서울 등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에 비해 전통적인 도덕성인 경로를 제외하고는 정직, 공중질서·준

법, 타인 배려, 책임감, 공정성 등의 도덕성 수준이 전반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기본 생활 습관도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보통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도덕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들이 딸보다 기본 생활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외동에 비해 둘째 이하의 자녀가, 서울에 비해 읍·면 지역에서 기본 생활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의 가치관을 보면 개인주의보다는 집합주의적 성향을 다소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즉,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이 어느 정도 희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보다 많았다. 또한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많다는 등 우리 사회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가정에서의 사회화와 초등학생의 정의적 특성

자녀의 도덕성 형성에는 부모의 도덕성 지도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효, 정직, 공중질서·준법, 타인에 대한 배려, 협동 등의 도덕적 행위를 엄격하게 지도할수록 자녀의 도덕성 수준이 높았다.

자녀들은 부모의 도덕성 지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것도, 방임하는 것도 아닌 중간 수준의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정직과 공정성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지도를 하고 있으나, 효와 경로, 협동심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강도 낮은 지도를 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부모 스스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아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나며 도덕성 지도 가운데 부모가 가장 자신 없어 하는 측면도 효도에 관한 지도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사례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큰 방을 자녀에게 주기까지 하는 자녀 중심의 생활 방식 경향과 일관성을 지닌다. 지나친 자녀 위주의 가정 생활은 부모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권위를 상실시키고,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과 행위의 형성을 저해하기 쉽다. 더욱이 전통적인 가족 관계의 붕

괴로 인하여 많은 가정에서 멀리 떨어져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일년에 두 세번 정도 밖에 찾아 뵙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리는 공경이나 효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자녀의 도덕성 형성에는 자녀의 눈에 부모의 도덕성이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도덕적, 또는 비도덕적 행위는 자녀에게 강한 본보기가 되어 자녀의 도덕적, 또는 비도덕적 행위의 형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 질서와 준법 행위 형성에는 부모의 행위가 부모의 지도보다도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초등학생들은 부모의 도덕성에 대해 보통(그저 그렇다) 수준보다는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도덕성 영역에 따라 많으면 61%에서 적게는 25%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도덕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효도, 정직에 대해서는 네명 중 세명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자율성과 협동심의 경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분석 결과는 성품과 예절에 대한 부모의 관심, 특별활동이나

학교 행사 등 학과 공부 이외의 활동에 대한 부모의 관심 등 자녀의 전인적 성장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자녀에 대한 일반적 관심, 가정의 화목도 등도 자녀의 도덕성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 공부와 성적에 대한 관심과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부모의 경쟁지향성 등은 도덕성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이 자녀가 좋은 성적을 얻는 데만이 아니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폭넓은 관심을 가질 때, 그리고 가정이 화목할 때 자녀의 도덕성 수준은 높아지며, 부모가 공부와 성적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거나, 과잉보호할 때, 경쟁지향적일 때 자녀의 도덕성 형성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우리 부모들은 의식의 차원에서는 자녀의 인간성, 친구관계, 예의 등 전인적 측면에서의 성장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학과 공부나 성적 못지 않게, 또는 공부나 성적보다 더 많이 학과 공부 이외의 활동이나 취미, 여가 생활, 성품과 예절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들도 부모가 자신들에게 기울이고 있는 관심에 대해 이와 같이 느끼고 있었다.

자녀의 가치관 형성에도 부모의 가치관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 평등주의, 성공지상주의 등 가치관의 경우 자녀의 가치관에는 부모의 가치관이 의미있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분석 결과들은 아동의 정의적 특성을 바람직하게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선 부모의 본보기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 자신이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올바른 기본 생활 습관을 지니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고, 자녀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자녀를 과잉보호하거나 경쟁지향적인 태도를 삼가야 한다.

3. 학교에서의 사회화와 초등학생의 정의적 특성

교사들은 대체로 정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강한 제재를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타인 배려, 협동심, 책임감, 공중질서 준법, 경로, 정리 정돈 등의 순서로 제재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성 영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부모의 도덕적, 또는 비도덕적 행위는 자녀에게 강한 본보기가 되어 자녀의 도덕적, 또는 비도덕적 행위의 형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교사가 지도를 강하게 할수록, 교사가 체벌을 적게 사 용할수록, 학생이 교사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한다고 느낄수록, 학생이 교사-학생 권력 관계가 민주적이라고 느낄수록, 학생이 교사의 도덕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교사가 학생을 공정하게 대 할수록, 교사가 집단의 질서와 조화를 강조할수록 학생들의 도덕성 수준이 높아진다.

학생들의 대다수는 지켜야 할 규범과 규칙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는 만큼 내면화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학생들은 공중 질서를 비롯한 규범과 규칙을 이해는 하지만 남을 의식 하며, 남이 있을 경우에는 잘 지키고 남이 없을 경우에는 지키지 않는 이중성을 보인다. 이것은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면화하지 않고 단순히 질서를 안 지키므로써 받게 되는 비난과 처벌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규칙을 어기고 도 벌이나 피해를 입지 않을 때는 규칙을 지키지 않으려 한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 속에서 눈치껏 규칙을 어기면서도 '걸리지 않는' 요령을 터득해 나가고 있다. 즉, 어떤 행위를 하는 순간에 그 행위에 대한 외적 통제가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스스로의 행동 방향을 결정한다.

관찰 결과 학생들은 처음 입학해서는 질서지키거나 정리 정돈을 잘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무질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1학년의 경우에는 정리 정돈이나 화장실 줄서기, 복도에서 조용히하기 등의 많은 지도를 수시로 하는 반면 고학년의 경우에는 이런 지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 교사의 도덕성 지도가 엄격할수록 학생들의 도덕성이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는 저학년뿐 아니라 고학년에서도 끊임 없이 도덕성 지도와 생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4. 또래 집단에서의 사회화와 초등학생의 정의적 특성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친구가 하자고 할 때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학생들, 즉 부모님이나 선생님보다 친구를 더 의미있는 타자로 간주하는 학생들과, 친구들과 함께 하기로 한 일이 규칙에 어긋난다고 해도 친구들과 결정한 대로 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도덕성과 기본생활습관 수준이 떨어진다. 이것은 학생들이 친구를 중시할수록, 바람직한 정의적 특성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대체로 또는 언제나 부모와 교사의 말보다 친구를 따라한다는 학생들은 각각 4.8%(부모의 말보다)와 7.1%(교사의 말보다)에 불과하였고 다수는 (각각 74.4%, 70.4%) 전혀 또는 대체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부모나 교사보다 친구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전한 또래 문화를 형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고학년이 되면 또래 집단의 영향이 갑자기 커지면서 특정한 또래 집단에 속한 아이와 속하지

않은 아이의 경계가 뚜렷한 배타적인 또래 집단을 형성한다. 저학년의 경우 자기 주변의 아이나 동네 친구들과 고정적으로 어울리는 반면 3학년부터는 자주 어울리는 또래 집단이 생기기 시작하며, 4학년에서는 그러한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특정한 또래 집단에 속한 학생과 속하지 않은 학생의 경계가 뚜렷한 배타적인 또래 집단을 형성한다. 이 시기의 여학생들은 특정 집단의 아이들로부터 배척되어 고립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산층보다는 서울의 근로계층 지역과 지방 근로계층 지역에서 특정한 아이를 중심으로 한 응집력이 큰 또래 집단이 강하게 형성된다. 중산층의 남학생들은 뚜렷이 두드러지는 아이에 대한 전제가 심하여 다른 아이들에게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아이가 없는 편이다.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하려는 아이는 '잘난 척하는 아이'로 배척받고 따돌림을 당하기까지 하므로 아이들은 오히려 남의 눈에 '튀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경향도 보인다.

교사는 학생들간의 역학 관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교사가 지나치게 편애하는 아이나 반대로 교사가 무관심, 또는 무시하는 아이는 따돌림의 대상

이 되기 쉽다. 또 교사는 학생들간에 권위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주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가 인정해 주고 은연중에라도 칭찬을 자주 해 주는 아이에게는 아이들이 함부로 대하거나 놀리지 않고 그 아이가 하는 말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초등학생들은 덩치가 크고 힘이 있는 아이에게 권력을 부여한다. 1학년에 갓 입학해서부터 주먹 힘의 크기를 서로 겨루어 서로의 위계를 결정하며, 힘이 센 아이는 힘이 약한 아이를 수시로 괴롭히지만 약한 아이는 대항하지 않는다. 남학생들은 교사가 듣지 않는 곳에서는 거친 언어와 욕을 거침없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거칠고 힘악한 언어를 사용할수록 다른 아이보다 힘이 세거나 더 성숙했다는 것의 증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힘을 지닌 아이는 자신의 힘을 공정하게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힘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에게 행동할 것을 강요하고, 규칙을 지키도록 아이들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또한 청소시간 등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며, 힘을 지닌 아이 자신이나 다른 아이들이나 모두 그러

한 생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신의 친구의 도덕성과 기본 생활 습관에 대한 평가도 학생의 도덕성 형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도덕성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학생 자신의 도덕성도 높다. 즉, 도덕적인 친구를 사귀는 학생이 더 도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신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친구를 사귀려 했을 가능성과, 도덕적인 친구의 영향으로 학생 자신도 도덕적이 되었을 가능성을 모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느 경우이든 친구들의 행동이 건전해야 학생 자신의 행동도 건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러나 초등학교생들은 친구의 도덕성과 기본 생활 습관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 도덕성과 기본 생활 습관의 전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낮게는 3.18점에서 높게는 3.52점 사이에 분포하여 보통 수준이거나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반면 친구들의 이기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공감을 하고 있어(3.61), 친구들의 영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결과들은 학생들의 도덕성과 기본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 전체의 문화를 전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㉞

“

어느 경우이든

친구들의 행동이 건전해야

학생 자신의 행동도

건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



'95 교육용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새빛 연구 개발

* 이 글은 광병선, 오진석, 정성무, 서영석, 송재신, 신영호
가 연구한 연구보고서(CR 95-23)를 요약한 것임.

서 영 석 본원 연구원

1. 서 론

첨단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컴퓨터 사용자 환경이 혁신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컴퓨터의 고기능화, 고성능화가 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 Graphic User Interface)의 일반화와 멀티미디어 정보 처리 환경의 대중화를 들 수 있다. 이같은 멀티미디어 컴퓨터 환경은 국내에서는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멀티미디어 정보 처리 환경을 종래의 문자와 그림을 포함하여 소리,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정보가 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환경의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정보를 원형에 수렴해 저장하고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특히 교육에서는 지식의 표현이나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이

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래의 교육 매체는 정보 유형의 선택과 이용에 여러가지 제한점이 있었으나, 멀티미디어 정보 처리 환경에서는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요구되는 보합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교육에서 멀티미디어 정보 처리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구현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교육용 소프트웨어들은 양적인 측면에서 현장의 교육적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지 못해 컴퓨터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교과전문가들 현장 교사가 교수 활동에서 필요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여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저작도구가 요구되어 왔다.

이같은 필요성에 의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저작도구 'GREAT' (Graphic Enhanced Authoring Tool)를 개발하여 보급할 바 있다. 그러나 GREAT는 DOS 환경에서 운영되는 저작도구로서 멀티미디어 정보 처리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였으며,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한 면이 다소 있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정보 처리를 포함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저작도구 개발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으로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한국교육개발원 및 교육부의 지원으로 수행한 '교육용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연구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교사들이 멀티미디어 컴퓨터 환경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좀 더 쉽게 개발할

강의를 지원하는 교육용 멀티미디어 저작도구는 새빛(SAEBIT: System Assisting Education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을 개발하였다.

II. 새빛(SAEBIT)의 개발 방향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인 새빛은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수한 CAI(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프로그램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데, 구체적인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빛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본 저작도구의 주사용자가 교과전문 교사, 즉 현장의 교사임을 고려하여 사용의 용이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CAI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불필요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방법을 제공하여 원하는 CAI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새빛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종래의 CAI 프로그램

은 단순한 문자나 그림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므로 학습 내용 전달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학습에서는 보다 다양한 매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학습자에게 전달될 때,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문자 정보나 그림 정보 이외에 소리,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 유형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새로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란 컴퓨터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청상화한 디자인을 매서로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명령어 중심의 인터페이스에 비하여 일관된 사용법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사용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저작도구는 이러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채용하고 있는 윈도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CAI 프로그램 개발시 프로그램의 개발 효율을 제고하여 사용이 용이하도록 지원하였다.

넷째, 새빛은 라이브러리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라이브러리 관리 기능이란 한번 작성한 데이터들을 라이브러리에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기능으로 새빛은

다양한 그림이나 소리, 동영상 등의 외부 자료들 뿐만 아니라 보석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CAI 프로그램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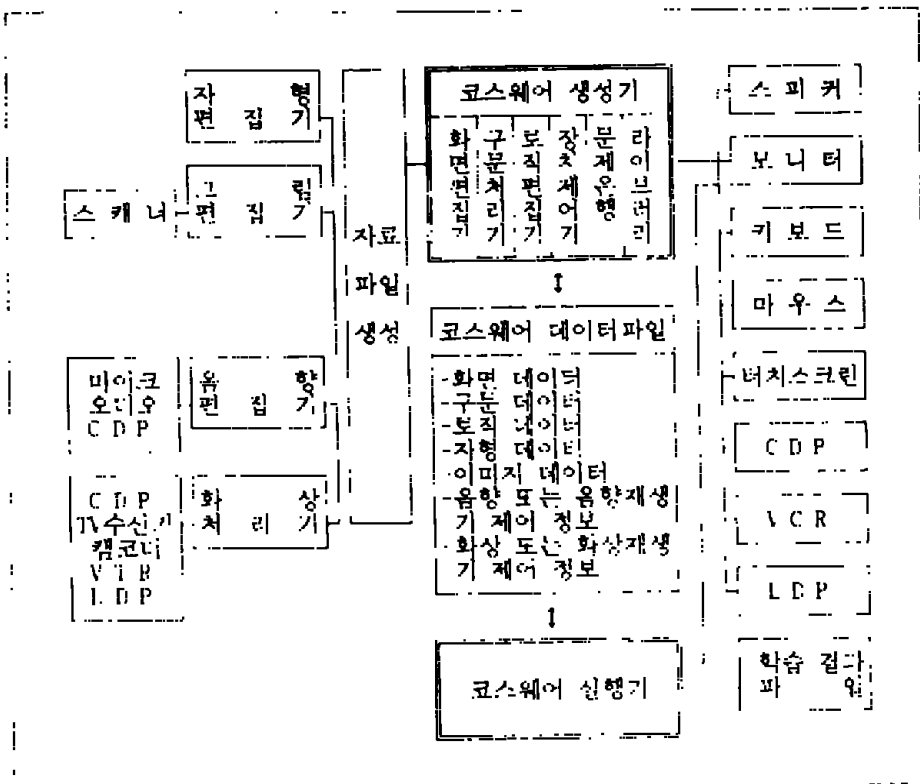
다섯째, 새빛은 학교 현장의 교육 목표 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CAI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 이미 개발된 교육용 소프트웨어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반복 연습형이나 게임 교육형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모의 실험형이나 자료 제작형, 게임형 등 여러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여러 교과 영역에서 다양한 교육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학습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문제 생성 기능을 포함하여 학교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문제형의 CAI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였다. 또한 다양한 문제들을 모아놓은 문제은행 기능을 제공하여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새빛은 확장성을 갖도록 하였다. 미래의 학교 컴퓨터 환경을 고려하여 발전하는 컴퓨터 기술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도록 하며,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들과의 접속을 용이하게 하여 저작도구 운용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였다.

III. 새빛의 구현

새빛의 개발 방향에 의하여 구현된 새빛의 시스템 구조 및 메뉴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시스템 구조
새빛의 시스템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저작도구 시스템의 구조

1. 코스웨어 생성기

코스웨어 생성기는 코스웨어 개발자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코스웨어 저작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능들을 제공하며, 코스웨어의 내용을 구성 관리하는 파일을 생성·편집·관리한다. 여기에는 화면 편집기, 구문처리기, 로직 편집기, 장치제어기, 라이브러리 관리기, 문제은행 처리기 등이 포함된다.

화면 편집기는 각 화면을 구성하는 문자, 그래픽 등의 화면 데이터를 생성·편집한다. 로직 편집기는 화면과 화면을 연결하여 학습 흐름도의 생성 및 편집을 지원하며, 학습과정에서 생성되는 학습자의 반응 처리, 피드백 제시 등과 같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처리한다. 라이브러리는 미리 생성하여 외부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여러가지 객체들의 모음을 말하는데, 라이브러리에 있는 객체들은 저작과정에서 필요시 언제든지 저장하거나 불러서 사용할 수 있다. 문제은행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습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문제들을 생성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적의 관리와 외부 편집기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멀티미디어 객체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한다.

3) 코스웨어 실행기

코스웨어 실행기는 학습자 시점에서 동작되는 프로그램으로 학습 프로그램의 제어를 지원한다. 코스웨어 실행기는 코스웨어 실행 예신과 코스웨어 분석기로 구성된다. 코스웨어 실행기는 코스웨어 편집기에서 생성된 코스웨어 데이터를 해석하여 학습내용을 제시하거나, 만들어진 상호작용 절차에 따라서 학습자들의 반응을 입력받아 이를 해석한 후 적절한 방식에 따라 학습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히 학습 과정이 진전되도록 한다. 또한 코스웨어의 운영에 필요한 외부 장치를 제어하여 필요한 학습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4) 저작 도구 편집기

본 저작도구에서는 주로 문자 정보와 그림 정보의 생성을 지원하며, 멀티미디어 정보의 생성 및 편집 기능은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새빛에서는 코스웨어 개발시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생성과 처리는 외부 편집기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각종 형태의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문제은행 처리 및 라이브러리 관리기

새빛은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은행 처리기와 각종 유형의 객체들을 관리하는 라이브러리 관리기를 포함한다. 문제은행 처리기는 학습 평가에 필요한 다량의 문제를 미리 만들어서 저장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 라이브러리 관리기는 프로그램 개발시에 필요한 그림이나 소리, 동영상, 애니메이션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문제은행이나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정보들은 외부 파일로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자는 필요한 내용을 불러서 목적에 맞게 임의로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수정된 내용을 새이름으로 저장하여 놓고 추후에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

5) 출력 제어기

새빛은 학습 자료 생성 및 편집뿐 아니라 만들어진 학습 자료의 실행에 필요한 각종 멀티미디어 장비들을 지원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문자와 그림으로 이루어진 코스웨어는 기본적으로 마우스와 자판을 이용하여 생성할 수 있지만, 소리나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학습 정보 생성이나

실행시에는 여러가지 주변 장치가 필요하다. 코스웨어의 생성 및 실행을 위하여 새빛이 지원하 는 외부 장비에는 CD-ROM 드라이브,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 (LDP),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VTR), TV 수신기가 포함된다. 한편 프린터와 같은 출력 기기를 이용하여 생성된 코스웨어의 흐름도 및 화면을 출력할 수 있다.

3) R-단추 메뉴의 구성

R-단추 메뉴는 저작 중에 사용빈도가 높은 메뉴들만을 모아서 별도로 구성한 메뉴로서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화면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R-단추 메뉴의 구성은 [그림 4]와 같다.

<p>일반 객체 숨기기 배경화면 열기 배경화면 저장 저장 실행 현재화면 실행</p>
<p>복사 붙여넣기 뒤로 보내기 앞으로 보내기 글꼴</p>
<p>복귀</p>

[그림 4] R-단추 메뉴의 구성

IV. 결론

교육용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인 새빛은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자가 아닌 현장교사 및 초보자들도 그림, 소리,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포함하는 코스웨어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빛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채택하였으며, 로직 구성은 흐름도 방식을 사용하였고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였다. 특히 문제처리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문제은행 편집기의 기능을 타 저작도구에 비해 훨씬 강조하였다. 즉 학습 문제의 유형을 정·오형, 단답형, 선다형, 연결형, 선택형, 이동형으로 나누고 이에 따르는 정답처리, 피드백, 정답제시, 도움말, 학습결과 보존기능 등을 각각의 문제마다 제시하였으며, 전체문제를 하나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조건에 따라 다양한 수준과 유형의 문제들이 출력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로직, 화면, 객체들을 라이브러리 및 배경화면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저작시간의 단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

에도 모든 객체에 나타나기 효과, 사라지기 효과 등과 같은 다양한 객체 속성을 정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편집, 상호작용, 조건 분기, 조건 반복 분기, 묶음, 변수사용, 객체처리, 주석창, 구문 등 저작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흐름도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명령어와 함수들을 이용할 수 있는 구문처리 기능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현재 교과용 도서에 들어 있는 그림들과 필요한 각종 소리를 라이브러리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GREAT가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매우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의 개발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본 저작도구를 이용하여 현장 교사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교육용 멀티미디어 프로그램들은 학교 컴퓨터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 멀티미디어 학습 사회를 실현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순수한 국내 기술로 개발된 새빛은 저작도구의 국산화를 통한 무역 수지개선과 교육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말레이시아의 교육발전 전략 비전 2020

장 석 민

I. 들어가는 말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정치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고도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경제 발전과 국가 발전에 자신감을 얻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Vision 2020라는 의욕적인 장기 국가 발전 계획을 국내외에 공포하고, 국제적으로는 독립 국가로서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 국제적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의 뜻과 힘을 결집하여 사회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Vision 2020의 핵심은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를 완전한 선진공업국으로 발전시키고, 아시아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Mahathir 수상 정부는 “말레이시아 전진의 길”(Malaysia: The way Forward)이란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러한 발전 계획의 성취를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자문 활동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미국의 Harvard대학, 세계은행, 일본, 대만, 독일, 영국, 한국 등에서 10여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히 Vision 2020의 교육 부문 계획을 중심으로 비판과 검토를 받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필자는 직업·기술 교육의 전문가로서 초청되어 경제 산업 발전과 관련한 교육 문제의 자문 활동을 수행하였다. 자문 회의는 말레이시아 교

육부 장관인 Najib 박사 및 주요 간부들과 국제 전문가들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많은 내용이 진지하게 토론되었지만 여기에서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교육 부문의 발전 계획만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II. 말레이시아의 개관

말레이시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이 나라의 면모를 간단히 살펴본다. 말레이시아는 13개주와 2개의 독립영토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1942년 일본의 점령이후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1957년 독립하였다. 연방을 대표하는 국왕은 5년마다 각 주의 왕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연방 정부는 의회에서 선출된 수상에 의하여 운영된다.

말레이시아는 인구가 약 1800만이며 국토 면적에 비하여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국가에 속한다. 인종은 말레이족, 중국계, 인도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말레이어가 공용어로 그리고 이슬람이 국교로 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아직 농업위주로 되어 있으며 농산품이 전체 수출액의 반을 차지한다. 농업은 GDP의 16%, 전체 고용의 26%을 점한다. 광

물, 원유 및 LNG가 주요 수출품이며 이 분야의 고용은 0.6%에 지나지 않으나, 수출액의 비중은 전체의 12%를 점한다. 제조 공업은 1960년대부터 발전 계획을 추진하여 1980년대 GNP의 19.6%를 점하였으나 현재는 30%를 상회하고 있다. 제조 공업은 급속히 발전되고 있으며 전체 인력의 20%를 고용하고 있고, 섬유, 신발, 가전제품, 석유화학 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90년대부터 자본과 기술 집약 산업 발전에 역점을 두어 왔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서두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서 조화된 통일국가 유지를 사회·경제적 발전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 발전의 목표와 원칙을 RUKUNEGARA라는 국가 발전 현장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RUKUNEGARA는 말레이시아의 국가 발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전국민의 위대한 통일국가 성취
- 민주생활 방식의 정착
- 부가 균배되는 정의 사회 구현
-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 전통의 보장

그리고 RUKUNEGARA는 위와 같은 국가 발전 목표를 성취하되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 하느님에 대한 믿음
- 국왕과 나라에 대한 충성
- 헌법의 수호
- 법규의 준수
- 선행과 도덕성

말레이시아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교육은 많은 뒷받침을 해왔다. 이러한 교육적 노력으로 전국민의 문해율은 현재 80%를 넘게 되었고, 초등학교는 거의 100%의 취학율을 보이고 있으며, 96%의 초등학생들이 정부의 보조에 의하여 공부하고 있다. 중학교로의 진학율은 84%에 이르

나, 대학 진학율은 7%로서 아직 낮은 수준이다. 말레이시아는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Ⅲ. 교육 발전 전략의 주요 내용

1. 국가 발전의 비전

말레이시아의 목표는 2020년까지 완전히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비전 2020」는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가 인종 문제를 해결하여 완전히 통합된 국가를 이루면서, 탁월성을 추구하고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고 다른 국가의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심리적으로도 자유롭고 안정된 국민들을 육성해야 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독립국가로서 성숙된 민주사회 특히 과학·기술 문명 사회를 이룩하고, 확고한 복지 사회 및 문화 국가를 이룩하려 하고 있다.

1990년에서 2020년 사이 30년간 10년마다 말레이시아는 경제 규모를 배가시키고자 하는데 이는 연간 평균 7.168%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다음 세대까지 말레이시아는 급속한 경제 발전에 기초하여 번영된 사회를 이루어 오늘날 다른 어떤 국가가 누리는 것 보다도 더 높은 삶의 표준을 갖게 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말레이시아는 공정하고 균등한 부의 분배를 이루고 모든 국민이 완전히 경제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려고 의도한다.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야심찬 목표는 경제, 정치, 사회, 심리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인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 대도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다음 사반세기에 걸쳐서 말레이시아는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전에는 감히 꿈도 꾀 보지 못한 성과를 성취해야 할 것이고, 새로운 도전을 국가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이전에는 결코 예견하지 못한 속도로 국가 발전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는데 말레이시아는 교육

의 결정적 역할을 기대하고, 이에 따라 「교육 2020을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의 대도약을 꾀하고 있다.

2. 교육에 대한 기대

말레이시아 교육은 「비전 2020」이 “제 3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 체제 가운데 하나”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 처럼 긍정적이지만 교육의 질적·양적 측면, 교육 경영 측면 등에서 개선되어야 할 여지도 적지 않다.

앞으로 사반세기의 말레이시아의 성공과 실패는 형식 교육 체제 -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폴리테크닉스 및 기타 직업교육 기관의 역할에 크게 달려 있다. 그리고 「비전 2020」가 의도했거나 분명히 진술하지 않았지만 바람직한 많은 결과들을 성취하는 것이 말레이시아의 중요한 교육적 과제이다. 말레이시아의 교육체제가 이러한 결과들을 성취해낼 수 있고 그 중 학교 교육이 상당 부분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 종교 기관 및 의식, 노동 조합, 스포츠 클럽, 동료 집단, 노동 기관 등은 가치와 도덕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비형식 교육기관을 통하여 국민 각자가 자신의 개인적 발달에 책임질 것을 기대한다.

말레이시아는 외국에서의 교육 기회와 기관을 충분히 이용하여 말레이시아가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개방적 태도를 견지한다.

3. 교육의 기본 목적

말레이시아는 주요 교육 목표를 다음 3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로 탁월한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다. 탁월한 인간은 종교적·도덕적·윤리적 가치를 갖고 있고, 적극적 태도·용기·높은 성취동기를 지니고 있으며, 자신감·자기동기·자기신뢰감·자아실현 욕구를 갖고 있고, 교양과 인격을 갖추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가정에 헌신하며 수월성을 추구하는 윤리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을

뜻한다.

둘째로 세계적 수준의 노동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가 요구하는 세계적 수준의 노동력은 세계 최고의 노동 윤리를 지니고, 읽기·쓰기·셈하기·의사소통 등 필수적인 생활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컴퓨터에 유창한 특성을 나타내야 한다. 그리고 창조적·진취적이고 유식하고 혁신적이며, 과학 기술에 대한 열정과 매력을 갖고 있고, 신속한 훈련과 재훈련, 재응답이 가능하며, 새로운 기술과 직업적 요구에 대하여 신속히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우기, 말레이시아인의 세계주의적인 복합 문화의 장점을 이용하여 문화적·지리적 국경을 초월한 노동력과 탁월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로 질높은 시민의 육성이다. 질높은 시민은 복지 문화를 소유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할 줄 알고, 애국심과 민주주의 윤리 의식을 갖고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공적인 봉사에 성의를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탈봉건적 생각과 태도를 소유하고 있고, 겸손하며 자유롭고 관용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4. 교육 발전의 준거 및 성취 기준

이상의 세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안 말레이시아의 교육 체제는 평등과 사회정의의 준거 및 효율성과 효과성의 준거에 대하여 항상 유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가지 준거의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교육은 경제적 이익의 중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발전은 국가 구성원의 평등과 사회정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교육 투자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전에 없던 많은 교육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으로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견우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준거에 따라 말레이시아가 교육발전을 위하여 취하고 있는 모든 계획과 행동의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첫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교육의 질에 관한 대도약이다.
- 두번째 기준은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학교에 다니는 학생 취학율의 획기적 제고 즉 교육의 양적 대도약이다.
- 세번째 기준은 세계적 수준의 교육경영, 훌륭하게 조직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변화하는 요구와 상황에 날카롭게 대응하는 교육체제의 수립이다.
- 끝으로 질높은 시민의 육성, 탁월한 인간의 육성, 세계적 수준의 노동력 창출 그리고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세계적인 수준의 교원 양성이다.

5. 교육 발전 전략과 정책

앞서 제시한 네가지 주요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교육 발전 전략과 정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의 질적 도약

교육의 질에 관한 도약과 특별히 관련된 전략과 정책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훈육과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교실은 혁신적, 창조적, 진취적, 적극적 사고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 초·중등 학교 및 직업 학교의 전체 연간 수업시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 사학의 경쟁은 교육의 질이 유지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2부제 운영으로부터 1부제 학교(single session school)로 신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 의사 소통, 조작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
- 1997학년도 말까지 모든 중등학교 졸업생 100%가 컴퓨터 교양을 갖추고 1999학년도 말까지 모든 중등학교 졸업생중 최소한 20% 이상이 컴퓨터에 능통하도록 한다.
- 모든 말레이시아인은 표준(Bahasa Malaysia)

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2005년까지 대부분의 대학 졸업생들이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문화적·지적 또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다른 외국어에 대하여도 기본적인 소양을 갖게 한다.

- 2005년까지 국내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한 학생들 가운데 최소한 50% 이상이 과학, 기술 및 공학 분야를 전공토록 한다.
- 사교육과 공교육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교육기관간의 질적 경쟁을 통하여 성취 기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
- 2010년까지 초등학교 교사의 30%, 중등학교 교사의 80% 이상은 대학졸업자로 채용한다.
- 가장 생산적인 학급 크기 및 교사/학생 비율을 보장한다.
- 중등학교에서는 최대한 빨리 전공자가 교과를 가르칠 수 있게 한다.
- 재능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수재학교를 세운다.
- 중등학교에서 과학계통의 학생수를 대폭 늘린다.
- 대학교 및 폴리테크닉은 산업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2) 교육의 양적 도약

교육의 양적 도약 즉 학교 취학 학생수의 확대를 위한 핵심 전략과 정책은 다음과 같다.

- 모든 말레이시아인이 교육의 혜택과 동시에 받지 않을 경우 초대되는 불이익을 이해하도록 하고 교육과 HRD의 중요성을 이해시킨다.
- 의무교육(초등학교와 중학교)법을 시행한다.
-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사적·공적) 교육비 대부 제도를 수립하여 필요한 경우 모든 말레이시아인에게 융자 혜택을 준다.
- 모든 교육 대부금을 우수한 학생에게는 순수 장학금으로 바꿔주는 제도를 만들고 충분한 장학금을 확보한다.
- 기존 학력이 부족한 경우를 포함하여 성인 학

생들에게 고등 교육 기회를 개방한다.

- 원격 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
- 사립 학교는 그 교육 기회를 대폭 확장하고 사회의 요구를 수용한다.

3) 교육 경영과 전문화를 위한 도약

세계적 수준의 교육 경영과 전문화 구축에 관한 핵심 전략과 정책은 다음과 같다.

- 학생의 모집, 배치, 훈련 및 진급은 순수하게 교육 과정적 기준에 기초하여야 한다.
- 국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국가 목표와 교육 성취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립학교 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 교육적 의사결정의 지방 분권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 교육부는 효율성, 효과성 및 관료적 현대화의 모형이 되어야 한다.
- 학교 행정은 완전히 전문화되어야 한다.
- 현재의 비효율성(부적절한 교사/학생 비율 등)과 인구와 교통 여건의 변화 및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학교의 배치와 규모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4) 세계적 수준의 교직으로의 도약

세계적 수준으로 교직을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책은 다음과 같다.

- 교사의 사회적 위치와 지위는 다양한 조치에 의하여 획기적으로 높여져야 한다.
- 교사 및 대학교원의 보수 및 근무 여건은 가르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직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력적으로 높여야 한다.
- 가장 매력적인 교원 양성 및 현직 연수 프로그램은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 교사 훈련 기관은 국가적 공지와 탁월성을 심어주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 교사와 강사는 새로운 학문적 발전을 익히고 정기적으로 능력에 대하여 평가받고 자격과 능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IV. 맺는말

말레이시아 또한 우리가 과거에 겪어 왔던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여 고민하고 있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는 생산적인 국민의 양성을 위한 기초 핵심 기능의 교육, 도농간의 교육 격차 해소, 산업 발전을 위한 과학 기술 인력의 양성,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비형식 교육의 활성화, 교사의 지위 향상, 교육 기회의 공평한 제공, 교육의 질적 수월성 추구 및 국제화 추진 등 많은 문제 해결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교육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공립 위주의 학교제도로부터 사립학교 설립을 촉진하는 방안, 사립대학 교육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의 자율 운영이 가능하도록 독립 법인화(Corporatization)하는 방안 등은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듯 하다.

말레이시아는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도전적 목표와 발전 전략을 세워 놓고 국내외적으로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지혜를 결집하고 있다.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의 진지한 자세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계적인 안목에서 지혜와 경험을 구하려는 노력에서 말레이시아의 미래를 밝게 느껴 보았다. 다른 한편, 지금까지의 발전에 만족하고 잠시라도 안주하게 된다면 말레이시아와 같은 후발국가들의 발 빠른 추격에 그들을 자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낙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분발이 필요함을 생각해 보았다. ☹



장 석 민

- 공주사대 교육학과 졸업
- 미국 오하이오수립대 대학원 졸업 (철학 박사)
- 본원 직업기술교육연구본부장
- 「기술교육모형연구」,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개방 중국의 교육 비전과 교사교육의 전망

김 혜 숙

'21세기의 교육 전망 : 초등교사 교육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었던 (1995. 10. 24 - 26)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계기로 상해지역을 중심으로 개방 중국의 교육 비전에 대하여 알아볼 기회를 가졌다. 상해시 교육위원회와 독일의 한스자이델 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한국 외에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홍콩의 동아시아 7개국이 참가하여 각기 자국의 초등교사 양성 및 현직 연수에 초점을 맞추어 21세기의 교육 전망을 논의하였다. 중국에서는 북경의 국가교육위원회, 오지인 신장성을 비롯한 각지에서 대표가 참석하였고 독일의 바바리안주 대표는 독일 교육에 대하여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선진국의 교육개혁, 교사교육 등에 대한 정보에 귀기울여 왔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권에서의 미래 준비를 위한 움직임과 노력에는 다소 무관심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 그들의 문제의식과 변화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은 중요한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 교육에 대한 진지한 탐색을 시도하였던 이번 대회에서는 21세기의 교육 전망을 논의함에 있어 교사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이 논의되었고 효과적인 교사양성 및 연수의 문제가 새삼 부각되었다. 그리고 21세기에 기대되는 미래 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교육의 양적·질적 수준이 일취월장하여야 한다는 강

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회의 개최되었던 상해는 중국 개혁과 개방의 선도적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상해를 전진기지 삼아 전 중국을 개방화·선진화하여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다소는 쇼우 케이스같은 느낌이 드는 측면이 있으나, 이 지역의 교육을 다른 지역의 발전 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교육의 미래 모습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직접 체험한 개방도시 상해 교육의 제도와 변화 움직임, 그리고 초등교사 교육의 전망과 전략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상해교육을 통해 본 중국교육의 비전

상해는 인구 1,300만의 대도시로서 중국 최대의 경제 중심지이며 개방도시이고 문화와 교육 부분에서 가장 개발된 도시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곳이다. 3,000개 이상의 초·중등교육기관, 500개 이상의 중등기술교육기관, 50개의 고등교육기관, 2,000개 이상의 사회교육기관으로 구성된 잘 짜여진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다. 상해에만 81개국으로부터 1,000명 이상의 외국인 학생이 유학하고 있으며 연간 2,00만의 성인이 사회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대학입학시험 개혁 부문에서도 중국을 선도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교육자

들 사이에서는 교육이 사회주의적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Education must serve for socialist construction) 생산적인 인력 (productive human resources)을 길러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지나칠 정도로 확고해 보였다.

중국에서는 1985년에 통과된 법률에 의거하여 초등 및 중학의 9년이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해 지역 성인중 99%가 9년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을, 71%가 고등학교 수준까지의 교육을, 그리고 12%가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상해 주민의 평균 교육연한이 9년을 넘고 1991년에 취업한 근로자의 2/3가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직업·기술교육을 받음으로써 중국 전역에서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이같이 높은 교육 수준이 상해의 경제·사회적 개발을 촉진하는 원동력이라고 입을 모은다. 교육제도는 3년의 유치원, 6년의 초등교육, 3년의 중학교육, 3~4년의 고등학교 교육, 2~4년의 대학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는 3년제의 일반고등학교와 3~4년제의 직업·기술교육기관으로 나뉘어져 있다. 대학 역시 4년제가 있는가 하면 2~3년제의 초급대학도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답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기관의 100%가 공립이나 유치원의 경우는 80%가 공립이고 20%는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50개의 대학은 시교육위원회와 지방정부 관련 부처가 설립·운영하는 곳이 각각 22개씩이고 6개는 하급단위의 지방정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고등교육기관 전체를 중앙정부가 아닌 시교육위원회 및 시정부가 관장한다는 점이 우리와의 차이점이다.

9년 의무교육제에 따라 취학률은 초등학교 100%, 중학은 99.0%이고 졸업률은 초등이 99.0%, 중학은 98.6%에 이른다. 의무교육후 고등학교 진학률은 76%로서 나머지 24%는 중학교 졸업 후 직업의 세계로 진출하게 된다. 고등학교 진학자중 약 42%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약

16%는 4~5년제의 전문기술고등학교 (professional technical secondary school)로, 약 20%는 2~3년제의 기술훈련학교 (training school)로, 약 23%는 2~3년제의 직업고등학교 (vocational secondary school)로 4분된 진로를 갖는다. 직업·기술교육의 핵심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지면서 이들 학교의 2/3가 경제관련 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3세-5세 아동의 유아교육 취학률은 도심지역에서는 100%, 교외지역의 경우 8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수교육 취학률은 9년 의무교육기간 동안 10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교육열이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지만 중국의 교육열 역시 그에 못하지 않은 것 같았다. 한자녀 낳기의 영향으로 대학교육을 시키려는 부모의 교육열은 어느 자본주의 사회 못지 않았고 거기에 경제 부흥의 원동력을 산출해야겠다는 교육자들의 의지가 합쳐지면서 교육의 현장은 활기와 박진감에 넘쳐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교육과정 운영을 보면 국민학교 4학년의 경우 45분 수업을 월-금까지 6시간씩 하고 토요일에 4교시 수업을 진행한다. 중학생은 주당 30-33시간, 고등학생은 주당 28-34시간의 수업을 받고 있다. 학급크기는 중국 전체가 약 1:23으로 양호한 편이며, 3대 도구과목으로 중국어, 수학, 외국어를 설정하고 초등단계부터 이들 과목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점이 인상적이다.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이나 되고 아침과 휴식시간에 우리의 보건체조류의 운동시간이 들어 있는 점 또한 특이한 모습이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교육에 관한한 지방분권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의무교육기간, 교육과정의 운영 등 상당히 획일적인 측면이 있으면서도 중앙정부와의 거리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인지 상해같은 광역시 또는 성 단위에 대하여 중앙 정부의

교육행정 간여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의 공교육비가 지방 정부 차원에서 조달되고 있는 점이 그러한 특성을 반영한다. 1991년의 경우 상해시 정부 예산의 약 16%가 교육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실례이다. 그러나 지역권 내에서는 매우 집권화된 교육행정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상해지역의 경우 교사 및 교장임용, 교육과정 및 교과서 등 하나에서 열까지 시교육위원회 등에 의한 획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해 지역 내에서의 교육행정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해가 쉽지 않다. 즉 교육의 전문기능적 측면에서는 상해시 교육위원회가 총괄기관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상해시 지방정부가 초,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상부기관으로 위계화되어 있는 것이다. 시정부 내 '교육 및 보건' 담당 부처의 하부 조직인 '(초중등)교육국'과 '고등교육국'은 상해시 교육위원회와 업무상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 '노동국'은 직업·훈련 관계를 총괄하면서 역시 시교육위원회와 업무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비는 사회주의 국가인만큼 의무교육이 무상인 것은 물론 대체로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시정부가 지출하는 교육예산은 유아교육에 6.0%, 9년간 의무교육에 44.0%, 고등교육에 36.7%가 사용되고 있어 대학생 1인당 교육에 초등학생의 10배 이상 투자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생들은 일정액의 장학금을 받아 이를 다시 학비와 기숙사비의 형태로 지출하게 된다. 많은 학교가 자체공장이나 사업을 운영하여 교육위원회 등에서 지급하는 기본 경비 외의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서구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상해 제2중점소학교, 제2사범학교, 제1사범학교, 카오양직업기술학교 등의 초·중등학교와 후단 대학교, 동지대학교, 화동사범대

학 등 상해지역 각급학교를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고등학교 수준의 상해 제2범학교를 예로 들면 800명의 학생규모에 시설·설비 수준이 현대적이거나 첨단은 아니었지만 정돈된 분위기에서 열심히 교육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교직원들은 교사의 질을 높임으로써만이 교육의 질을 높일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표시하였다.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은 붉은색의 삼각건을 목에 매고 있었는데 이는 인공기의 귀퉁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제1사범학교는 건축관계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직업기술고등학교는 커다란 식당을 학생들의 실습 겸용으로 운영하고 있어 앞에서 말한 학교경영의 자활적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도 농촌 인구가 지난 15년간 4천만명이 줄어드는 등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교육의 도시집중 현상, 농어촌 교육의 폐쇄현상 등 적지않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아직은 우리의 70년대가 느껴질 정도로 어떠한 목표를 향해 부단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학교와 교육위원회 방문을 통하여 현장에서 느꼈던 점은 교육에 대한 그들의 의심 없는 열성과 활기가 부러울 정도라는 것이다.

상해교육을 통해 본 중국 교육의 미래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주민, 비교적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 직업·기술교육의 발달,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교사와 학생들, 교육의 공적 책임 달성, 교육에 대한 신뢰 등의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믿음, 경제 발전으로의 연결 기대 등을 저변에 깔 교육열이 사회주의 체제의 잇점으로 주어진 높은 교육 수준에 덧붙여짐으로써 중국교육의 미래가 매우 희망차게 보이는 것이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배우고 가르치는 태도가 매우 긍정적·열성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 엄청난 잠재력에 순간적인 두려움마저 느낄 수 있었다.

중국 교사교육의 전망과 전략 중국에는 현재 초등학교 교사만 약 5백5십만 명이 있으며 그중 4.5%만이 2년제 초급대학 수준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상해만 하더라도 현재 대부분의 유치원 교사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았고, 초등학교 교사는 약 87%가 의무교육 9년 + 2~3년제 사범학교, 합해서 11~12년의 교육을 받았으며 초급대학 교육을 받은 교사의 수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학교 교사는 3/4이 초급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고등학교 교사는 반수 이상이 4년제대학 교육을 받았지만 초급대학 출신자도 1/3 이상이다. 교사의 자격 요건에 관한 법률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지만 유자격자는 학교급에 따라 70~80%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사의 직전 교육연한을 확대하고 교사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국교육의 커다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초등교사의 교육연한을 초급대학 수준으로 확대시키려는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상해시 인민위원회와 정부는 2010년까지 국제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교육자체가 하나의 산업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일류의 도시에 걸맞는 일류의 교육을 세우자”는 운동과 함께 ‘교사 자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해시교육위원회는 2000년, 2005년, 2010년의 단계별로 교원 양성 및 활용의 목표를 설정하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그 1단계인 2000년까지 초급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은 교사의 수를 5%에서 6.5%로 올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필자가 방문하였던 사범학교들은 현재의 고등학교 수준에서 조만간 초급대학 수준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직전 교육연한의 확대와 함께 교원연수원, 대학 등지에서의 교원연수를 통한 자격부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격부여를 위한 다양한 수

준의 집중적 연수외에 승진 연수는 30일간 180시간, 일반 연수는 10일간 60시간씩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원연수가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중국에서도 강조되고 있었다.

교사의 정년은 남자 60세, 여자 55세로서 빠른 편이고 남녀간 차이를 두고 있다. 교사봉급은 월 400~500원(대학교수는 500~1200원)으로 500~600원을 받는 상대 졸업생만은 못하지만 괜찮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교사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위는 동양권의 일반적 특징으로 아직은 열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수학생의 교직 유인을 위하여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목할만하다. 즉 일반계 대학생은 연 10개월간 월 33원씩의 장학금을 받지만 사범계 학생은 월 66원을 받는다. 학비는 사범계 학생의 경우 연간 250원이나 비사범계는 500원이고, 기숙사비는 사범계가 연 80원인데 비해 비사범계는 160원으로 국가가 교원양성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

교장의 선발 및 임용은 대단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5년 이상의 교사 경력 자증에서 교사평가 결과와 연수실적을 감안해 시교육위원회 또는 구단위 교육위원회의 인사담당 부처가 1차로 예비 후보자를 선발한 후 사범대학이나 교원연수기관에 보내 1년간 집중적인 훈련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교장자격을 부여한 다음 2~3년을 기다린 후에야 교장으로 발령받도록 하고 있다. 35~40세면 교장이 될수 있으며 초등학교 교장의 약 90%가 여성이고 중등학교도 약 50%가 여성이라고 한다.

중국 교육제는 창조적인 교사만이 창조적인 학생을 길러낼 수 있으며 교사의 과제는 미래사회의 도전에 과감히 대응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기르는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미래교육의 요구에 걸맞도록 새로운 유형의 교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각성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체 교원

의 교육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사교육의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1) 다가올 세기에 대비한 전환적 사고의 명시화 : 교육이 현대화의 추세와 전 세계 및 미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사들은 현재의 중국 상황에 필요한 지식을 알아야 한다. 현대 교육의 요구, 전세계 교육의 상황과 변화, 미래교육의 변화 추세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초급대학 수준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핵심교사제' 운영 : 젊은 층 또는 중간 연령 층 교사를 중심으로 '핵심교사제'를 운영한다. 핵심교사란 교육 수준에서는 다른 교사들과 같지만 연구에 깊숙히 관여하는 연구교사와 전문교사를 가리킨다. 상해정부는 핵심교사 양성을 위하여 '이론-실천-교과'가 연결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교사 예비생들은 대학, 교원연수기관 등의 전문가들로부터의 1대1 또는 복수 지도하에 수차례 반복하여 현장과 이론을 접목시키는 논문을 제출하고 지도를 받으며 다시 현장에 적용하는 훈련을 2~3년간 집중적으로 받는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핵심교사들은 그들이 속한 기관의 지원하에 각종의 과업을 부여받는다. 이 제도는 핵심교사를 훈련해낼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의 개혁을 위한 연구결과를 산출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3) 교사의 질적수준 및 전문성 신장 강조 : 도덕과 재능, 지식과 능력간의 균형적 관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교사의 이념적, 전문적, 심리적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초급대학 및 4년제 교사양성 대학은 교사들의 전문성을 기른다는 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현직연수 확대 : 현직연수가 개별성을 가지도록 운영되고 자기연수가 촉진되어야 한다. 상해에서는 새로운 연수모델인 '학점제'가 채택·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면대면 교육은 물론 원격교육, 자기연수 및 시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점제는 심리적, 물리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발

성을 중대시킴으로 매우 적합한 제도로 인식되어 확대되고 있다.

(5) 교원 보상 및 격려체제 확립 : 초등학교사들도 초급대학 수준의 고등교육을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초·중등교사 및 대학교수 사이의 질적 차이를 감소시킨다. 앞으로 연수 성적이 좋은 교사와 한 등급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교사들에 대하여 재정 및 인사 측면에서 보상하는 체제로 나아간다.

교사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포부는 단순하고도 확실하다. 교사교육의 연한과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같은 포부를 가지고 계획을 추진중인 만큼 다른 나라의 교사교육 경험을 통하여 배우고 자신들의 개혁 방향을 확인·점검해 보겠다는 의지가 돋보였다.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로서 확고한 지식, 육체적·심리적 건강 외에 좋은 품성과 행동, 교육에의 헌신과 근면, 법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인간성을 들고 있는 점에서는 중국과 우리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였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중국에서도 교사가 평균 또는 그 이하의 학업능력을 가진 학생들로 충원되고 있으며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교직의 여성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앞으로 중국의 교사교육 수준이 한단계 높아지게 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하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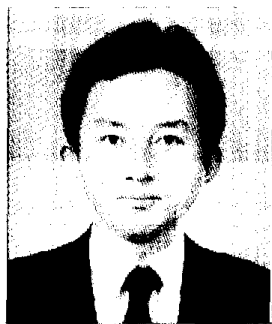


김혜숙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미국 유타대학교 대학원 졸업 (철학 박사)
- 본원 교육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원
- 「교육의 세계화 구상」 외

포스트모더니즘과 교육

최 증 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졸업
—미국 미주리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정책조사관

I

1980년대 이래 서구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과 관련한 논의가 예술, 문학 비평, 철학, 문화 연구, 여성학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어 왔으나 교육 이론과 실제에서는 여전히 근대성(modernity)에 기초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스피노자는 “나는 진리를 알고 너는 모른다면, 너의 생각과 사고 방식을 바꾸려는 것은 나의 도덕적 의무이다. 내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잔인하고 이기적이다.”고 했는데, 이 말 속에 들어 있는 교육의 관념은 근대성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몽과 해방을 위한 교육의 필연성과 역사적 사명임이 분명하다.

즉 역사적으로 교육은 근대성의 큰 이야기--비판적 이성, 개인의 자유, 진보와 인류 발전이라는 계몽주의의 이념들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를 지배하여 왔던 큰 이야기가 이제는 더 이상 타당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근대성에 내재한 문제와 부작용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기에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과 연관된 교육학에서는 근대성의 전통에 젖어 있던 교육에 대하여 전혀 새롭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II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 진보, 해방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근대성의 이념을 해체하고 그 속에 매몰되어 버린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이질적이고 특징적인 담론들을 복원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근대성 비판은 모더니즘의 인식론적 기초로서 메타 이야기(metanarratives)에 대한 거부, 주체적 인간관의 해체, 역사적 법칙성에 대한 반발, 고급 문화의 대중 문화에 대한 우월성 부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 이후의 지식관과 사회 이론은 포괄적인 일반 이론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 우연적인 것들, 이질적이고 다양한 논의들을 지식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지닌다고 비판한다. 인간 이성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라 창출된 지식은 보편성과 객관성을 가진다는 믿음은 일상 생활의 특정성과 구체성을 부정하고 메타 이야기 속에 다양한 이질적 요소들을 추상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주의적이고 폭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과 합리성, 진리와 지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초를 거부하며 일상 생활의 담론이 가진 역사성과 우연성, 복잡성과 다원성, 가변성과 잠정성을 강조한다. 역사적이고 규범적이며 우연적인 것을 부정하는 포괄적인 사회 이론, 도덕 이론, 정치 이론이나 형이상학과 인식론적 관점-실증주의, 마르크스주의, 헤겔주의, 기독교 사상-이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담론으로서 진리에 대한 객관적인 메타 이야기라는 주장을 배격한다. 그러한 메타 이야기는 다른 모든 담론들을 평가하고 특징짓고 자리매김하고, 그 자신은 역사성이나 우연성에 초월한 제일의 담론임을 전제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전체주의적이며 상징적으로는 폭압적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메타 이야기라는 것도 규범적 이해 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으로 특정한 권력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담론으로서 이데올로기적 표현으로 간주한다. 초월적이고 선형적인 이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지식이란 것도 언제나 권력과 맞물려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합리성과 지식을 하나의 특별한 사회적 권력의 형태로서 다른 많은 형태의 담론들을 배제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한다. 푸코(M. Foucault)는 중립적, 객관적 지식관을 부정하며 지식의 생성은 권력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규율적 권력은 수용소, 병원, 학교, 감옥에서 개인들을 통제하고

검사하여 새로운 지식의 대상을 만들어 내고 그 지식을 통해 권력은 보다 효율적으로 행사된다. 달리 말하면, 권력은 지식없이 행사될 수 없고, 권력의 창출 아닌 지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학교에서의 교육 내용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나 지식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매우 특정한 방향에서 권력과 지식을 연계시킨 사회적·역사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다른 특정한 담론들이 무시되거나 배제되어 있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은 그 가치가 인정되지 못하고 종속되어 온 지식(subjugated knowledge) 형태들을 역사의 표면으로 끌어올려, 그들의 목소리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푸코의 주장은 교육 내용의 비판과 재구성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계몽주의적 이성의 절대성에 대한 비판은 주체적 자아관의 해체로 이어진다. 계몽주의적 이성관은 모든 사람은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능력은 인간의 인식과 행위의 원점이며 그 능력을 바로 쓰면 자연과 사회,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고 이 근거 위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인간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이러한 믿음 아래 인간의 주체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불변적 본질을 지닌 자아로 이해된다. 따라서 개인적 주체야말로 모든 지식의 근원이며, 그의 세계관은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의 이성 능력의 발휘를 통하여 형성된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은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는 보편적 이성의 능력이란 것이 어떠한 외적 준거도 없는 특정 시대, 특정 사회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주체적이고 본질적인 자아관을 거부하며 오히려 자아는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환경에서 담론과 권력 관계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푸코는 권력이 지식을

만들어 내고 인간의 주체까지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주체의 해체를 시도한다.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푸코는 권력이 인간을 규율하고 억압하며 통제하는 부정적 힘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 관한 지식과 인간 그 자체를 산출하는 생산적·적극적 기능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권력의 감시망 아래, 죄수, 환자, 학생, 군인들은 일상 생활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감시, 관찰, 통제, 분류, 조사당하고 있다. 그 결과 증대된 개인들에 관한 지식으로, 규율적 권력은 좀더 효율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지켜보고 통제할 수 있게 되고, 권력은 훨씬 강대해진다. 그러한 체계 아래 개인들은 그들 스스로 항상 감시당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개인들은 권력의 통제 메카니즘을 내면화하고 감시자의 기대에 따라 그들의 주체를 형성해 간다. 개인의 주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정한 권력의 기법에 의하여 구성된 실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자체는 결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의미 창출의 주체가 아니라 특정한 권력과 담론 구조에 의하여 산출된 역사적 구성물인 것이다.

근대적인 주체적 자아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그 해체를 선언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장은 ‘주체의 소멸’, 또는 ‘규율적 권력에 길들여진 유순한 몸’으로 표현되는 주체에 대한 비판적 전망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푸코는 권력이 있는 곳에는 항상 저항이 있다고 함으로써, 주체가 그 자신을 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한 주체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본질주의적 자아로의 회귀가 아니라 여전히 사회적인 담론 체계에 구속되고, 권력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체감 형성에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학생들의 주체는 다양한 사회 형태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권력은 어떻게 지

“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 진보, 해방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근대성의 이념을 해체하고

그 속에 매몰되어 버린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이질적이고

특정적인 담론들을

복원시키려고 한다.

”

식을 생산하고 조직하며, 지배적인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주체적 위치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어떻게 그들 자신의 목소리로 그들의 경험과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근대성의 담론 아래 유럽의 문화는 인류 문명의 정수로 여겨지고, 이른바 고급 문화는 일상적 대중 문화의 천박성과는 격이 다른, 문화의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문화 활동의 핵심이자 평가 준거로 규정되며, 문화의 장은 조화와 균형이라는 문화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영역으로 인식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모더니스트들의 문화관을 다양한 형태의 타자성(otherness)과 대중 문화를 업신여기는 자민족 중심주의와 엘리트주의 문화관이라고 비판하며, 대신에 문화를 사회적 역사적 구성물로 재규정하고 각 문화의 다양성, 복합성, 이질성은 제 나름의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의 문화 정치학(cultural politics of difference)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서구 문화의 정전성(正典性)을 거부하고 다양한 문화 형태들은 제각각 이질적인 역사성과 특정성을 가지는데, 바로 그 차이 때문에 각각의 생활 양식이 고유한 문화로서 인정받고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자민족 중심주의 문화와 가부장적 문화의 해체는 서구 문화의 전체주의 성격에 대한 포스트모던 전쟁을 뜻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화를 인류 유산의 불변하는 집합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 언어, 경험, 목소리들이 다양한 권력 관계 속에 혼합된 복합적이고 이질적인 요소들의 갈등의 장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차이의 담론은 문화를 공통된 경험의 장이 아닌 인종, 민족, 계급, 성별, 세대간의 특정한 지식과 경험의 생산, 정당화, 확산을 위한 투쟁의 장으로 규정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본질주의에 대한 공격은 모더니즘의 대중 문화에 대한 반감과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라는 엘리트주의적 구분의 거부로 이어진다. 보수주의자들은 대중 문화를 대중들의 속

물적이고 퇴폐적 근성의 표현으로, 또 문명 사회의 전통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화란 수단적 가치가 아닌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는 목적적 가치, 내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정당화된다.

좌파 이론가들(Horkheimer and Adorno)도 참된 문화란 인간 해방의 지고한 가치를 지닌 순수 문화로 자본주의 사회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재생산을 위한 대중 문화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의 지배 문화로서 고급 문화는, 혁명적 투쟁 양식과 전통 문화의 보존으로서 좌, 우파 모두에게, 야만적 형태로서 대중 문화에 대비되는 점에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모든 문화 형태를 연속선상에서 파악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은 고급 문화는 높은 가치를 지니고 대중 문화는 하찮은 것이라는 주장을 배격한다.

문화 생산의 특권 영역, 진리와 문명의 담지자로서 고급 문화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거부는 고급 문화의 문화적 실천들을 헤게모니의 발로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문화 연구는 대중 문화를 순응과 투쟁의 영역으로 보고, 그 영역의 구성 원리는 심미적 기준의 환원주의적 언어 속에서가 아니라 권력과 정치학의 담론으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중 문화는 분절되고 유동적인 주체들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복합적이고 모순된 문화 영역이다. 만약 주체가 항상 다양하게 위치지워지고, 파편화되고, 모순된다면 대중 문화의 교육적 실천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TV, 라디오, 잡지, 영화, 패션, 스포츠 등과 같은 대중 문화의 영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이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심 개념으로서 대중 문화의 중요성을 이론화할 필요가 있다.

III

포스트모더니즘은 교육 이론에 부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 준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교육자들에게 특정한 지식, 관념을 배제하려 하고,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고정되고 숨겨진 방법들을 의심케 하는 새로운 이론적 도구를 제공한다. 또, 포스트모더니즘은 교육자들에게 확실성과 절대성에 바탕을 둔 전체주의적인 이론을 비판할 수 있는 다양한 담론을 제공한다. 게다가 포스트모더니즘은 교육의 힘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우연적인 것, 특정한 것, 역사적인 것의 의미를 강조하는 담론을 제공해 준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차이와 정체성의 긴장 관계에서 표출된 새로운 차원의 복합적인 주체의 개념을 제공한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논의하는 대중 문화는 학생들의 생활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 요소이며, 학생들의 문화실천 능력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교육적 의미가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은 자유민주주의 담론의 핵심적 측면인 공공 생활, 평등과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는 모더니즘의 관념을 지나치게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보편적 진리를 거부하고 특수한 것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의 논의는 '디딤돌 없는 입장' 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하기'라는 표현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포스트모더니즘이 비판적 시민을 기르고 민주적 공공생활을 위한 교육에 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적 경향에는 모더니즘을 해체하고 현상 유지에 저항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을 배격하고 현상 유지를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저항의 포스트모더니즘)는 후자(반동의 포스트모더니즘)에 비해 민주 시민 교육에 발전적으

로 수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항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전통의 비판적 해체와 그 근원에 회귀하지 않으면서 그의 비판에 관심을 두고, 억압의 전반적 관계를 분석하는 수단으로 구조적 조직 수준의 거시 정치학적 접근과 억압의 상이하고 모순되는 상황에 관한 미시 정치학적 접근을 아울러 수행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문화 정치학의 형태로서 교육의 관념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요한 이론적 의미와 급진적 다원적 민주주의의 진전에 필요한 전략적인 모더니즘의 요소들을 결합해야 한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가장 민주적인 주장들을 확대해야 한다. 차이, 권력, 특정성에 대한 포스트모던 관념이 공공 생활에 대한 모더니스트들의 언어와 연결될 때 급진적 민주주의에서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 심화시키는 공공 철학의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자유, 정의, 평등의 모더니즘의 공중 의식과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강조하는 공동체 내의 복합적, 특정적, 이질적 생활 양식이 서로 배치되지 않을 때 다원적 급진적 민주주의는 확대될 것이다.

모더니즘의 제몽된 자아가 다양성, 역사성, 문화적 다원주의와 연관될 때,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은 복합적이고 모순된 방법으로 형성되는 주체를 이해하는 한 부분으로 인정된다. 결국 차이와 다원주의는 민주주의 원리를 다양한 이해의 등가성으로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한 다른 목소리와 전통들이 만발하고, 의사 교환과 삶의 행위가 민주적 공공 생활의 창출을 확대시키는 조건들을 유지하는 언어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은 민주적 공공 철학과 저항의 포스트모던 이론을 결합시켜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OECD, 그 현황과 교육연구 활동

홍 영 란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박사 과정 수료)
—본원 교육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원
—「통일대비 교육부문 대책종합연구」,
「남북한 학생과 주민의 통일사회적응 연구」 외

1. OECD의 성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회원국의 경제성장 촉진 및 세계 경제발전에의 기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다자간 자유무역 원칙에 의한 세계 무역의 확대 등을 목적으로 1961년 9월에 설립되었다.

현재 회원국은 25개국이며 이 회원국의 92년도 총인구는 849백만 명으로 전세계의 17.5%인 반면 92년도 총 GDP는 184,396억 달러로서 전세계의 86.2%를 차지하고 있다.

OECD는 선진국가 간의 경제협력기구로 그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분야만에 한정되지 않고 소비자 문제, 에너지, 고용과 인력 개발, 교육, 사회 문제와 건강, 기술과 산업 등 경제·사회·교육·복지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 협의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그 첫 번째 특성이 있다.

두번째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OECD가 '클럽(Club)'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화된 선진국간의 클럽으로서 또한 정부간의 상호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로서, OECD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방향으로 회원국간의 합의에 의해 제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클럽적 성격은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정보 격차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제공한다. OECD 활동의 핵심을 이루는 각종 회의의 자료를 위시하여 각 해당분야 정책 연구 자료들이 대부분 제한적 문서 형태로 제공된다. 이 문서들은 회원국간에만 유포되며 공식적 출판물로 발간하여 외부세계에 공개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셋째, 회원국간에 정책을 교환하고 전략적 협동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식으로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토의(discussion)의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는 철저한 서구적 회의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친 토의의 축적과정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한다.

치밀한 사전 준비 과정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토의과정은 주요 이슈에 관해 회원국간의 공통인식을 마련·확산해 가는 과정이 된다.

넷째는 유럽중심적(Eurocentric)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OECD는 유럽 국가간 경제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OEEC(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상당히 유럽 중심적 경향을 띄고 있다. 그러나 점차 비유럽국가들의 참여가 확대되어가는 추세로서 2000년대까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진적 국가들을 포함시켜 전세계적 기구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로 지적할 수 있는 특징은 서구식 합리주의와 지적 전통을 중시하는 의사결정 과정과 정책추진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합리성을 근거로 민주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논리를 상충없이 조화시킴으로써 국제 질서를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OECD가 지향하는 근본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원국간의 공동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 토론·논의라는 지적 과정(intellectual process)을 통해 구체화되고, 회의 결과를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지적 산출물의 축적을 거쳐 정책적 방안으로 표면화되는 것이 OECD라 할 수 있다.

2. OECD의 교육관련 조직

OECD의 조직은 의사결정기구와 전문분야별 위원회 및 사무국, 각 분야별 독립기구들이 다층적으로 얽혀있는 일종의 문어발식 조직의 특성을 띠고 있다.

조직 일반과 교육관련 조직 가운데 교육관련 조직에 관해 서술하기로 한다.

교육문제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교육·고용·노동·사회문제국(DEELSA: Directorate for Education,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이며 이 사무국이 담당하는 위원회로 고

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ELSA: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Committee)와 교육위원회(ED: Education Committee)가 있다.

ELSA는 1961년 9월에 설립되었고 전 회원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ILO, 유럽의회 등이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다. ELSA는 회원국의 노동·고용 현황 및 정책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관심이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변화,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고용정책, 실업정책, 사회정책 등에 관해 회원국간의 상호 이해와 정책교류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D는 1970년 7월에 설립되었고 역시 전 회원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옵저버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멕시코,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유럽 의회 등이다. ED의 주요 기능은 국가별 교육정책 검토 및 정보 교환을 위시하여 국가간 교육협력사업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한국은 93년 11월 옵저버 자격을 얻은 이후 94년 4월에 한국교육정책에 관한 평가를 신청하여 현재 평가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LSA와 ED외에 중요한 교육관련 조직으로는 반독립적 자치기구인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Innovation)가 있다. CERI는 1967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전 회원국이 참가하고 있고 한국,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이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다. CERI는 OECD내의 각종 위원회에 비해 설립목적이나 회원의 가입 절차, 연구주제 선정 등에서 융통성과 독자성을 갖는다는 점에 특색이 있으며 자체 사무국을 두고 예산 운영도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3. ED와 CERI의 연구 활동

OECD는 본래 경제협력과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이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교육의 역할, 산업발전에

있어서 인간자원 개발의 중요성 등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어감에 따라 교육부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교육부문 연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ED와 CERI이다.

ED는 주로 교육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실제적인 교육정책을 구상하고 제안하는 데 초점을 둔 반면 CERI는 보다 이론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정책연구를 강조하는 데 특징이 있다.

1995~96년을 중심으로 볼 때 ED와 CERI가 모두 교육과 훈련 문제를 핵심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다만 ED의 작업은 교육과 훈련 정책에 관해 연구·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CERI의 작업은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와 혁신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강조점을 둔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1) ED의 연구 활동 개황

ED의 연구활동은 OECD 사무국 전체를 포괄하는 중점사업인 고용과 실업 연구(Employment/Unemployment Study)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외에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1) 제1영역

ED의 전체 연구활동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각국 교육정책의 기본 관점과 지식 내용을 종합 제시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영역에서는 교육정책 토의 및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정보 및 지식기반의 구축을 도모한다.

제1영역에 속하는 구체적 연구활동에는 크게 네가지가 있다.

첫째는 「교육통계와 지표」 연구로서 이 연구는 교육통계와 교육지표를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둔다. 둘째는 ELSA와 협동하여 추진중인 「훈련 통계」 연구로서 훈련에 관한 자료와 통계를 수집하여 교육통계 및 지표와 통합하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는 「국가별

OECD는 서구식 합리주의에 입각한 자유시장경제의

핵심 세력들이 모인 조직이다.

민주주의 이념과 자본주의의 논리를

상호 조화시켜 가는 가운데

문명의 세계를 계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OECD의 근본 목적이고,

OECD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러한 문명사회의 핵심에 진입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현실적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세력은

OECD 회원국이므로 한국과 같이

회원 자격을 줄 만한 나라는

회원국으로 가입시켜 문명 세계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려는 것이 OECD의 의도이다.

교육 및 훈련 정책 검토」이다. 이는 국가별로 교육 및 훈련 정책을 검토하고 다른 국가 정책과의 상호 작용을 검증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빛째는 「교육과 훈련 정책」으로 현재의 교육과 훈련 정책에 관한 개관과 향후 전망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2) 제2영역-교육 체제의 운영과 개발

이 영역에서는 교육과 훈련이 지향하는 다양한 목적과 가치의 충족을 위해 자원을 활용하고 운영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데 강조점을 둔다.

제 2영역에 속하는 구체적 연구활동은 세가지이다.

첫째는 「학교교육과 교육자원 관리의 효율성」 연구이다. 이는 교육 자원의 운영·관리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둘째는 「학교교육 실패」 연구이다. 학교교육의 실패는 모든 OECD 국가의 공통적 주요 문제이다. 학교교육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구체적 전략과 경험사례들을 조사하는 활동이 아울러 수행되고 있다. 셋째는 「대중 고등교육」 연구이다. 이 연구는 대중 고등교육(mass tertiary education)에 관한 새로운 요구와 기대, 비용과 재정, 혁신과 변화 내용 등을 주요 주제로 삼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대중 고등교육 제공 방안, 평생학습 개념과의 연계성 확보 등에 초점을 두고 수행된다.

(3) 제 3영역-교육, 사회, 경제

이 영역은 광범위한 사회·경제 체제의 한 부분으로서 교육과 훈련부문에 초점을 두는 한편, 교육과 훈련 분야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술의 변화, 증대되는 세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영역에 속하는 연구활동은 세가지이다.

첫째는 「기업활동의 유연성과 인적자원에 미치

는 영향」 연구이다. 이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구조의 변화가 인적자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위원회(IC: Industry Committee)와의 협동 작업을 통해 수행되는 이 연구는 기업의 전략, 구조, 규모상의 변화 정도와 변화의 성격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므로써 여러 ED연구 중 사회적 요청과 시의 적절성의 관점에서 핵심적 중요성을 띤 연구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둘째는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전이」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젊은층의 직업 선택에 관한 정보 및 학교에서 직업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는 데 있다. 아울러 보다 효과적으로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전이하기 위해 일반 교육과 직업 교육 및 훈련이 어떠한 역할과 가능성을 가져야 하는지 또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명료화하고자 한다. 셋째는 「평생학습의 재정」 연구이다. 교육에 대한 평생 학습적 접근은 새로운 재정 자원, 특히 공공예산의 투자 확대를 요청하며 효율적인 자원 재배치에 관심을 갖는다. 이 연구는 다양한 행정(governance)수준에서 세입 증가와 소비력간의 균형 확보, 평생학습에 있어서의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강조점을 둔다.

(4) 제 4영역-국제화

제 4영역에 속하는 연구는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국제간 협력 정책」이다. 오늘날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경제적·사회적 영역의 국제화 확대 추세가 새로운 정책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제간 협력 교육과정 개발, 국가간 학생이동, 국제적 인력시장(international skills market)의 등장 등을 주요 연구 문제로 설정하고 있다.

2) CER의 연구 활동 개황

CER의 연구 활동 역시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1) 제 1영역

학생, 기관, 전반적 교육 훈련 체제에 관한 최신의 질적 평가와 사정 (assessment)이 정책 연구 실시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거시적·미시적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의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영역에 속하는 주요 연구로는 「교육통계와 지표」, 「교육연구와 개발」-각국별 교육연구 및 개발 경험사례의 종합 정리, 「교육 혁신 작업」-주요 혁신영역에 관한 신속한 평가 등이 있다.

(2) 제2영역-교육 훈련 체제의 효율적 기능과 개발

이 영역에서는 제공되는 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의 다양성, 새로운 정보 기술의 활용, 교사의 역할과 책무성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 영역의 연구로 첫째, 「과학·수학·기술 교육의 혁신」이 있다. 이는 과학·수학·기술 교육의 혁신 사례를 연구하며 연구 결과를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둘째는 「기초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와 교육과정 개혁」 연구로 교육과정 개정과 교사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고 수행된다. 셋째는 「교육요구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달체제 개발」 연구이다. 급격한 경제·사회·문화적 변화와 계속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전통적 교육방식에의 투자에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비용 효과성이 높은 교육 전달체제(delivery system)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3) 제3영역-교육, 사회, 경제

첫째는 「교육과 직업에 있어서 생애주기에 걸친 대안 탐색」 연구이다. 이는 생애주기(life cycle) 전체를 망라하는 전이(transition)의 추세, 사실들을 심층 분석하여 전이를 쉽게 하는 조직적 정비와 정책 마련에 초점을 둔다. 둘째는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청년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연구이다. 이 연구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과 젊은이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에 관해 회원국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셋째로는 「장애자를 위한 적극적 삶」 연구이다. 이 분야는 실질적으로 회원국간에 매우 취약한 부분으로서 장애 아동과 젊은이들이 통합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4) 제4영역-세계화 차원의 교육 협동 작업

첫째, 「새로운 국제화 환경에서의 교육」 연구는 모든 사회적·경제적 영역에서 국제적 상호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대처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OECD와 DNMEs 국가간의 비공식적 대화 추진을 위해 환경 세미나를 비롯하여 다수의 국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4. OECD 가입의 의미

1978년 미국에 의해 최초로 우리 나라의 OECD 가입이 거론된 이래 1989년에는 페이에(Jean-Claude PAYE) 사무총장에 의해 우리 나라가 OECD 회원국 후보로 거론되었다.

1992년 4월에는 한국이 제7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OECD에 가입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고, 이에 대해 OECD 각료이사회에서 한국의 가입 문제가 협의되고 한·OECD간의 공식 접촉을 확대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교육부문과 관련지어 1993년 10월에 한국이 ED와 CERI에 옵저버로 참가하게 되었고 1994년 5월에는 ELSA에 옵저버 참가를 신청하였다. OECD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한국측도 1996년 가입을 목표로 제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OECD는 서구식 합리주의에 입각한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 세력들이 모인 조직이다. 민주주의의 이념과 자본주의의 논리를 상호 조화시켜 가

는 가운데 문명의 세계를 계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OECD의 근본 목적이고, OECD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러한 문명사회의 핵심에 진입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현실적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세력은 OECD 회원국이므로 한국과 같이 회원 자격을 줄 만한 나라는 회원국으로 가입시켜 문명 세계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려는 것이 OECD의 의도이다.

이러한 OECD의 입장은 선진국·서구 편향성의 측면에서 이념적 상충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OECD 회원국이 세계의 주도국들로 이루어져 있음이 현실이고 한국 사회 역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OECD 가입은 선진국 중심의 세계 주도 세력권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당면 과제는 OECD 가입에 따른 책임과 부담을 생산적으로 전환시켜 실질적 국익으로 확보해 내는 일이다.

OECD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는 GNP의 0.7%를 개도국 대상 공적 개발원조에 사용할 책임을 비롯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다. 개도국에 대한 원조 확대는 OECD 활동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이다. 국제사회 선진국의 일원으로도 덕적 차원에서 공존 번영의 윤리의식과 리더쉽을 키워나가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부담 차원을 넘어 이를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OECD는 각국 정부 수준에서 토론을 통해 당면 정책과제들의 해결점을 찾고 처방을 제시한다. OECD 회원국들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토론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통계와 자료·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무국은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 회원국에 배포한다. OECD 정책보고서의 많은 부분은 OECD 회원국에만 한정 배포되므로 비회원국은 주요 정보로부터 격리된다. OECD 가입은 경제·사회·교육분야에 관한 OECD 회원국의 국내 제도와 운영현황 및 정

책 관련 정보에의 접근 기회를 제공해 준다.

우리 나라의 경우 많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체계적인 사전준비 작업과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의 수집·분석이 결여된 채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의사결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OECD 가입은 분담금 지불 등 직접적인 재정상의 부담 요인을 수반하는 반면 단기적·가시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그 효과를 기대할 때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할 것은 서구식 토론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해 내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생소한 서구식 토론문화에 적응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부터 철저한 준비 작업과 체계적인 자료 수집·분석에 근거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축적을 통해 OECD 안에서 우리의 몫을 획득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총체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일이 시급하다.

또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 교육이 수행해야 할 합리주의와 책임윤리의 내면화라는 교육 목표가 부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OECD 가입은 자유와 평등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 서구 시민사회의 합리성 존중의 정신을 우리도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합리주의와 책임윤리는 선진국가의 국민들이 인정하는 문화적 힘이자 사물에 접근하는 문화적 방법론이 될 것이며 이는 서구의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근대적 합리주의와 책임 윤리를 한국 현대 사회·문화의 주요 부분으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을 새로이 하고 전통적 온정주의와 권위주의, 폐쇄적 공동체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교육이 담당해야 할 주요 과제라 하겠다. ●

교육통계의 국제표준화 연구 동향

고 장 완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석사)

-본원 직업기술교육연구특임본부 연구원
「한국 중등교육의 지역간 불균등성에 관한 연구」 외

1. 들어가는 말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사업의 성과 분석은 물론, 교육 전반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종 교육통계를 수집·분류하여 주기적으로 통계자료를 발간해 오고 있다. 이 자료는 국가간 상호 비교의 기초 자료가 되어 한 국가의 교육수준을 가늠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현재 국제적 교육통계 자료로는 UNESCO와 OECD, 그리고 EU에서 각기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작성·발간하는 교육통계 자료들이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상이한 교육체제에서 기인하는 분류 체제상의 불일치로 인하여 국가간의 객관적 교육상태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제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1992년부터 UNESCO, OECD, EU가 각기 따로 수집·작성해 오던 교육에 관한 국제통계를 세 기구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OECD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INES (International Network for Educational Statistics) 프로젝트는 국가간 비교에 있어서 보다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국들이 자료를 작성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통합통계 조사표 (UOE Questionnaire)가 개발되고, 이를 도구로 하여 회원국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체제의 구축은 각 국가들에게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OECD 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매우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새롭게 개정되는 교육통계의 국제적 분류에 따르기 위해서는 교육통계의 국제표준화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국제교육통계체제의 구축과 관련된 쟁점과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새로운 분류에 대한 쟁점

교육통계의 국제 표준화 연구는 기존에 UNESCO에서 채택하여 적용해 온 세계 교육 표준 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ertification of Education; ISCED) 체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1976년부터 ISCED를 사용·개발해 오고 있으나, 각국의 교육체제의 복잡성이 크게 증가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이 더욱 다양해짐으로써 ISCED 분류체제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의 국제적 표준분류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특히 1995년 6월에 개최된 제3차 INES 총회에서 OECD와 UNESCO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결의된 바 있다.

현재 ISCED 수정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나, 많은 쟁점들로 인하여 잠정적인 합의에 그치고 있다. 주요 쟁점으로는 교육의 영역 설정, 교육 프로그램의 분류 기준, 교육단계의 분류 방식, 교육단계별 분류 유형, 국제적 체제와 자국 체제와의 차이점 등을 들 수 있다. 첫번째 쟁점은 교육 영역(boundaries of education)의 설정으로 교육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교육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교육통계에 포함될 '내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초기의 ISCED의 정의는 '학습을 진행시키기 위해 설계된 조직화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이라고 규정하여 왔으나 조작적인 정의가 구체화되지 않음으로써 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의 내용, 범위, 제공자 및 참여자의 유형, 분류 등에 있어서 엄밀한 통일성을 기할 수 없었다. 분류체제에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과 다른 영역과의 경계설정 문제는 특히 취학전 교

육과 초등교육의 구분, 교육과 노동훈련 사이의 구분, 교육과 연구활동간의 구분과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다.

두번째는 어떤 측면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분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는 프로그램의 지향성, 서비스 제공자, 교육장소, 서비스 기관의 형태, 참가자의 유형 및 참가형태 등이 있다.

프로그램지향성은 프로그램이 일반-학문을 지향하는가, 직업-기술을 지향하는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주로 중등교육과 단기고등교육 단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교육 프로그램의 공급주체의 분류에 관한 문제로 기관의 형태, 지원, 통제 및 관리 주체에 따라 교육 기관과 기업 등 비교육기관을 구분하는 일, 이를 다시 공공기관과 사립 영리기관으로 나누는 것에 관한 논란이다. 교육장소의 문제는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되는지, 아니면 훈련 시설이나 작업현장에서 제공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즉, 학교중심, 작업장중심 그리고 학교/작업장 중심 프로그램간의 구별에 관한 것이다. 서비스 제공 방식은 교육서비스의 전달 방법, 즉 전통적인(교실)학습, 정보통신과 컴퓨터에 기초한 다양한 교육방식들간의 구별에 따른 분류이다. 참가자의 유형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지위나 신분을 말하는 것으로 참여자들이 학생인가 근로자인가 또는 성인들인가 하는 것이다. 참가방식은 프로그램 참여자가 전일제(full-time) 등록자인지, 정시제(part-time) 등록자인지 등에 관한 것이다.

세번째는 교육단계별 분류에 관한 논의로 교육단계의 설정을 계층적 구조로 할 것인가, 수평적 경로로 할 것인가이다. 기존의 ISCED 체제는 순차적으로 위계적인 사다리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 있어서 중등 이후의 교육은 오히려 병행체제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사다리와 같은 위계적 개념 등은 나뭇가지와 같은 다중경로모델(multi-path model)로

전환할 것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일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네번째는 교육단계를 어떤 유형별로 분류할 것인가이다. 유형에는 교육 프로그램별 분류와 이를 제공하는 교육기관별 분류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초등·중등·고등 교육 등과 같은 교육기관별 분류이었다. 이러한 구분은 한 국가 내에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쉽게 수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별 비교에 있어서는 타당한 준거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각 교육단계에서도 다른 교육과정, 다른 수학기간, 다른 자격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특히 고등교육단계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을 분류 단위로 할 것이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로 자국의 교육통계체제에 충실한 것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성이 있는 국제통계체제에 따르는 것 간의 균형에 관한 것이다. 국제적 비교가 이루어지려면 다루어지는 내용이 공통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각국의 교육체제와 구조는 매우 다르다. 따라서 국제적 표준분류가 자국의 교육통계체제와 다를 경우 비교는 불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자국의 구조적 특성과 다양성을 충실히 준수할 것인가, 자국의 체제를 일부 수정하여 국제적 분류체제에 따를 것인가 하는 선택에 부딪히게 된다.

3. 새로운 분류의 범주

상기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각 회원국들과 관련 국가들은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략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잠정적 합의에 지나지 않으며, 이 새로운 분류체제는 각국의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다. 첫째, 교육의 영역 설정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을 '학습을 목표로 한 조직화된 커뮤니케이션 활동

(organized communication for improving learning)'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학습'은 행동, 정보, 지식, 이해, 태도, 가치나 기술 등에 있어서의 개선을 나타낸다. '조직화되었다'의 의미는 내재적, 외재적 목적을 가진 교육방식과 과정에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이 계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는 조직화된 의사소통을 통해 학습환경과 교수방법을 설정하는 교육제공기관(사람/단체)이 포함된다.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직접적/대면적 또는 간접적/원격적일 수 있으며, 광범위한 채널과 매체의 다양성을 가진 정보의 전달을 포함하는 둘 이상의 인간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학습자의 학습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계획된 모든 의도적, 체계적 활동으로 문화적 활동과 훈련으로서 여겨졌던 것들도 일부 포함한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을 분류하는 주요 기준은 일정 수준의 입학 및 수료조건과 입학연령, 수학기간의 존재 여부이다. 다양한 교육활동들이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해당 기준을 만족 시켜야 한다. 이 기준으로는 입학자격, 수료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직업 과목과 일반과목의 이수, 재정에 대해 관리·통제권을 갖는 당국, 학습 장소(학교, 기업, 훈련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신분(학생/근로자), 전일제 학생의 학습기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 전부가 프로그램의 분류에 활용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단계에 따라 다르게 선택된다.

셋째, 교육체제의 분류방법에 관한 논의는 다중경로모형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체제를 보완하고 있다. 기존의 ISCED의 위계적 구조는 교육의 복잡성이나 다양한 경로를 분명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육기간과 프로그램 지향성에 따른 분류 체제 등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여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될 ISCED에서는 초등과 하위 중등 프로그램까지는 이전과 같이 위계적 과정을 채택하고 있으나 상위 중등과 고

등교육에 있어서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교육방식과 유형을 고려하고 있다.

넷째, 교육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제공자(기관)중 어느것을 중심으로 분류할 것인가인데 수정되는 ISCED에서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프로그램은 특별하게 선정된 교육과정을 완성하도록 조직된 교육활동, 과정 혹은 배열이라 할 수 있다. 프로그램 단위가 기간에 있어서 그리고 제반 자격요건 및 제공되는 교육과정이 다르다면 비록 동일기관에서 제공한다 하더라도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다.

다섯째, 국제적 분류체제와 자국의 분류체제와의 상이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자국체제에 대한 충실성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은 각 국가들이 자국의 교육체제에 따라 교육통계를 작성함과 동시에 국제적 표준분류에 따른 교육통계도 함께 작성하는 것이다. 이 때, 각국은 국가적 범주에서 국제적 범주로 전환되어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4. 새로운 분류체제의 전망과 시사점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따라 회원국에 존재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통계자료를 표준화시키기 위하여, 현재 OECD와 UNESCO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ISCED 수정안 작성을 위한 기초 조사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초조사 결과는 1996년 3월까지 수합·정리되어 5월에 있을 INES 전문가회의에서 각국의 자료들이 검토되고 수정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ISCED 수정안은 1996년도 하반기에 확정되어 ICE(국제교육장관회의)의 공동 수정안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러한 교육통계의 국제 표준화 작업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의 영역 확대이다. 교육체

제가 다양화되고 복잡한 구조로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체제를 보는 시각이 넓어짐에 따라 교육통계에 포함될 영역도 그만큼 넓어지게 되었다. 즉 교육을 '학습을 목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업내 훈련 및 사회교육 활동이 교육영역에 포함되고, 학생뿐만 아니라 근로자, 성인 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습자들이 분류 대상으로 산정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에 터한 '교육영역'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개념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육체제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6년 중에 OECD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교육통계에 있어서도 OECD의 분류체제에 따를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교육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표준분류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체제에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OECD와 UNESCO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 영재교육특임본부의 사람들

한국의 영재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햇수가 늘어날수록 그들의 잠재적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은 '96년부터 영재교육연구부를 영재교육특임본부로 승격시키고 연구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수의 영재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이론하에 박경숙 본부장을 중심으로 <영재 판별도구 개발>, <영재 교수학습자료 개발>, <영재교육 교원 연수자료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의 피로를 풀기 위해 잠시 목련이 만개한 봄의 정원에서 담소를 즐기고 있는 영재교육 연구팀들.

이들의 모습에서 미래의 영재교육을 향한 한국교육개발원의 꿈과 의지가 엿보인다.

원 장

* 3월 31일 열린교육학회 회장으로 있는 본원 이돈희 원장은 백남 음악관에서 열린 열린교육학회총회에 참가하였다.

* 4월 1일~7일 동안 본원 이돈희 원장은 중국 북경의 NCEDR(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 개원 기념 국제 학술회의에 참가하여 기조 연설을 하였다.

* 3월 14일 이영탁 교육부 차관은 본원을 방문하여 KEDI 현황을 청취하였다.



학교발전연구본부

* 교육개혁과제의 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층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3월 28일 (목) 본원 제 1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시범사례 발표와 함께 개괄적인 지정 토론회와 자유 토론회가 있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1995년과 1996년도의 학교운영위원회 연간 계획과 운영결과보고 및 운영지정과 부서 조직등에 관한 것이 주요 발표 내용으로 다루어졌으며, 향후 학교 운영 위원회의 보다 나은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심층적으로 논의되었다.

교육정책연구본부

* '초·중등학교 기관평가에 관한 연구'를 위한 전문가 검토 협의회가 지난 3월 19일과 28일 2차에 걸쳐 본원에서 개최되었다. 1차 협의회에는 최희선 인천교대 교수 등 대학교수와 교육부 관계자 6명이 참석하였고, 2차 협의회에는 김정기 인왕초등학교 교장등 학교 현장의 실무자 6명이 참석하여 연구 진행 계획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한편 연구진은 초·중등학교 평가담당 장학진과의 면담과 관련자료 수집을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대한 출장을 4월 1일부터 6일까지 실시하였다.

* '한국교육 비전 2000 미래 지식·정보사회의 교육체제 연구'

팀에서는 미래사회의 주요 변화 전망과 교육적 시사를 추출하기 위한 델파이 조사를 4월 30~6월 30일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나, 이 조사는 각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다. 동 연구팀은 이와 병행하여 '세계화', '정보화'등 미래사회의 핵심 추세에 대한 정책 포럼을 5차에 걸쳐 5월~8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 '열린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교육 개혁과제 연구'팀에서는 사회교육기관의 현황 파악및 요구 조사를 위한 출장을 4월 22일~26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멀티미디어교육연구본부

* 95년 KEDI 연구 개발용 S/W 90편(교무 지원 프로그램 2편 포함), 제 3회 전국 교육용 S/W 공모전 입상작 일반화 프로그램 150편, 도스용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 GREAT-II, 윈도우용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 새빛(SAEBIT)이 보급 대행 업체인(주)코아스(02-512-0541)를 통하여 전국 학교 및 교육 기관에 보급 중에 있다.

* S/W 심의 평가팀은 '제4회 전국 교육용 S/W 공모전 입상작 일반화 사업'의 일환으로 일

반화 위원 협의회를 3월 21일 본원 제 1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28명의 일반화 위원이 참석한 협의회에서는 일반화 대상 작품 250편에 대한 오류 검토 결과를 확인하고 수정 의뢰 사항을 추출하여 대상 작품들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 교육 DB·통신팀은 '교육용 S/W 통신 보급 및 활용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통신 보급시스템의 서비스 체제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3월 25일 본원 제 2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교육부 관계관 및 외부 관련 전문가와 연구원들이 참석한 협의회에서는 서버와 통신망 구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교육 DB·통신팀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라이브러리 연구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종합 설계서를 작성하였다.

* 학교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팀에서는 3월 20일 전국의 실업계 고교 교사 30여명과 교육부 관계관을 대상으로 인터넷 연수를 수행하였다. 교육은 인터넷 일반, 월드 와이드 웹(WWW), 컴퓨터 통신 개론, 전자우편의 사용법에 대한 강의와 실습으로 이루어졌다.

* 학교 MIS팀에서는 15개 시·도 교육청의 컴퓨터 교육 담당 장학사 15명과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한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3회에서 걸쳐 인터넷과 WWW에 관한 연수를 개최하였다.

기획조정실

* KEDI 학술연구토론회가 3월 2일과 16일 본원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3월 2일에 개최된 KEDI학술연구토론회에서는 김영화 박사가 '국가 발전에서의 교육의 역할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3월 16일에는 이인호 박사가 '교육혁신 사례 평가의 기준과 방법', 4월 6일에는 류재택 박사의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예정된 토론회는 5월 4일 '외국의 최신 교육 동향', 5월 18일 '학교 평가의 이론 및 기준', 6월 1일 '수행 평가(Performance assessment)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학술 연구 토론회로 본원 제 1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국제연구협력실

* 강무섭 본부장, 최돈민, 송병국 연구원(교육정책연구본부)은 '96년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서울산업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및 면담을 하였다.

* 3월 11일 일본 NIER 국제협력과장 Mr. Ryo Watanabe 외 1명이 본원을 방문하여 학교에서의 컴퓨터 교육에 관한 정보 수집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 김명숙 연구원(교육발전연구본부)은 '96년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UNESCO 기술그룹 회의에 참가하였다.

* 3월 15일 미국 Clark Univ. 총장인 Dr. R. Traina가 본원 제1회의실에서 「21세기의 교육(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에 대해서 강연하였다.



* 3월 15일 인도네시아 직업훈련관련 고위 공무원 30명이 본원을 방문하여 KEDI 현황 청취 및 관계자(장석민, 허경철, 김혜숙) 토론을 하였다.

* 4월 4일 네팔 교육관계자 5명이 본원을 방문하여 관계자(성일제, 장석민, 최운실, 백순근)와 토론할 예정이다.

* 4월 15일 핀란드 교육부장관이 본원을 방문하여 「핀란드의 교육현황, 핀란드의 외국어 교육」에 대해 강의했다.



교육정보자료실

* 최석진 교육위원은 '96.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호주 브리즈본에서 개최되는 UESCO 환경교육 워킹숍에 참가할 예정이다.

* 박덕규 연구위원은 '96년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 45차 국제교육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 광병선 본부장(교육과정연구본부)은 '95년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World Bank 자문관으로 파키스탄 국립 교육평가원 및 연수원 설립에 대한 자문을 위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 이옥화 교육정보연구팀장은 UNDP 자금으로 유네스코 본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원격 교육 프로젝트의 교육시스템 설계를 자문하기 위하여 5월 6일부터 18일까지 자카르타로 출장할 예정이다. 그간 컴퓨터교육관리 시스템이나 교육정보관리 시스템(KERIS) 구축을 통해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원격교육관리시스템의 설계를 자문해 줄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94년부터 유네스코의 지원아래 수십만 학생에게 혜택을 줄 원격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번 자문은 전국의 여러 섬에 소재한 수십만 학생을 관리할 학생관리 시스템의 설계가 중심이 된다.

* 천세영 교육지표연구팀장은 OECD의 국제교육통계프로젝트(INES)의 제 6차 기술그룹회의(5. 13~15, 파리) 및 UNESCO의 ISCED(국제 교육통계표준) 수정안 검토회의(5. 20~21, 제네바)에 한국자문관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 두 회의는 유네스코와 OECD, EU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통계의 세계표준화사업의 일환으로 열릴 예정이다.

한국은 1995년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OECD가 발간하고 있는 국제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자료집에 한국의 교육지표도 1996년부터는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 천세영 교육지표연구팀장이 책임하에 교육부 수탁연구사업으로 수행한 「세계교육통계표준화방안에 관한 연구」가 6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통계가 세계적 표준에 맞추어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교준거의 통일 방안과 함께 국가 교육통계 DB의 구축 방안에 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할 것이다.

* KERIS위원회(KEDI 교육연구정보 DB운영위원회)는 4. 19~20일까지 경기도 청평에서 「한국의 교육지표 1996」체제, 지표개발을 위한 집중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방송통신교육연구본부

* 1996 학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협의회가 4월 18일 (목) 본원 제 1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본 협의회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논의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본 협의회에는 교육부 관계자와 각 시·도 담당 장학사, 방송통신고등학교 담당 주임 교사, EBS 관계자 그리고 본원 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주영)이 매년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아산장학금 전달식이 3월 30일 (토) 재단 사무국(중앙병원 내 위치)에서

거행되었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은 2학년 홍승진(경동고)의 44명, 3학년 김옥이(창덕여고)의 44명 등 총 90명이다.

직업기술교육특임본부

* 지난 3월 19일 본원 제 1회의실에서 “신 직업교육체제 구현 방안 탐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9 교육개혁 방안」에 제시된 신 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개방대학 개편 방안 및 신대학 설치·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 구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4개 주제별로 발표와 토론 그리고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3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본 토론회 주제는 1) 신 직업교육체제에 따른 고등학교 개편 방안, 2) 신 직업교육체제에 따른 전문대학 개편 방안, 3) 신 직업교육체제에 따른 개방대학 개편방안, 4) 신 직업교육체제에 따른 신대학 설립·운영 방안이었다.



* 3월 21일에는 '96년도 공업 고등학교 「2·1체제」에 참여한 전국 96개 공고 관계자 대상의 '공고 「2·1체제」 운영 협의회'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협의회는 공고 「2·1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 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정보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안내·소개하고, 아울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함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교육부 관계관, 직업기술교육연구특임본부 연구진, 공고 교장 및 담당 교사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1) 공고 「2·1체제」의 추진 목적 및 실적, 2) 학교에서의 「2·1체제」 운영, 3) 산업체에서의 공고 「2·1체제」 운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공고

「2·1체제」 운영 전반의 사항에 대한 질의와 응답 시간이 마련되었다.

* 3월 22일 교육부에서 교육개혁추진기획단은 '신 직업교육체제 구축 프로젝트 진행 계획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직업기술교육연구특임본부에서는 이용순, 정태화, 김선태 팀장이 이 프로젝트 공동 연구원으로 위촉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2월 9일 발표된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II)"중 신 직업교육체제 구축에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1) 직업 교육 촉진법 제정, 2) 자격 기본법 제정, 3) 직업능력개발원 설립 등에 관한 연구 사업이다.

* 공고 「2·1체제」 전문 교과 영상 자료(기계과 2편, 자동차과 1편, 통신과 1편) 개발 내용 선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3월 14일~16일)를 개최하여, 각 학과별로 영상 자료에 담을 실험·실습내용을 확정하였으며, 영상 자료 제작을 위한 원작 집필을 의뢰(3월 26일~4월 27일)하였다.

* 4월 13일에는 올해 개발할 공고 「2·1체제」 전문 교과서 32책에 대한 집필자 워킹숍을 한국교원 단체총연합회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워킹숍은 1) 공고 「2·1체제」의 취지 및 배경 설명, 2) 전문교과서 체제 및 집필시의 유의 사항 설명, 3) 교과서별 협의회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교과서별 협의회에서는 교과서별 집필 책임자 주관하에 교과서 집필 계획과 방향 등을 설정하였다. 공고 「2·1체제」 사업의 수행 목적을 이해시키고 아울러 공고 「2·1체제」 교과서의 특성을 집필자에게 설명함으로써, 전체적으로 「2·1체제」 교과서가 통일성을 갖고 산업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워킹숍에는 본원의 이돈희 원장을 비롯하여 160여명의 집필자와 교육부 관계관이 참여하였다.

영재교육특임본부

* 영재특임본부에서는 민족사관 고등학교 학생 선발 체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영재특임본부 연구원 및 영재 교육에 관심 있는 본원의 연구원 20명은 3월 7일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민족사관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의 시설 및 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 오영주 연구원은 미국의 영재 교육 현황 및 영재 교육 방법, 영재 선발 체제; 영재 검사 도구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3. 15.~3. 29.까지 미국의 퍼듀 대학에 출장을 다녀왔다.

* 조석희 책임연구원은 홀브라이트 장학금을 지원 받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미국으로 연수를 떠났다. 조석희 연구원은 이 기간 동안 미국 및 외국의 영재 교육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한다.

* 영재검사도구개발팀에서는 4. 2(화) 본원 제 2회의실에서 외부 전문가 8인, 원내 전문가 9인이 참석한 가운데 창의적 수학 문제 해결력 검사 도구 영역 검토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사무국

* 3월 6일 KDI(한국개발연구원) 차동세 원장은 본원을 방문하여 '21세기 한국경제의 전망과 우리의 과제'에 대하여 기초 강연을 하였다.



● 전화번호가 달라졌습니다. ●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표전화가 96년 5월 1일자로

TEL:34600-114로 바뀝니다.

※ 기획조정실 '홍보편집팀'의 직통전화는

TEL:34600-233, 234로 바뀌었습니다.

시·도 교육연구원 활동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수업의 결과를 알아봅시다」

-2학년 1학기 형성 평가 자료
발간 보급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원장 한명희)은 '96년 3월 8일 '수업의 결과를 알아봅시다.'(초등학교 2학년 1학기 형성 평가 자료) 4,300부를 발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와 유관 기관에 배부하였다.

본 자료는 다양한 형성 평가 방법을 통하여 차시별 학습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환류할 수 있도록 내용과 체계를 갖추어서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발한 자료이다.

이에 본 자료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목표 지향적인 평가 업무를 지원함은 물론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아동의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전인 교육을 도모하는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원

교육연구회에 3,700여명의 교사
참여

부산광역시교육연구원에서는 교원의 자율적인 연구활동 참여

와 교육연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과 현장 교육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교과, 특별활동, 생활 지도 등 47개 분과회에 3,7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앞으로 분과별 연구활동은 연간 계획에 의거 초빙연수, 자체연수, 현장연수, 실기연수, 전사회, 발표회 등을 갖고 그 실천 사례를 발표하며 우수사례는 엄격한 심사 규정에 의하여 선정 표창하고 실천사례집을 발간하여 각급 학급에 보급하여 일반화하게 된다.

학생 상담 자원 봉사자

기초 교육 실시

학생 상담 자원 봉사자 기초과정 연수를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10일간 부산광역시교육청 4층 강당에서 자원 봉사 희망자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교육을 수료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부산광역시 교육청 관내 교육상담실 자원봉사 상담원으로 위촉장이 수여된다.

이들은 5월부터 자원봉사제 운영학교(중·고 93개교)에 배치되어 자신을 태우는 촛불로서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비행예방, 문제학생 선도 등 상담활동을 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교육연구원

'96학년도 중학교 1, 2학년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자료
발간

'96. 2. 7일에 관내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 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발간하여 배부하였다. 이 자료에는 교과별로 문항 반응 분석을 하여 제시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지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문항 반응 분포의 분석은 문제를 제공한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문항개정자료로 삼는 동시에 일선학교에서는 교수·학습방법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생상담 자원 봉사자 기초교육 실시

금년도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제9기)기초교육이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60시간에 걸쳐 상담에 관한 교양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기초교육이 실시된다. 3월 31일 현재 83명의 희망자가 신청해 옴으로 상담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의 내용은 주로 청소년의 심리, 상담의 원리, 상담의 기법, 성교육 등 이론과 실기로 이루어지는데,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교육감의 수료증이 수여되고, 일선학교에 배치되어 상담봉사활동에 임하게 된다. 본원의 주관하에 이루어져 온 학생 상담자원봉사제는 지난 8년동안 학생상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금년 9월에 전국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찬회를 대전에서 주관하게 되어 이곳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은 이를 계기로 보다 내실있는 상담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96학년도 연구·실험·시범학교 실무 담당자 협의회 개최

3월 19일 본원 7층 대강의실에서 '96학년도 연구·실험·시범학교(33개교) 교감, 연구주임 및 본청, 지역교육청, 과학교육원의 연구담당장학사의 협의회가 있었다. 이날 협의회는 한국교육개발원 조난심 박사를 초빙하여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2시간의 강의를 가진 후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본원 손부일 조사연구부장의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의 방향과 연구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한 강의와 본원 실무담당장학사의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실무 협의 및 행정사항 전달이 있었다.

□ 「한발교육」 제13호 발간

본원에서는 교육정보지인 「한발교육」 제13호를 3월 1일자로 발간하여 관내 학교, 유관기관 및 전국 교육연구원에 배부하였다. 「한발교육」 13호는 특집으로 '외국어 교육'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95년도말에 수집한 본원 자료 발간 및 한발교육특집에 대한 일선학교의 의견 청취에 의거한 것이다.

특집 내용에는 충남대 신성철 교수의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는 영어교육', 한남대 김남순 교수의 '한국외국어 교육의 개선 방향', 교육부 편수국 장일환 연구사의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특징'을 비롯하여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이 진단한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생활 영어 활성화 방법, 평가 방법, 원어민 교사 활용과 영어교육, 외국의 영어 교육사례 우수 현장연구논문 등을 게재하고 있다. 일선 학교의 외국어 수업개선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보다 알찬 교육정보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다짐한다.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 「인천진로교육(제5호)」 발간

학교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 교육 자료인 '인천진로교육' 10,400부를 발간하여 초·중·고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였다.

□ 제 10기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기초교육 실시

상담자원봉사자의 상담능력을 제고하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0일간(3.18~3.29)본원에서 86명을 대상으로 상담내용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하였다.

□ 진로교육 담당자 회의

'96년도 학교진로교육 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3일간(4.2~4.4)본원에서 초·중·고 진로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로교육 연간계획 수립, 진로의 날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였다.

□ 연구·실험·시범학교 담당자 연수 및 협의회

'96교육부 및 시교육청 지정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관계자 연수 및 협의회를 3월 12일 본원 시청각실에서 교감·연구주임 80명을 대상으로 연구(실험, 시범)학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특강과 분과협의를

가졌다. 따라서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연구·실험 시범학교를 담당 장학진 연구진이 합동으로 방문하여 운영 내용과 방법에 관한 지도·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현장교육연구 논문 및 주제목록집 발간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고,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해 현장교육연구의 추진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선행우수 연구논문을 분과별로 1편씩 선정하여 모델로 제시하고, 현장연구 주제 선정 자료로 '91년부터 '95년까지 15개 분과에 걸쳐 이루어진 주제목록을 수록하여 일선현장교육연구의 방향을 시사해 주는 자료로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등학교에 공급할 계획이다.

초·중·고교장 대상 멀티미디어 교육

4월 8일부터 4일간 본원 전산실에서 관내 초·중·고교장 328명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시스템 활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 교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멀티미디어 설치 및 활용에 대비토록 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각 1일간씩 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원도 교육연구원

강원교육사료관 설립을 위한 교육 사료 수집

경원의 교육 유산 및 사료를 발굴, 수집, 전시, 보전하기 위하여 「강원교육사료관」 설립을 97년 12월중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96년에 폐교된 14개 초등학교에 교구, 교재, 기자재, 각종 사료를 수집했으며 국민 학교가 초등 학교로 개칭됨에 따라서 폐기되는 교기, 현판, 직인, 계인 등도 도내 학급 교육청을 통해서 수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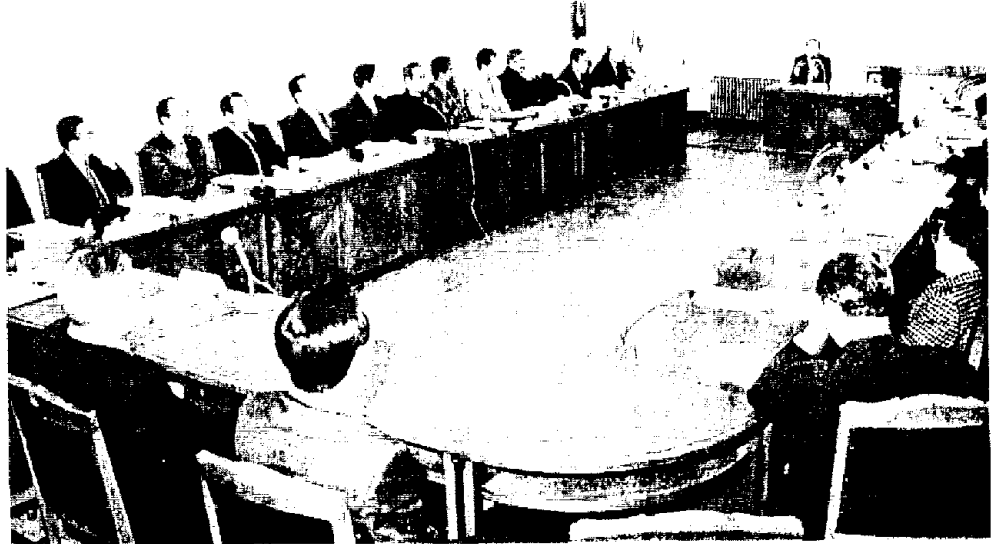
3월 19일에는 각종 사료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장, 교육장, 도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연구원 담당자들이 협의회를 개최하여 강원교육사료관 설립에 적극 협

조할 것을 결의하였다.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개발

강원도 교육연구원 자료제작부에서는 4월중에 멀티미디어 자료개발실을 설치하여 멀티미디어 관련 학습자료를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이 계획에 따라 학습자료 개발에 필요한 각종 멀티미디어 기기를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에는 영상자료, 음향자료, 그래픽, 문자정보 등을 편집할 수 있는 기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기초 조사에 따른 기기의 구입이 끝나면 화질이 좋은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CD에 담아 학습자료로 제작할 계획을 세우고, 멀티미디어 컴퓨터 보급에 발맞춘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흥미를 끄는 학습자료가 개발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96현장연구원 위촉장 수여 및 협의회 개최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96현장연구원 위촉장 수여 및 협의회가 3월 22일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학교 현장의 당면 현안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충북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목적을 두고, 위촉된 30명의 현장연구원들은 교수·학습 방법 개선, 생활 지도, 특별활동, 진로지도 등의 영역별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교육감의 위촉장 수여 다음의 협의회에서는 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연구와 학교 1교실 현장 교육 방법 연구의 이해와 전략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현장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특히 금학년의 현장 연구는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에 중점을 두고 교단의 개방, 자율, 창의, 다양을 존중하는 열린교육 체제로의 전환과 교단의 선진화에 대한 연구를 하여 교육개혁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충청남도 교육연구원

1996학년도 연구학교 담당자 연수회 개최

충청남도교육연구원(원장 이창희)에서는 지난 3월 8일(금) 1996학년도에 연구학교로 지정된 62개교의 교장, 연구주무자 106명과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청 담당장학사 51명,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 담당 연구사 22명, 일반회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교육감의 교육개혁, 세계화교육, 인성교육, 창의성교육에 대한 방향 제시와 연구 학교에서는 주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접근과 창의적이고 적극적, 능동적으로

연구학교를 운영하여 교육 개혁의 선도 학교로써 역할을 다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다.

교육부 및 도지정 연구학교 운영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양기택 초등장학과장의 특강과 소관과별 과제부여 배경에 대한 취지 설명과 도교육청 담당장학사와 연구학교 교장, 연구 주무자와 연구학교 운영 기본 설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오후에는 95년도 연구학교 운영 결과에 대한 반성과 96학년도 연구학교 운영 협의의 초점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담당연구사와 연구학교 운영계획에 대한 협의가 오후 늦게까지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전라남도 교육연구원

청소년 진로교육용 읽기 자료 「보람찬 삶의 길」 발간

진로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 교육청의 장학계획에 의거, 청소년 진로교육용 읽기자료 「보람찬 삶의 길」을 발간하여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중·고등학생의 진로교육용 읽기 교재로 직업 성취 모범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결정 성취 동기를 강화시키기 위해 남다른 집념과 굵힐 줄 모르는 강한 의지로 딛고 일어난 현존 향토 출신 기업인 20여명의 직업 성취 모범 사례를 일화, 성장 배경, 생애와 업적, 기업 경영 등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진로의 선택과 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이자료에 나타난 생생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소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시절의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고 꿈을 가꾼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골라 엮었다.

영상자료와 함께 쓰는 「민속 놀이 지도 자료」 발간

오늘날 근대화의 과정에서 유입된 서양의 놀이 문화와 값비싼 완구류가 지능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몰려와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감각적인 재미에만 집착하도록 하게 한 나머지, 안타깝게도 민속놀이가 갖는 본래의 뜻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교육적 현실을 감안, 우리의 전통적인 민속놀이를 일선 학교에 보급하기로 하였다. 민속놀이 중에서 교육과정과 관련이 많은 연날리기, 팽이치기, 굴렁쇠 굴리기, 널뛰기, 제기차기 등을 학생 지도에 필요한 영상자료로 새로이 편집하여, 일선 교육 현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엮어서 배포하였다.

경상북도 교육연구원

교육자료 제작실 설치 운영

지식·정보·기술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학생들이 길러야 할 지적 능력은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하겠다.

또한 교사와, 교과서 중심의 획일화된 수업에서 학생 주도적 학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각종 첨단 자료를 적기에 보급 활용할 필요가 절실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96.3.1 도교육청으로부터 7명의 전문인력을 지원 받아 교육자료 제작실을 설치하여 각종 첨단 자료 개발, 보급에 힘쓰고 있다.

'96학년도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담당자 협의회 개최

'96년 3월 26일(화) 09:00
~18:00까지 '96학년도 연구(실



경상남도 교육연구원

협·시범)학교 운영 계획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상호 정보 교환으로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가하기 위하여 '96학년도 교육부 및 도지정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실험·시범)학교 교장 및 연구주무자, 지역교육청 학무과장, 담당장학사, 교육연구원 및 과학교육원 전문직 전원,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등 215명이 모여 특강(도교육청 초등장학과장)사례 발표, '96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협의, 연구 추진 일정 및 업무연락, 분과 협의, 연구주무자와 담당연구사의 협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학부모 교육 담당 교사제」 운영에 따른 요원 양성

학부모 교육의 현실적 필요성과 요구에 부응하여, 각급 학교에 학부모 교육을 전담할 교사 요원을 양성하여,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자녀 교육관 및 구체적인 자녀 지도 기법을 학부모들이 체득케 함으로써 자녀의 성장 발달에 따른 부모의 역할 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학부모교육 요원 교사'를 본원에서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93년도부터 본원에서 실시해 왔던 「학부모 대학」도 학부모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금년부터는 21개 지역 교육청 단위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요원 양성을 위한 교재 개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학부모 대학」강좌용 교재 발간

'93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 대학」강좌용 교재를 개발 보완하여 발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효과적인 자녀와의 대화 방법, 학교 교육과 부모의 역할, 학습 장애 상담지도, 자녀의 성격(인성)발달과 가족의 인간 관계, 자아 개념과 행

동, 청소년의 이해, 창의성을 키우는 자녀교육, 자녀의 올바른 독서 지도, 위대한 어머니들, 외국의 가정교육 등이다.

□연구·시범·실험학교의 연구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연구·시범·실험학교의 연구 추진 과정의 협의·지도는 본 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토록 함에 따라 교육부 지정 5개교, 도지정 53개교를 대상으로 현장지도, 통신지도, 내원지도 등을 통하여 계획 단계, 준비단계, 실행단계, 보고단계별로 중점 지도한다.

한국교육개발원 대행 출판 자료 목록

자 료 명		정가	대행출판사	자 료 명		정가	대행출판사	
초등학교 특별영어	배움책(상)	6,000	대한교과 서(주) (02) 3451 -3861	민주시민 교육자료	우리와 나(초등학교 3-4 학년 학생용)	1,600	대한교 과 서(주) (02) 3451 -3861	
	배움책(중)	6,000			우리와 나(초등학교 3-4 학년 지도서)	2,600		
	배움책(하)	6,000			우리와 나(초등학교 5-6 학년 학생용)	1,600		
	지도서(상)	2,500			우리와 나(초등학교 5-6 학년 지도서)	2,400		
	지도서(중)	2,700			민주사회 민주시민 (중학교 학생용)	1,600		
	지도서(하)	2,800		민주사회 민주시민 (중학교 지도서)	3,100			
배우며 생각하 며 (초등학교용)	배움책(1-2)	4,8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학생용)	2,900			
	배움책(3-4)	4,0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지도서)	4,000			
	배움책(5-6)	3,7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 용)	2,400			
	지도서(1-2)	3,300		민주사회 학생지도서 민주 적 학교운영(총지침서)	3,800			
	지도서(3-4)	3,600		민주시민 자질함양을 위한 한국 교육의 과제	4,500			
	지도서(5-6)	3,200						
배우며 생각하 며(중학교용)	배움책	2,700		성 교육 자 료	아직도 아기라고요 (초등학생용)	2,000		
	지도서	3,400			어른이 되나봐요(중학생용)	2,500		
	생각하는 수학공부 (초등학교용)	1학년용	2,600			우리는 예비어른 (고등학생용)	2,900	
		2학년용	2,700		초등학교 영어학습 자료	3학년용	12,000	삼화출 판사 (02)
		3학년용	3,300			4학년용	12,500	
		4학년용	3,700			교사용지도서	2,400	
5학년용		3,700		우 등 생 이 되기 위한 글 읽기(초- 중등학생용)	중심내용 파악 학습전략	1,800	776 -6687 ~8	
6학년용		3,900			자기점점 학습전략	1,200		
생각하는 학습자료 (초등학교용)	(1-2학년) 상	1,300			관계짓기 학습전략	1,200		
	중	1,100			정교화 학습전략(Ⅰ)	1,700		
	하	1,400		정교화 학습전략(Ⅱ)	1,900			
	(3-4학년) 상	1,800		읽기학습전략훈련지침서	1,200			
	중	1,600		환경 교육 자료(초등 학교용)	즐거운 환경탐구 (1,2학년용)	1,500		
	하	1,700			재미있는 환경탐구 (3,4학년용)	1,700		
(5-6학년) 상	1,700		보람찬 환경탐구 (5,6학년용)		1,900			
중	1,900			환경탐구 시리즈 (교사용 지도서)	3,200			
하	1,900		영 재 교 육 자료	이야기나라 (초등학교 3,4학년용)	1,400			
생활경제 학습자료 (초등학교용)	지하마을의 전설	1,400			측정의 세계(")	1,200		
	태호와 드송	1,500			사람들이 사는 곳(")	1,700		
	내일은 야구왕	1,500			자석에 관한 연구(")	1,100		
	욕망과 선택	1,500			미술감상(")	1,600		
	동수의 병	1,400						
	화해	1,300						
이루코부족과 무역선	1,500							
짱구의 물가비행	1,400							
한지붕 두 마음	1,300							
물고기의 교훈	1,400							
지도서(상)	500							
지도서(하)	400							
민주시민 교육자료	유치원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학생용)	35,000						
	유치원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지도서)	3,300						
	우리와 나(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용)	1,300						
	우리와 나(초등학교 1 -2학년 지도서)	2,200						

자 료 명		정가	대행출판사
영재교육자료	교사용 지도서(초등학교 3,4학년용)	2,500	삼 화 출 판 사(02) 776 -6687 ~8
	신문기사(초등학교 5,6학년용)	1,000	
	화률의 신비(")	1,100	
	우리나라의 풍습(")	1,400	
	깨끗한 물(")	1,100	
	동요만들기(")	1,800	
	교사용 지도서(")	3,300	
	에너지와 우리생활(중학생용)	1,400	
	전기와 그 이용(")	1,200	
	인간과 생태계(")	1,000	
	바다의 신비(")	1,100	
	우리가 사는 지구(")	1,300	
	교사용 지도서(")	2,800	
	수학과 학습자료(중학생용)	수학 문제 해결의 지혜(1학년용)	
(2학년용)		2,700	
(3학년용)		2,700	
영어능력신장자료(중학생용)	영어 읽기	3,300	
	영어 쓰기(1)	2,700	
	영어 쓰기(2)	2,000	
	영어 쓰기(3)	2,100	
한국교육개발원 집단지능검사	초등학교용(A형)	750	한 국 적 성 연구소(02) 515 -5722 (02) 515 -5725
	초등학교용(B형)	750	
	중학교용(A형)	750	
	중학교용(B형)	750	
	고등학교용(A형)	750	
	고등학교용(B형)	750	
	대학교용(A형)	750	
	대학교용(B형)	750	
	초등학교용 추가검사	750	
	중학교용 추가검사	750	
고등학교용 추가검사	750		
진로성숙도검사	중·고등학생용	750	
아동용 개인 지능검사(KEDI-WISC)	만 5세-만 15세	134,000	도서출판 특수교육(02) 812 -0348
기초학습 기능검사	만 5세 초등학교-6학년용	184,000	

자 료 명		정가	대행출판사
유아인지 학습자료	자료A(색막대놀이외2종)	331,000	국민서관(02) 710 -7751
	자료B(곰돌이 도미노외 10종)	132,000	
	자료C(그림수찾기외7종)	110,000	
	자료D(바둑판게임외7종)	187,000	
언어교육 활동자료		165,000	

[KEDI 도서회원] 안내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 교육의 종합적인 연구 산실로서 각종 연구 보고서와 교육 교재 및 학습 자료 등의 간행물을 계속하여 발간 배부함으로써 한국 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본원의 연구 산출물에 관심이 있고,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교육 관계자 및 기관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87년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에게 각종 간행물을 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회원에 대한 특전

- (1) 본원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6 회), '한국교육'(연 1 회) 우송
- (2) 당해년도 '연구보고서' 20 종~25 종(익년도 3월 우송)

2. 연도별 회원제

회원자격은 1년간 주어지며, 가입년도에 본원이 수행한 정규 연구보고서(매년 3월중 발송)와 정기 간행물을 받으실 자격이 주어짐.

3. 가입 방법

가입 신청서와 함께 회비를 납부하면 됨.

4. 연 회비(1구좌당)

- 가입 년회비 : 60,000 원

5. 회비 납부 방법

『우체국(온라인 계좌번호) : 011916-0006202, 한국교육개발원』 또는

『국민은행(온라인 계좌번호) : 070-01-0379-171,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입금.

6. 문의처 : 우편번호 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사무국 총무부 출판계(전화 3460-0408, 0411)

◎ 가입신청서는 이면에 인쇄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시거나 복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 가입신청하는 경우에도 '가입신청서'를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달의 명상

오랫동안 지녀온 한 편의 시가 있다.
Amanda Bradely 詩作의 심상이 보이는 듯하다.
힘든 이의 여긴 심상이 닳래지는 듯하다.
분맞이 심상이 떠오르는 듯하다.

곳었던 낱들은 잊어버리고
찬란했던 나뭇들은 잊지말기로 하자

실패했던 낱들은 잊어버리고
승리했던 순간순간은 잊지말기로 하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잊어버리고
그로 인해 얻은 교훈은 잊지말기로 하자

복운의 낱들은 잊어버리고
행운이 내게로 손짓하던 순간순간은 잊지말기로 하자

익스뽀웠던 낱들은 잊어버리고
내게로 다가오던 친근한 얼굴들은 잊지말기로 하자

푹리지 않던 일들은 잊어버리고
언제나 꺾 꾸는 것은 잊지말기로 하자

방 명 속 (본원 연구원)

